

드롭북 시리즈

(Drop Book Series)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지은이: 세븐드롭스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목차



드롭북 시리즈(Drop Book Series)는 몇 년에 걸쳐 만들어진 세 권의 책을 편집한 것입니다.

아래 페이지 번호는 세 권의 책을 드롭북 시리즈라고 하는 한 권으로 통합하여 만들어 매긴 것입니다.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드롭북 1) ----- 3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더 깊이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드롭북 2) ----- 47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돌아온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드롭북 3) ----- 97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 ----- 163

하느님의 뜻에 영구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봉헌기도 ---- 164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I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지은이: 세븐드롭스

그린이: 메리 (15세)

펴낸이: 쉐인 (17세)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저는 하느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떠도는 청소년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도록
이 책이 저술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 익명의 지인

캐시, 메리와 또 한 명의 메리, 조운, 줄리아너, 팻 및
다른 여러 산 제물인 영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과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
의 저서를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
학적 논술이 아니라 필자의 소견(所見)을 털어놓은 것이니, 하느님 뜻 영성의 빛에 비
추어 읽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원하는 만큼 많이 구입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필자 세븐드롭스 적음



이 그림은 못사람들의 눈에 매우 익숙한 광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탈리아의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사람에게 알려 주신 사실인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님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하면 (그 당시) 온 세상 어디에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신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곧 하느님의 뜻이십니다. 하느님이신 그분의 본성에 의해 그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신 것은 은총, 곧 (하느님의) 선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두 분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알려면 아담과 하와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원죄를 범했을 때, 그 심각한 추락과 더불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에덴동산에서는 만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과 식물이 - 모든 것이 - 그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와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마다, 걸음을 옮기거나 미소를 짓거나 말을 하거나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그들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자신의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꺼이 하느님의 뜻 안에 녹아들게 하고,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행위와 말과 생각이 모든 면에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부적(注賦的)인 지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성의 사유 작용을 통하지 않고 얻는 지식, 곧 하느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는 지식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말(馬)을 보고 그 안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조물들을 지어내신 까닭**과 그들이 지닌 **특성 및 그 용도**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좋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겪지 않는 면제의 특전도 받았습니다. 곧 고통이나 굶주림이나 불행 같은 것은 전혀 겪지 않았고, **완전한 행복만**을 알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불사불멸의 존재**인데다 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신적인 행위들**이었기에 실제로 그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토록 아담과 하와는 신적인 무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속 생각에는 모든 것이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선이 아닌 것,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행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조물들** - 모든 동물, 공기, 식물 및 이 땅 전체를 - **지배**하였고, 모든 조물은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과 바람과 물과 그 밖의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식물과 동물과 다른 것들은 그들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느님의 뜻도 소유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만**으로 살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점이 변하고 말겠지만 말입니다.

인간의 추락과 그 전말(顛末)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하느님께서 시험해 보 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과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을 다 그들 에게 맡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知善惡樹)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그러지 말라고 하신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느님의 뜻을 써서 걸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그 모든 것을 했던 그들이 이제 '하느님 뜻의 나라'밖에서 처음으로 그들 자신의 뜻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들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의 뜻은 여전히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하느님 뜻은 하느님과 같이 무소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남아 그들의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뿐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과 분리되어 활동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나약하고 변덕스럽고 무질서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뜻이 홀로 하늘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뜻



하느님의 그 선물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것의 좋은 열매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는 지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고통과 불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노화 현상도 시작되어 **죽음을 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원하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뜻의 빛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라지자** 그들 주위에 동물이 더 이상 떼지어 모여 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물이 달아났고, 식물도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조물들은 여전히 하느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럴 수 없었으니, 그들은 이제 다른 피조물과 화목하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전적으로 유보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니, 하느님께서 다시는 당신의 작품들을 즐기실 수도, 아담과 하와의 때 묻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실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매우 오래도록 살았고, 매우 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삶을 잃게 된 이후부터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의 효력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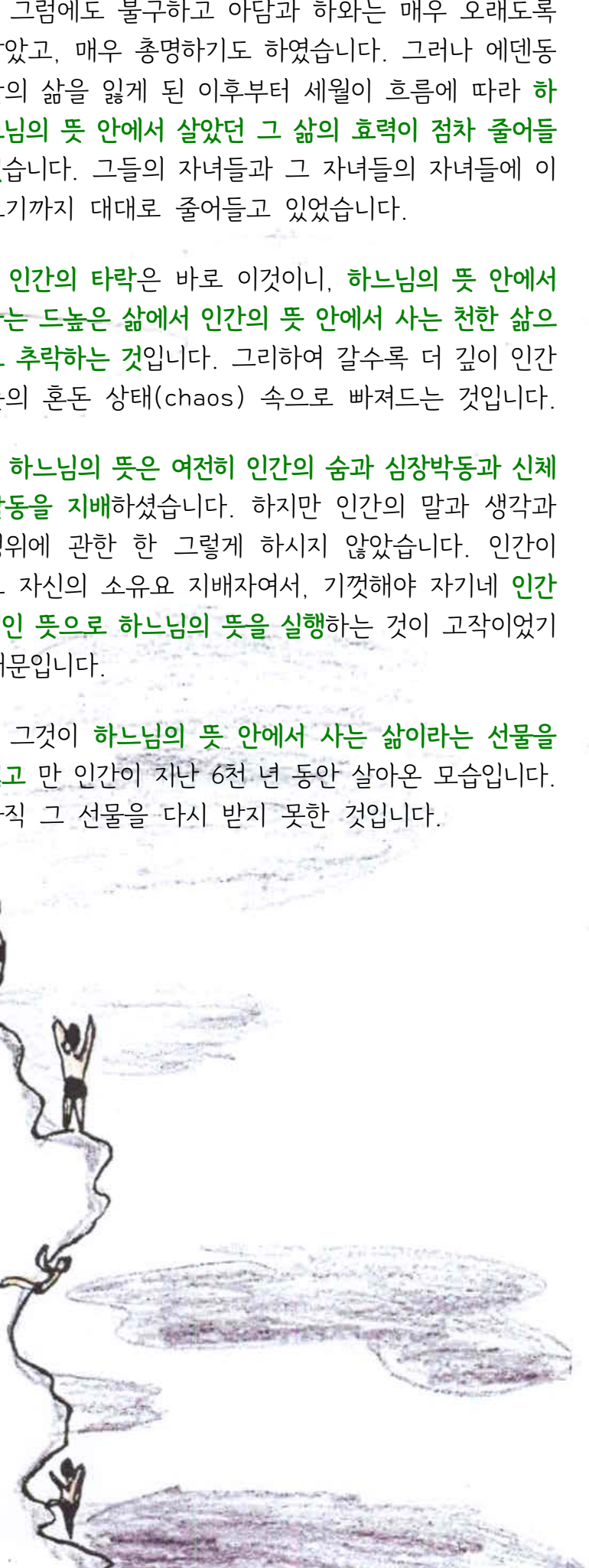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것이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드높은 삶에서 인간의 뜻 안에서 사는 천한 삶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더 깊이 인간 뜻의 혼돈 상태(chaos)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여전히 인간의 숨과 심장박동과 신체 활동을 지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관한 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소유요 지배자여서, 기껏해야 자기네 **인간적인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잃고 만 인간이 지난 6천 년 동안 살아온 모습입니다. 아직 그 선물을 다시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목적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계획이 몇천 년의 **잠정적인 유예 기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6천 년이 된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따르기를 원하신 길을 놓아두고 우리가 멀리로 돌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6천 년간의 우회를 찬찬히 훑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버리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원래의 계획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보완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백업(backup) 계획은 갖가지 도움들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역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더는 하느님의 뜻을 써서 갈 수 없는 길인데다,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탄**이 갖가지 **비루한 속임수**를 다 쓰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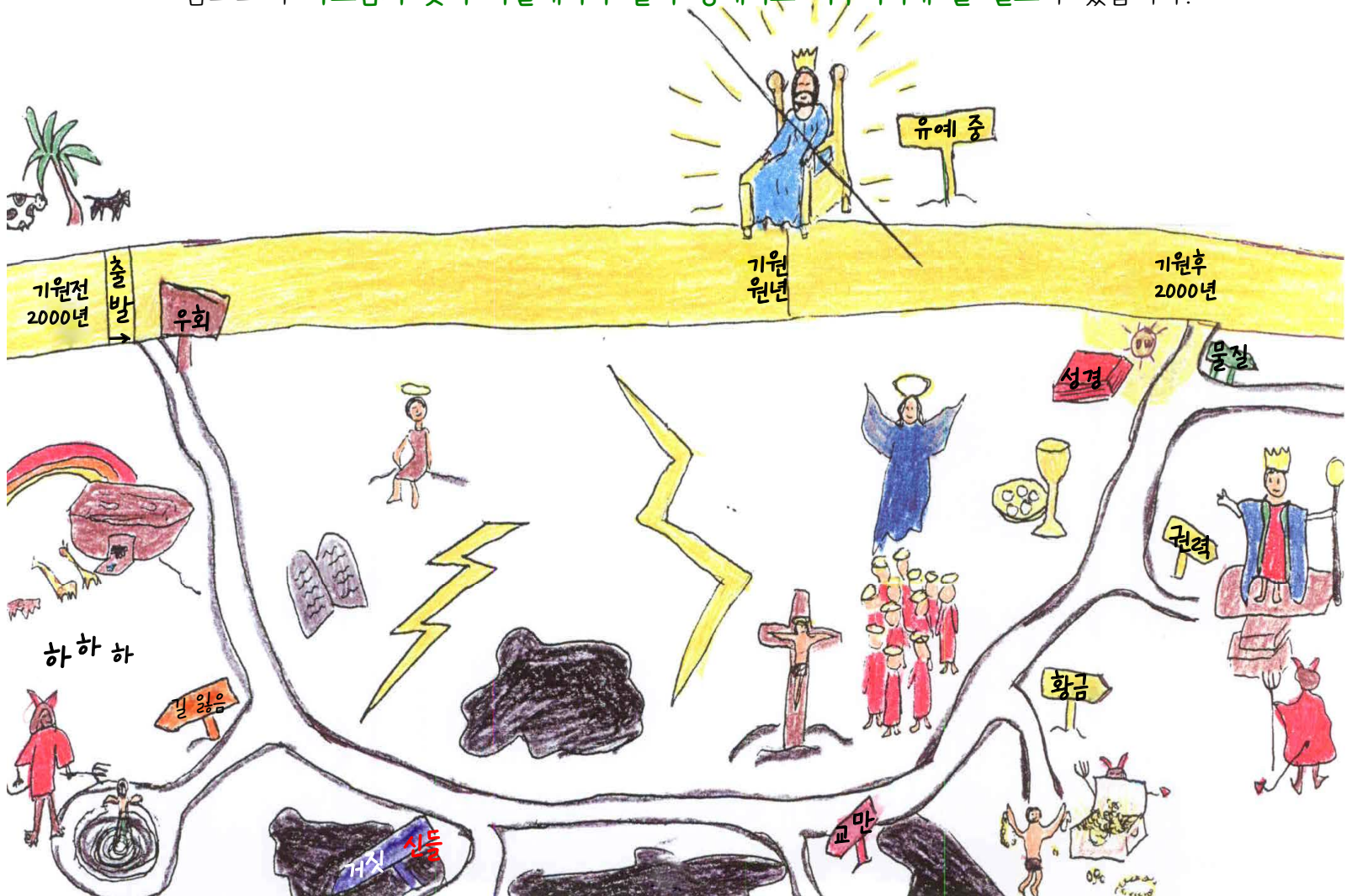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대한 도움**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수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하느님 뜻이라는 선물을 되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금님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오시어 **끔찍한 죽음**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금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유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그 선물이 우리에게 되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실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가 그 우회로를 따라갈 도움을 주시려고 수많은 선물을 남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난 2천 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인간적인 뜻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태, 동물 복제, 살해, 노쇠 촉진 및 전쟁, 동성애, 이혼** 등 사태가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을까 싶어질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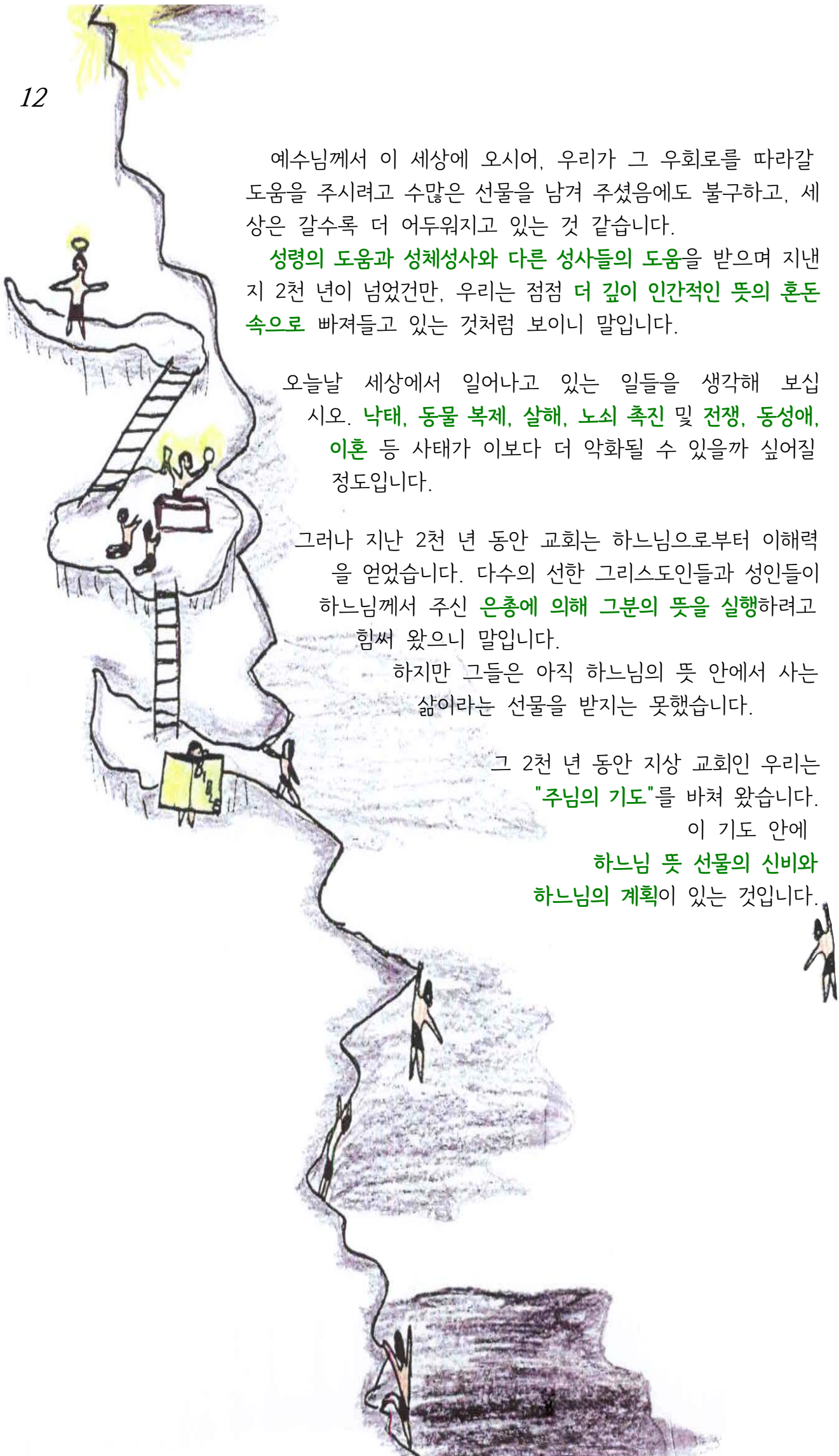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천 년 동안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다수의 선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인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에 의해 그분의 뜻을 실행**하려고 함께 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2천 년 동안 지상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쳐 왔습니다.

이 기도 안에

하느님 뜻 선물의 신비와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기도인즉, 이 사실 때문만으로도 우리가 그 낱말마다 주의 를 기울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뜻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소수의 성인들만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이 성인들에 대한 글을 읽어 보면, 그들의 삶은 곧 자기네 인간적인 뜻과의 부단한 투쟁이었습니다. 천국에는 하느님의 뜻과 투쟁하는 이가 없고, 누구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재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2천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까요?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선물이 하느님의 계획과 합치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이제 2천 년이 지났으니,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고, 교회도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

다. 하느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음을 보신 하느님께서서는 나 자렛의 **겸손하고 작은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를, 곧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백 년도 더 전에 하느님께서 "주님의 기도"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탈리아의 **겸손하고 작은 소녀 루이사**에게 나타나시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물로** 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루이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은총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루이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셨고, 인간의 뜻이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이사가 **자신의 뜻을 버리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64년이 넘게 그녀에게 나타나셨고, 그녀는 그 기간 내내 침상에만 붙박여 지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의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복된 성사만을 영했**을 뿐입니다.

학력이라곤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하느님의 뜻에 대한 글**을 쓰고, 쓰고, 또 쓰게 하셨습니다.



루이사는 82세까지 살았고, 예수님께서 제목을 정해 주신 책 36권을 썼는데, 그 제목은 「**천상의 책**」입니다. (그 전후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께서 루이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이 삶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효과와 가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루이사가 심히 꺼린 것은 그분과의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도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화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또 다른 책들도 쓰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당신의 수난과 복되신 어머니에 대한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외적으로 행하신 것**, 즉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집트로 피신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 선포,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들, 그분의 죽음과 부활 및 다른 여러 외적인 것들입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깨끗이 치우려고
비질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집 청소를 하는
모든 어머니와 주부들의 활동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제 사랑과 함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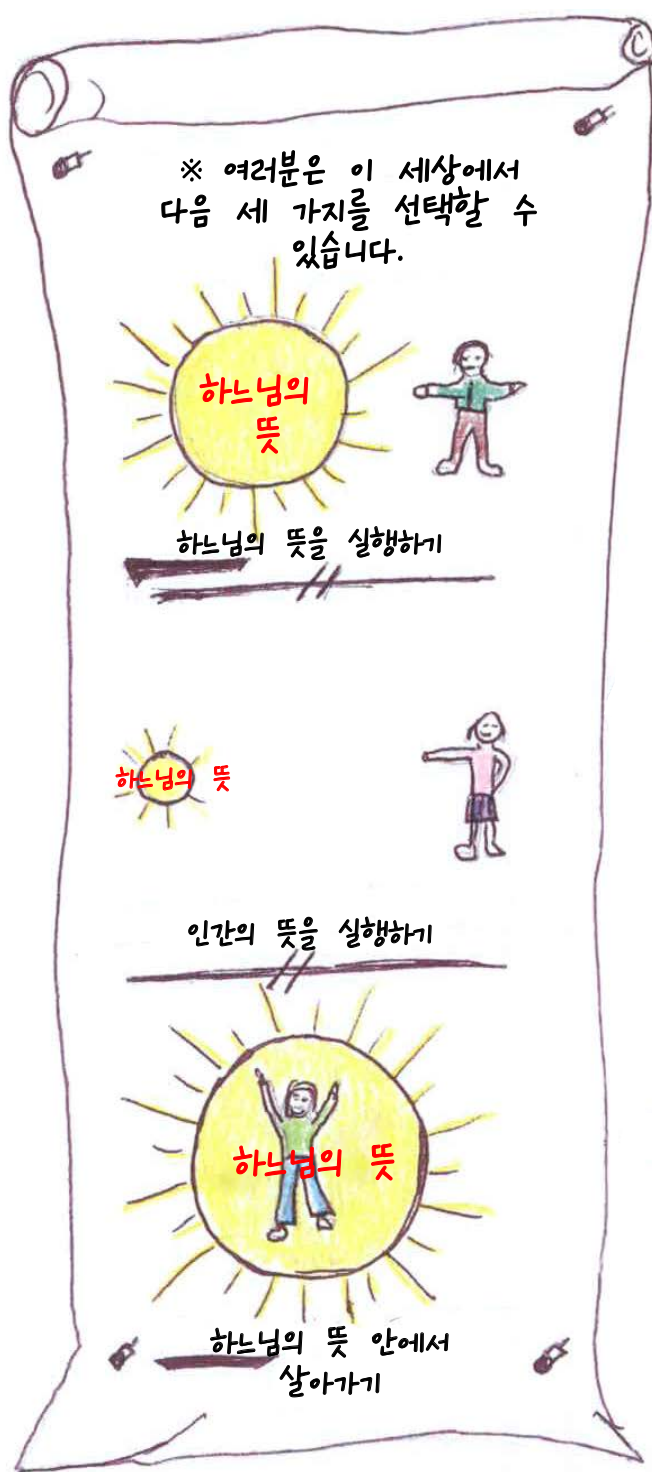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하시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내적인 것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들이 당신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내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워 익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들은 저 선물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선물이라면, 받아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큰 선물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면,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선에 마음을 연다면**, 그 선물이 널리 알려지며 전파되어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루이사가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기 전,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
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거나 그들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을 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입니다. 중요한 일은 이 세 가지
선택의 차이점을 알아 두는 것입니다.



첫째 그림의 소년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
하려고 힘쓰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선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도 하느님의 뜻은 소년 안에 계십니다. 하
느님의 뜻은 안 계신 데가 없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소년이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그 자신의 **인간적인 뜻**입니
다. 그 자신의 뜻의 활동은, 하느님의 뜻
이 무엇인지 정하여 그것을 수행하려고 힘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큰 어려움을 겪으며 불완전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뜻은 원래
하느님의 뜻과 따로 떨어져 활동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양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
시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또 안다고 여겨질 때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흔히 **투
쟁을 거듭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의 그런 활동은 하느님께 별로 큰 영광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뜻을 실행하기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시기에 이 소녀 안에도 계시지만, 소녀는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소녀의 인간적인 뜻이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이 소녀의 활동에 의해서 모욕을 받으십니다.

물론, 어떤 이는 어떤 시기에 이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루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힘쓰고, 이튿날은 관심이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서 따로 떨어져 활동하는 인간의 뜻은 약하고, 변덕스럽고, 항구성이 없고, 무질서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 곧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로 넘어갑시다.



이 소녀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소녀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도 소녀의 인간적인 뜻은 남아 있지만, 이 뜻의 유일한 활동은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예."하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과 투쟁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평화가 넘쳐흐릅니다.

하느님께서도 완전하고 한없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활동이 저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것이 그분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영광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참으로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와서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기를,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낙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분께서 받아 마땅한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본디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 **오로지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간절히 청하십시오!**



**하느님, 제가
당신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청하오니, 부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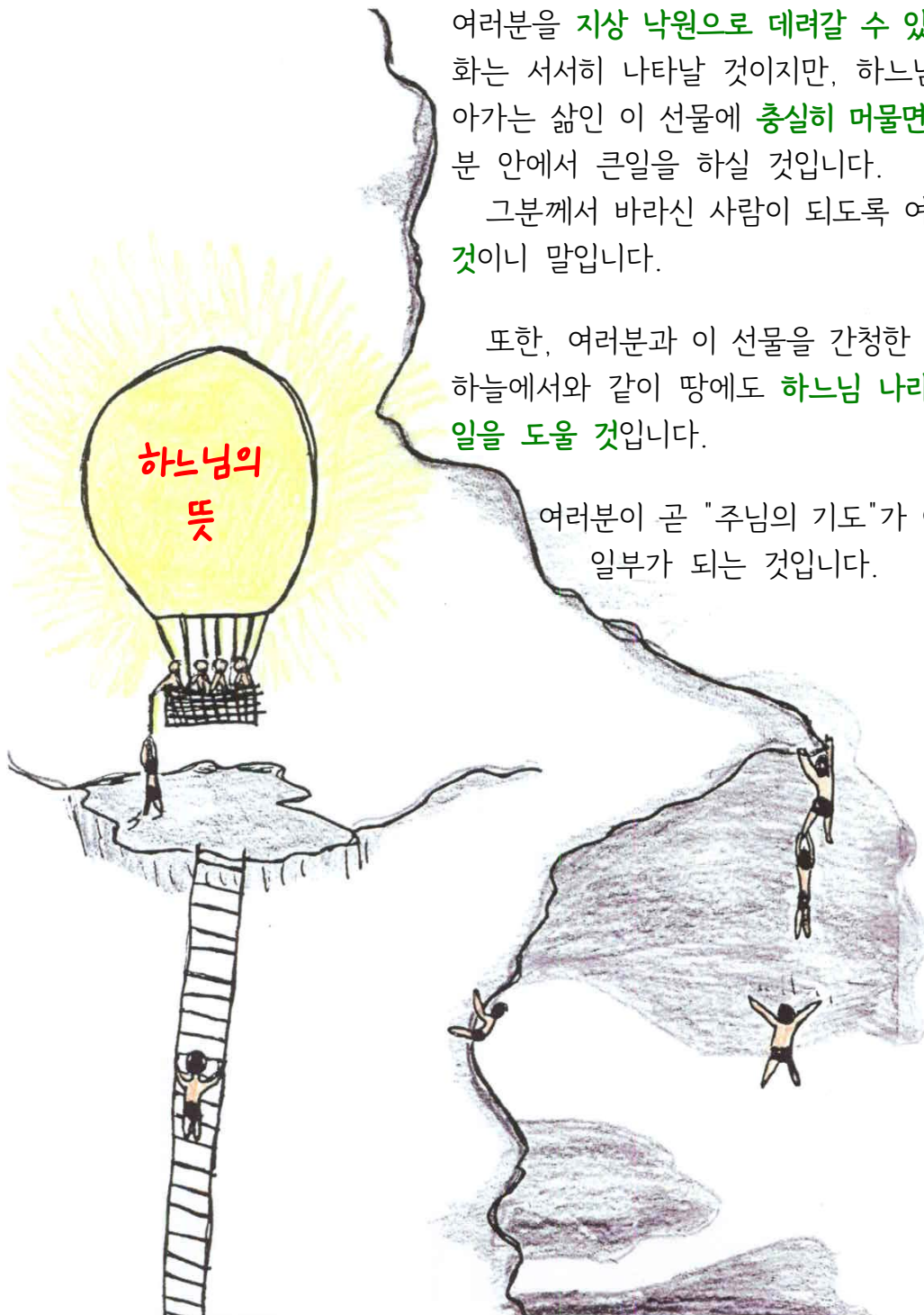
이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바치게 될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 더는 자신의 뜻을 쓰지 않고 그분의 뜻을 쓰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걸었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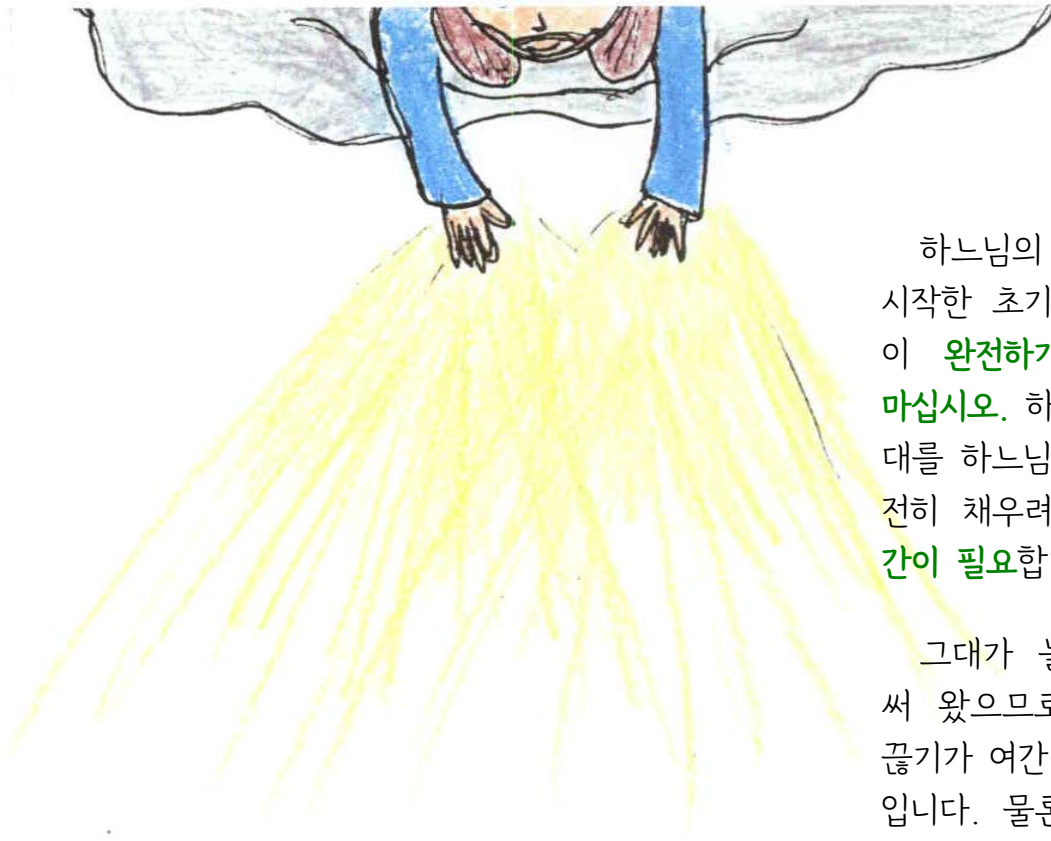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대단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지상 낙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모험**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이 선물에 **충실히 머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큰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라신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니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이 선물을 간청한 다른 사람들 역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하느님 나라가 오시도록 하는 일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자기 자신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그대를 하느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채우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가 늘 자신의 뜻을 써 왔으므로 한순간에 뚝 끊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는 그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선물 안에서 **천천히 성장**하기를 바라시니, 그것은 우리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특히 **초기 단계**에, 거듭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하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중대한 잘못이면 **고해**하러 가십시오.

그런 다음 저 선물을 주십시오 다시 청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거듭 주시고 또 거듭거듭 주실 것입니다. 그저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속 청하십시오.**

한순간도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행하느라고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그대에 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더디지만 확실하게 하느님께서 그대를 **정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고 있기에, 그분께서 그대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습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대를 **그분 속성들로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례로 '교만을 제거하는 10단계 교육'을 그 프로그램대로 시작하는 대신, 그저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 일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자신이 갈수록 **죄를 덜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덕**으로 데려가시는 중이니깐요.

그렇게 **정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일도 하시리니, 그대를 천국에 들어갈 만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직도 그대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천상적인 사물에 대해 설명하시며, **세상과 사탄**이 그대에게 하는 거짓말들을 치워 버리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정면으로 직시합시다. 천상에서는 그 누구도 돈이나 재물이 행복을 얻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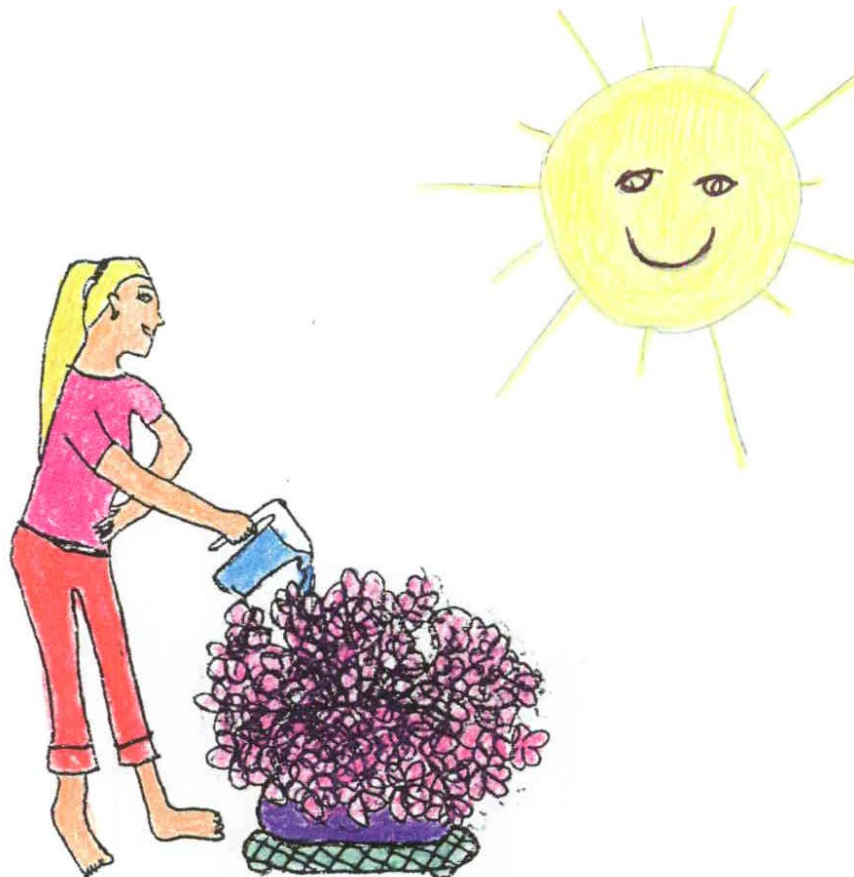
그대는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 자기 자신의 뜻 안으로 물러가는 때를 제외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대가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더라도 **'지상 낙원' 속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한 번에 조금씩,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대가 진실로 저 선물을 원한다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서 꼭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느님의 생명이 그대 안에서 자라나심에 따라, 그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적인 일을 체험할지도 모릅니다. 루이사는 생애의 끝 무렵 자기 고해 사제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 고해 사제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또 어쩌면 공중의 새들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의 어깨 위에 앉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찾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는 나날의 행위가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이제 하느님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써서 하는 행위들이기에, **예수님께서 몸소 하시는 것**입니다.





루이사는 단순하고 작은 자신의 행위가 거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행위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비록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들어 내신 하느님께서서는 또한 아주 작은 씨앗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대의 하루는 외관상 아주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경우, **하느님의 뜻이 그대가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을 그대 안에서 하시도록, 하루에도 여러 번 부르며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뜻이 그대의 모든 행위에** - 세수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등 모든 행위에 -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점, 그리하여 그대의 그 모든 행위들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선물 안에 **성장하면**,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 뜻을 그런 식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종일토록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뜻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가득 채우시기에, 그대는 **그대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뜻을 알아차릴뿐더러 실감**도 할 것입니다.

루이사는 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그녀의 팔을 들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에서 성 요셉과 예수님을 돌보셨던 복되신 어머니의 단순한 행위들은 모두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대도 이제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 이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 그대의 가정이 나자렛의 작은 집이 될 것이고, 숨을 쉴 때마다 **매번 거룩한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는 **무한한 행위**입니다. 이 땅 위에 그런 행위가 수행되면, 마치 폭발이 일어난 듯 그 **빛이 사방으로** 무한히 발산됩니다. 창조된 만물이 이 폭발 현상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무한하고 거룩한 이 행위들이 지상의 모든 사람 위로 퍼져나가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네 **세상을 한층 더 호의적으로 보실** 것입니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아드님을 메시아로 보내실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시게 한 것은, **마리아께서 한평생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신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땅에도 오시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루이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물을 다시 받게 되었지만, **그 전 성인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선하고 경건하지만 **인간적인 행위들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한할 수 없는 행위 - 타락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창조된 만물 위로 퍼져나갈 수도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인간적인 뜻의 행위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위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하면, 천사들이 그 행위를 아버지의 어좌에 까지 가져갑니다. 아버지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며 이를 모든 피조물 위로 굽이치며 퍼져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의 복된 이들과 천사들은 더 큰 영광을 받고, 연옥 영혼들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위안을 얻고, 모든 조물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거룩하기에 한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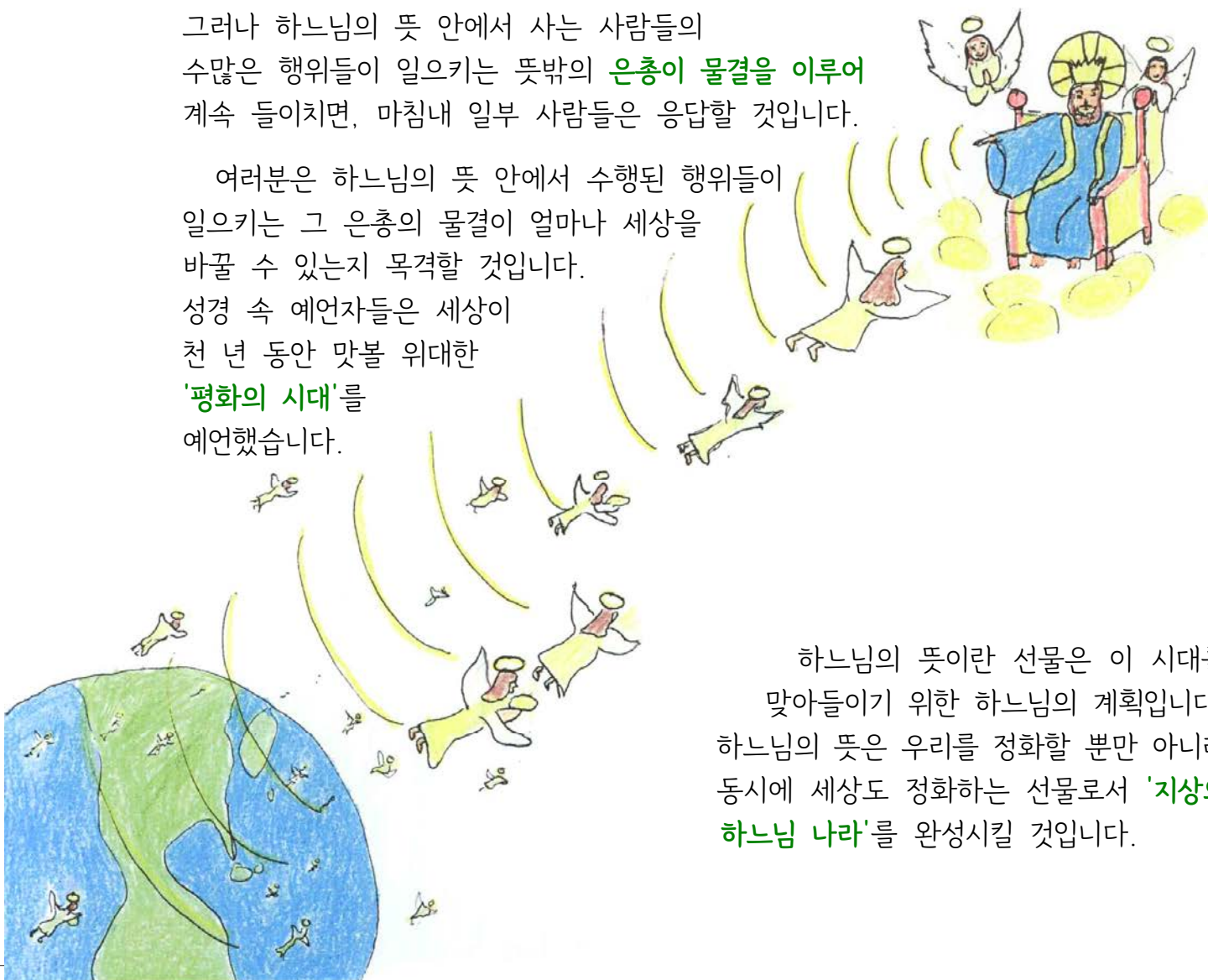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대가 자기의 방 청소를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과 은총의 물결을 보내시게 합니다. 또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성체를 영하면, 모든 영혼 위에 이 성사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는 것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은, 그대가 오늘 성체를 받아 모시러 가면, 더없이 흉악한 죄인들도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청한 적이 없으며,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은총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웬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덜 타락하게 됨을 깨달을 뿐입니다.

하기야 위에서 부여지는 은총에 응답하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행위들이 일으키는 뜻밖의 은총이 물결을 이루어 계속 들이치면, 마침내 일부 사람들은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이 일으키는 그 은총의 물결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목격할 것입니다. 성경 속 예언자들은 세상이 천 년 동안 맛볼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란 선물은 이 시대를 맞아들이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도 정화하는 선물로서 '지상의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 외에 **이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도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대의 모든 행위들처럼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몸소 바치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이루신 모든 업적을 돌아보며 그분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영적)**순례 행위들이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 순례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 개개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각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할 행위들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많은 수의 행위들로서, 당사자가 행할 마음이 전혀 없어도 영원히 존속할 행위들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몸과 혼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가 취하기를 기다리는 행위들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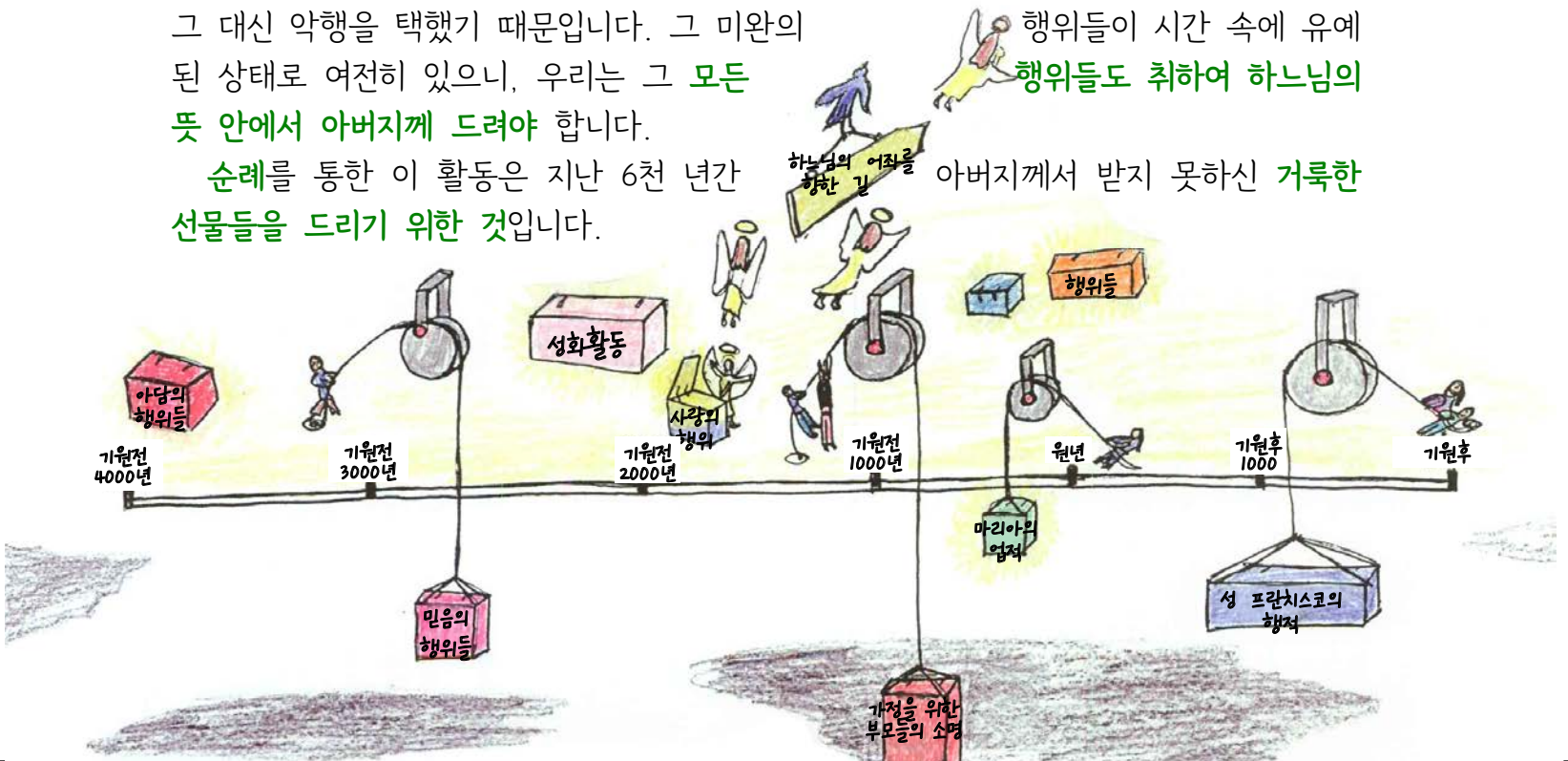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잃어버린 후, 그 창조된 행위들을 자기네 인간적인 뜻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분께 영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순례 여행으로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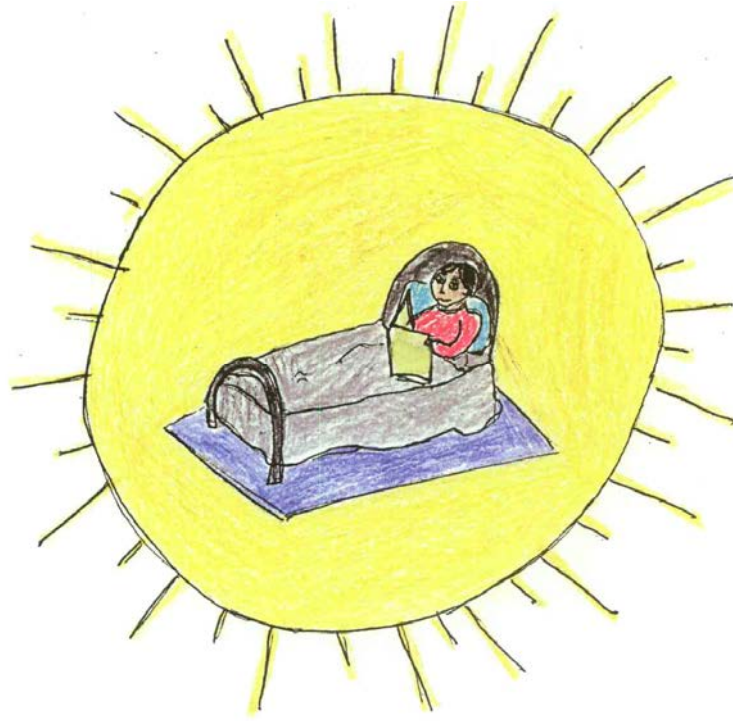
지난 6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행한 행위들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선물로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했으나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에덴동산의 추락 사건이 일어난 후** 예수님과 마리아와 루이사 및 하느님 뜻의 아들딸 (곧 여러분)의 행위들을 제외한 모든 행위가 인간적인 뜻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한데 어떤 성인의 선행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지 않은 채 그냥 둔 행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들이 그 대신 악행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완의 된 상태로 여전히 있으니, 우리는 그 **모든 뜻 안에서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순례를 통한 이 활동은 지난 6천 년간 **선물들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대도 이 **순례를 그대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사 참례** 중이라면, 독서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인의 축일이라면, 그 성인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잔디를 깎는 중**이라면, 일찍이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 있으니, 하느님께서 그대 및 그대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대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순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루이사의 창조 순례**가 포함된 책들 중 한 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루이사는 창조의 일곱 날을 통한 순례에,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구약 성경, 예수님과 마리아의 삶 등을 덧붙입니다. 이를 읽으면, **루이사와 함께 순례**를 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리고 (죄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행위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뜻의 효용으로 **그분들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아버지께 다시 바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를 거둬들여 다시 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기에, 연이어 밀려드는 물결처럼 은총에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의 창조 행위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다시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종류의 순례가 있는데, 이는 모든 조물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 및 그들의 자손들이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사제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짐승, 바위, 물, 별과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목소리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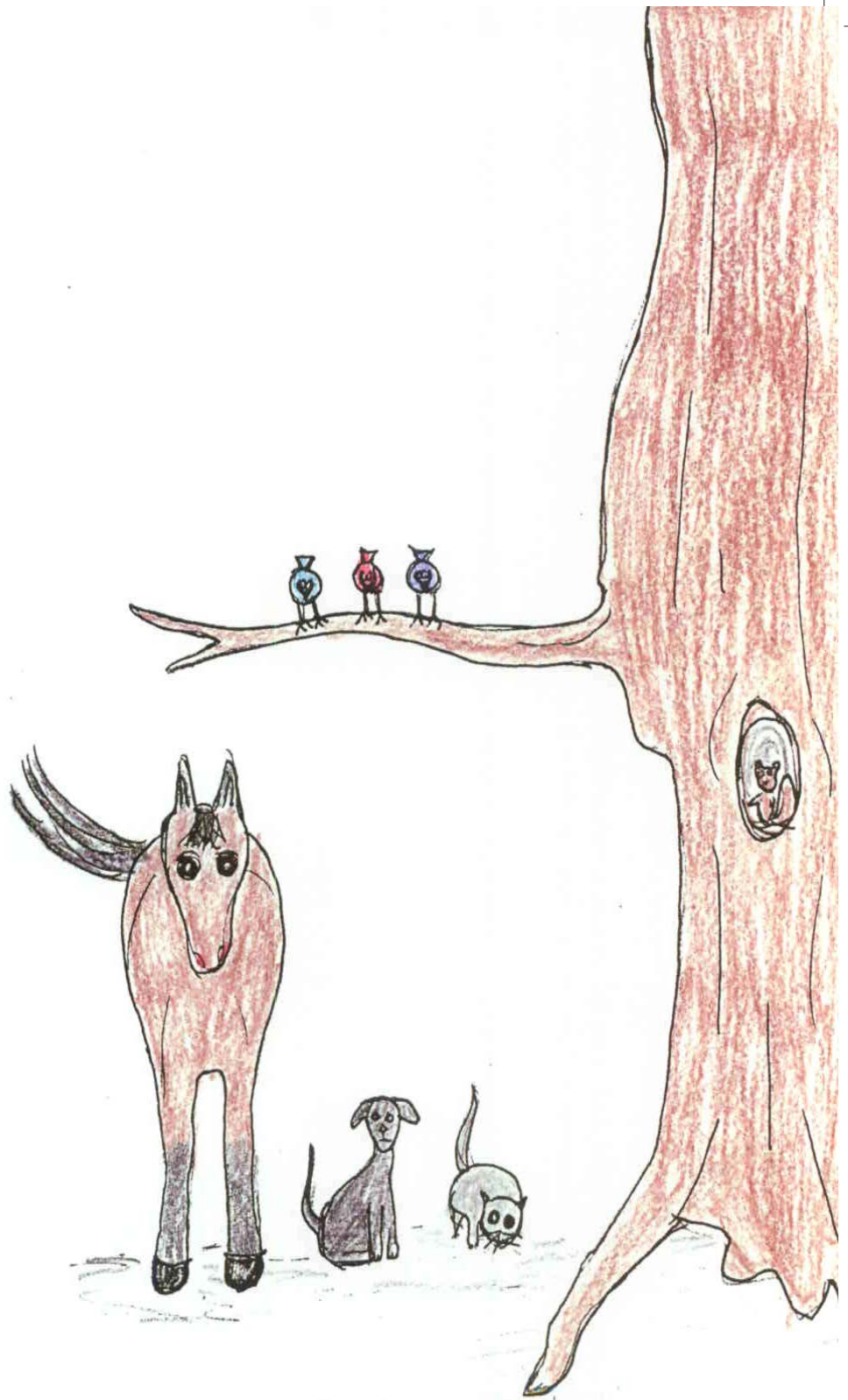
하지만 인간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잃자 더는 사제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위한 사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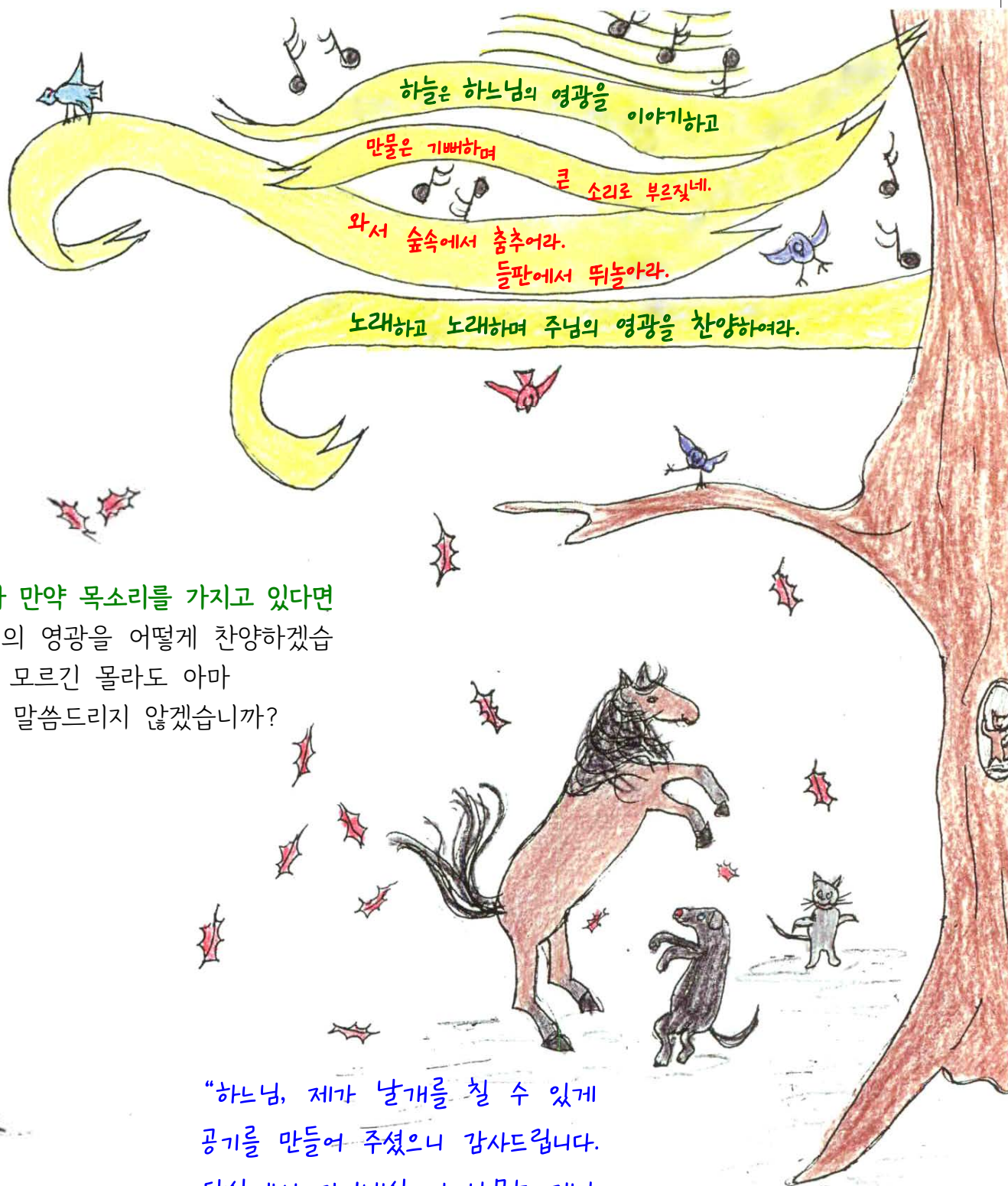
그런데 잃었던 선물을 되찾은 이제, 우리는 다시 사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들을 통하여 새, 물, 나무……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넣고, 그것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사랑과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이외의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하느님의 속성들을 반영하는 그들의 아름다움, 힘, 거대한 크기, 찬란한 광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창조된 만물은 따라서 가장 큰 별에서 가장 작은 씨앗에 이르기까지 과거 6천 년 동안 하느님 뜻의 자녀들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새가 만약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하겠습
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날개를 칠 수 있게
공기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이 나무는 제가
둥지를 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한 흙을 부드럽게 하는 단비를 내리시어,
촉촉하고 통통해진 벌레들을 찾아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위로 높이 날아오르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제로서 이와 같이 그 새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넣어, 새가 마침내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순례 기도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 바로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이웃에 병자가 있음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텔레비전이 미국 군인 몇 명의 전사 소식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대로 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고통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합되기만 하면 구속력(救贖力)을 가지건만, 시간을 내어 그 고통을 아버지께 바치는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가 보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다음번에는 그것으로 이렇게 순례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어떤 고통도 허비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께 바치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한 보속과 연옥 영혼들을 위한 보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 이를테면 누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일 수 있기에 그 병의 치유가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대는 언제나 기도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그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모든 영혼의 선익을 위하여 활용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대단히 비참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한없는 선을 가져온 그대는 언제나 큰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뜻 영성의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이렇게 자문(自問)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 안에 불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 자신의 행위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든 피조물 안에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될 (온 인류의) 행위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남의 고통을 어떻게 하느님께 바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이고, 여러분은 지금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계시기에 여러분도 어디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여러분의 집이나 학교에만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 안에 있습니다. 나무들과 별들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연옥 영혼들 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든 조물 안에 낼 수 있고 모든 행위들을 소유하며 이 행위들을 한없이 불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순례의 지침

모든 것이 창조물의 일부이므로 여러분의 **순례는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인 성격을 띤 순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제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을 **제 사랑과 함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또는 이렇게 특정한 것을 순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에 제 목소리를 넣고** 이 빗방울들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큰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 아버지께서 지난 6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받으셔야 했으나 받지 못하신 모든 것을 -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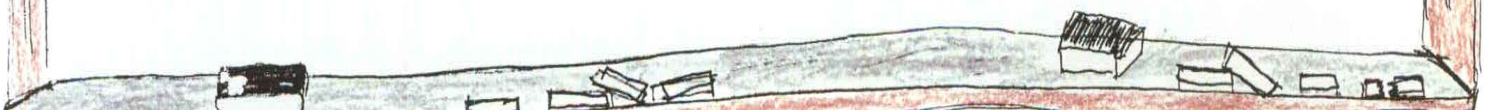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아버지께 바로 가지 않고 멀리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 보이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십시오. 실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피조물 중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거나 그들 안에 자기의 목소리를 넣습니다.** (예컨대, 새들, 꽃들, 하느님이 별들을 빚으신 순간,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 성인들의 행위들, 모든 자녀들의 목소리들...)
2. 그들 속에 그대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넣으십시오.
3. 이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 바칩니다.
4.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바칩니다.
5. '**나라**가 오시도록' 청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 뜻의 안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6천 년 동안 먼 데로 빙 둘러가는 길 위에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길로 가는 중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은 '나라'가 오시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단,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란 **모든 이가 마땅히 바쳐야 할 영광**을 뜻합니다.)

그대의 기도를 '진짜' 순례로 만들려면 위의 말을 전부 써야 하겠지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 중 **상당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실행 중인 강력한 활동, 곧 (순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기 자신의 순례를 개발**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의 **단순한 순례**를 해 보기로 합시다. 야구 시즌 마지막 경기 중
그대가 1루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 1번 타자가 타석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대가 하느님의 어좌 쪽으로** 야구 선수들(과 그들의 활약들을 모은) 거대한 더미를 밀고 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상의 더미**에 하키, 미식 축구, 축구 및 농구 선수들의 모든 활약도 던져 넣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결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는 타자가 첫 스윙을 하기 전에 이미 순례를 한 번 행한 셈이 됩니다.

그대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입니다.)

- (1)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모든 활동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 (2) 그 위에 그대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찍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 (3)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대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좌 쪽으로 그 더미를 밀고 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 (4)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법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 (5) **'나라'가 오시도록** 청했습니다.
(그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 더미를 밀고 가는 것은 단지 재미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영적) 행위가 곧 예수님과 함께 도움을 주어, **'나라'를 맞아들이게 하려는 하느님 뜻의 행위**인 것입니다.)

1루에서는 순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타자가 다음 타자와 교체되는 동안, 또 상대방에서는 새로운 투수를 준비시키는 동안, **그대와 예수님은 하느님의 여좌 쪽을 향하여 나뭇더미를 밀고** 갑니다. 이웃집 개가 동물 더미도 밀고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가 웅웅거리면서 그대에게 **거대한 곤충 더미를 만들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타자가 몸에 던져진 공(hit by the pitch)을 맞았습니다. 그대는 그의 고통과 다른 이들의 부상과 병에서 오는 **고통의 거대한 더미를 아버지께 바쳐** 올립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아웃이 된 후 더그아웃(dugout: 야구장의 선수 대기소) 쪽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예수님께서서는 청소년 시절에 어떤 놀이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행하신 모든 것을 쌓아 거대한 더미를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여좌 쪽으로 그것을 밀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와 같이 1루에서만도 여러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야구 경기 도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디션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 성장함에 따라, **성령께서** 그대 자신의 **순례들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로 가득한 그대의 하루에 이 순례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순례가 참으로 제2의 천성, (곧 버릇같이) 되면,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듯, 그대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이 길**을 환히 밝히며 안전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되도록 많이 읽고 많이 알아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공유하시는 오직 하나의 뜻입니다. 성삼위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뜻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 갈수록 하느님의 신성에 그만큼 더 깊이 참여합니다. 그러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톨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도) 운동과 신심들 및 수도회와 제(諸)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사제운동'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점차 하느님 가까이로 데려가는 운동입니다.

'성령쇄신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현존과 천상 분위기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들은 다 하느님께로 한 단계씩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사닥다리의 가로대 같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은 사닥다리 맨 꼭대기 위에 있는, 더 높이 오를 곳이 없는 다락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대의 인간적인 뜻을 하느님 자신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곳이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이 윗방을 탐색하는 일뿐인데, 작은 불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작은 빛이어서 구석구석 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 더 많이 알아 갈수록 더 크고 더 밝은 빛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대도 기쁠 것입니다.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힘써 관련 서적을 읽고 순례도 자주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루이사와 나누신 것처럼 그대와의 하느님 뜻의 신비를 나누실 것입니다.

루이사의 책들이 나오기 전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 배우려면, 누구든지 연옥이나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대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 뜻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 참 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천상의 가장 큰 성인들 안에 들어갑니다.

에덴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름답고 신기한 피조물에 둘러싸여 있었고,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조물들에게서 발산되는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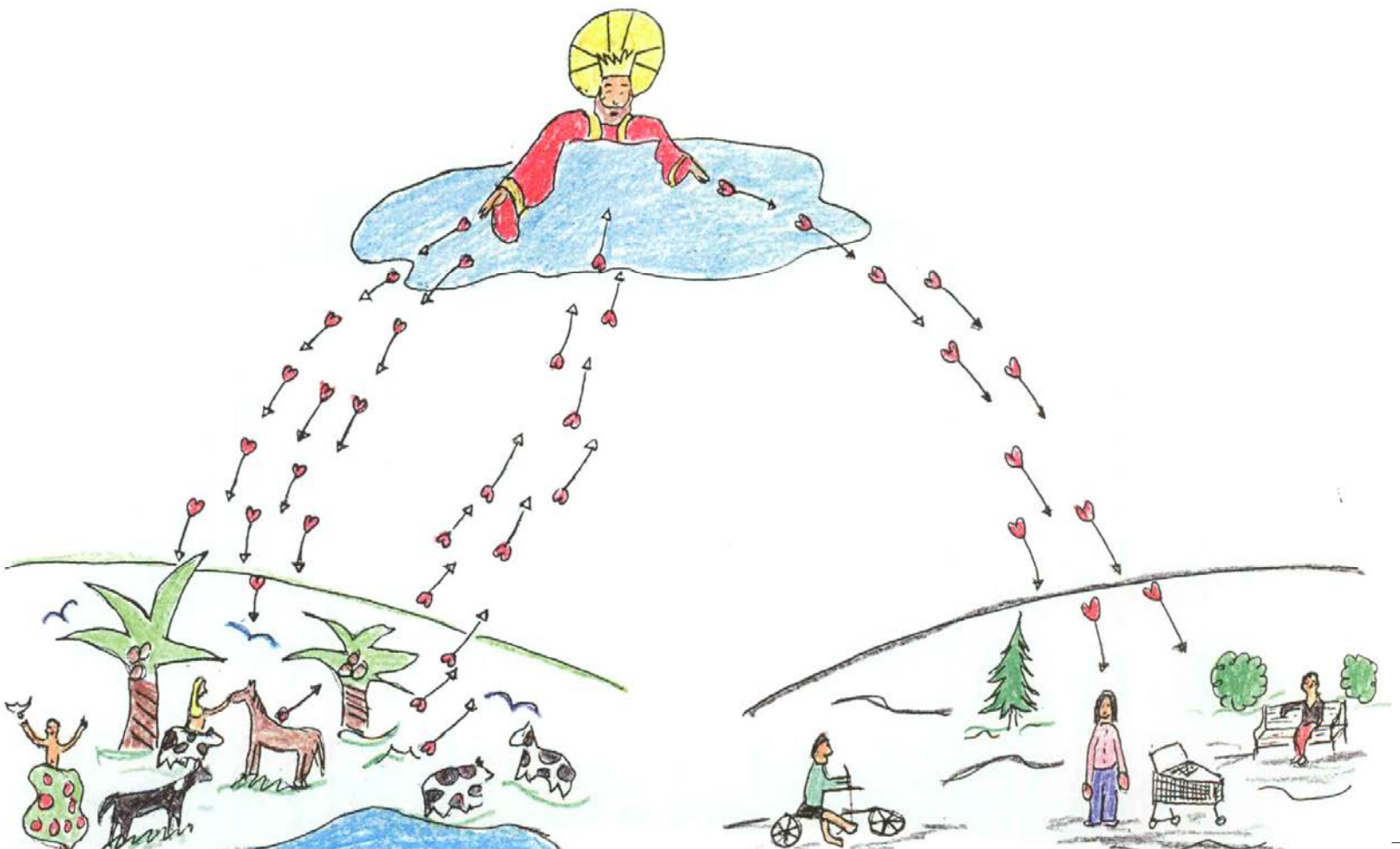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조물들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껴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의 효용으로 **그분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봅시다. 새 한 마리가 창밖에서 지저귄 때, 한 줄기 미풍에 머리카락이 날릴 때, 따사로운 햇볕이 얼굴을 어루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생각할까요?** - 아마도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자신의 뜻과 죄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어찌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하느님께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지난 6천 년 동안 그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셨고,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와 순례들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사랑의 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순례들의 정체는 실로 이것이니,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하여 에덴동산에서와 같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 **큰 평화**가 그대 주위를 둘러쌀 것입니다. 이는 보통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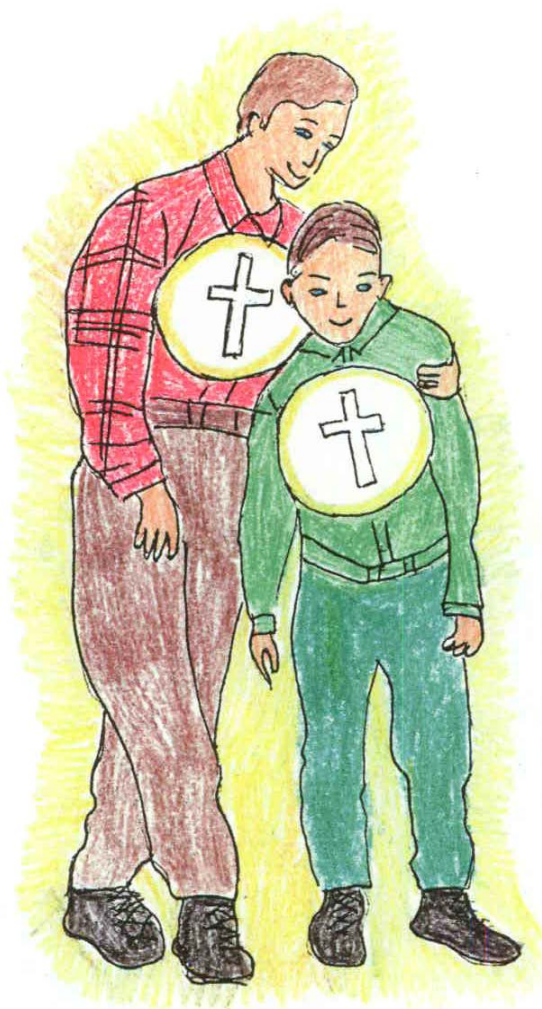
온갖 광적인 행태들이 주변에 널려 있더라도 이 평화를 흠어 없애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괴로운 정화를 겪으며 하느님의 정의에 보상을 바치는 때라고 하더라도, 그대에게는 **하느님 뜻의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사탄과 그자의 비루한 속임수들도 그대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놀라움에 싸이겠지요?

그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면** (진실로 놀랍게도) **하늘을 땅으로** 가져옵니다.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 마리아와 천상의 복된 이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점은 곧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와 순례로 하느님 나라를 불러들이는 일에 협력**하는 것인데, 이는 천상의 복된 이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대 안에 계시면서 그대의 손발과 목소리를 쓰십니다. 그대 안에서 **예수님과 그대가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대가 그분과 같은 뜻을, 곧 그분의 뜻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가 **살아 있는 성체**입니다.

감실 안에 계신 성체와 꼭 같은 성체 - 그러나 손발과 팔과 목소리를 가진 살아 있는 성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손발과 팔과 목소리를 쓰실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책 마지막 쪽에 '**하느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 (p.163)**'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살아 있는 성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대에게 상기시키는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에 오직 "예." 또는 "피앗."으로 응답하십시오. "피앗."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피앗." 또는 "예."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피앗."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언제나 "예."로 응답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죄악이 만연한 우리의 세상에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삶을 처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와 세속적인 것을 가져가**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대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딱히 모르더라도 오직 그분께 의지하며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온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이 선물을 계속 보존하면, 그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누구나 대단히 행복**하니까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들과 순례 여행들이 행하는 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 뜻 안의 행위를 하나 한 뒤, 그것으로 인한 은총의 물결 하나가 세상을 어루만지며 휩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멋지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뜻의 사명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루이사를 일깨우시며 "주의를 기울여라." 하셨습니다. **각 행위와 각 순례는 저마다 다 중요**합니다. 또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그것들에 대해 생각만 해도 피로한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루이사도 초기에는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들과 순례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주셨으니, 조물들 사이를 "날아다니느라고" 지치면, **"내 마음에 와서 쉬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말씀을 주시며 원기를 북돋우어 주실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분께서 루이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도 하던 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뜻 안을 더 신속하고 더 광범위하게 날아다닐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나라'가 오시기를!



본문 내용의 출처와 참조할 곳을 적은 미주(尾註)



이 책의 내용은 루이사의 저술과 하느님 뜻 영성 피정 중의 녹취 테이프와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모아 편집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 책 각 페이지 내용의 출처 내지 참조할 곳을 밝힌 것입니다. 루이사의 『천상의 책』 “몇 권 (몇 년 몇 월 며칠)”로 표기되어 있거니와, 완전히 다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뜻의 각 진리를 루이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사용하신 여러 보거나 비유 중 일부에만 접근한 셈이니 말입니다.

밑줄 친 공란은 루이사의 『천상의 책』 중 새로 찾아낸 ‘참조’를 보태 넣을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낸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내 주십시오. 다음번 출판 때에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5쪽: 『천상의 책』 15권 (1922년 11월 28일; 1922년 12월 8일) 16권 (1923년 12월 8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4년 12월 8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8월 15일; 1925년 11월 12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9월 8일)_____

6쪽: 9권 (1913년 9월 21일) 12권 (1919년 3월 22일) 16권 (1924년 2월 24일) 17권 (1924년 10월 6일) 18권 (1926년 1월 28일) 20권 (1929년 10월 29일)_____

7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8일) 18권 (1925년 11월 12일)_____

8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7권 (1924년 11월 27일) 18권 (1926년 1월 28일; 1926년 2월 11일)_____

9쪽: 16권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2일; 1925년 8월 15일; 1926년 1월 28일)_____

10쪽: 16권 (1923년 8월 9일; 1923년 11월 20일) 18권 (1926년 1월 28일) 31권 (1933년 3월 5일)_____

11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4권 (1922년 11월 11일) 16권 (1923년 8월 13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22일; 1924년 4월 23일) 17권 (1925년 2월 22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2월 20일)_____

12쪽: 12권 (1921년 2월 8일) 16권 (1923년 11월 15일) 17권 (1925년 2월 22일) 18권 (1925년 12월 20일) 19권 (1926년 9월 13일) 20권 (1928년 2월 5일) 35권 (1937년 12월 21일)_____

13쪽: 3권 (1900년 5월 21일) 12권 (1921년 3월 2일) 16권 (1923년 8월 5일) 17권 (1924년 9월 18일) 18권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9일; 1925년 12월 20일; 1925년 12월 25일) 20권 (1926년 10월 15일; 1928년 2월 5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3년 2월 24일)_____

14쪽: 11권 (1914년 3월 8일) 12권 (1921년 3월 8일; 1921년 3월 17일) 15권 (1923년 7월 14일) 16권 (1923년 11월 10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2월 24일) 17권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12일; 1926년 2월 11일) 20권 (1928년 2월 5일)_____

15-16쪽: 12권 (1918년 12월 18일; 1919년 3월 20일; 1919년 5월 8일) 16권 (1923년 8월 5일; 1923년 8월 20일; 1923년 11월 24일; 1923년 12월 6일; 1923년 12월 26일; 1924년 1월 4일;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3월 22일; 1924년 5월 9일; 1924년 5월 13일) 17권 (1924년 7월 1일; 1924년 9월 17일; 1924년 12월 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4월 26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8월 15일;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2월 25일) 19권 (1926년 3월 19일; 1926년 6월 15일; 1926년 7월 1일; 1926년 8월 27일) 31권 (1932년 10월 9일) 32권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16일)_____

17-18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6권 (1923년 10월 4일; 1924년 1월 14일; 1924년 2월 2일) 17권 (1924년 9월 11일; 1924년 9월 18일; 1924년 10월 6일; 1925년 2월 8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1925년 12월 25일; 1926년 1월 28일; 1926년 2월 11일) 31권 (1932년 11월 27일) 32권 (1933년 3월 26일)_____

19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3권 (1922년 2월 4일) 16권 (1923년 12월 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2월 28일) 17권 (1924년 7월 16일; 1924년 9월 18일) 30권 (1932년 4월 30일)_____

20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6권 (1923년 9월 6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28일) 20권 (1928년 2월 5일) 31권 (1932년 12월 21일) 36권 (1938년 5월 6일)____

21쪽: 12권 (1921년 2월 16일) 17권 (1924년 9월 11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32권 (1933년 5월 14일) 36권 (1938년 5월 6일)_____

22쪽: 5권 (1903년 3월 24일) 12권 (1919년 3월 6일; 1921년 3월 12일) 13권 (1921년 9월 14일) 16권 (1923년 7월 30일; 1923년 12월 26일; 1924년 5월 13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5월 13일) 17권 (1924년 9월 1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1925년 4월 23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9월 25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2일)_____

23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6권 (1923년 7월 27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1월 8일; 1923년 12월 26일) 17권 (1924년 8월 14일; 1926년 11월 1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6년 11월 16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11월 20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4월 29일; 1933년 5월 14일; 1933년 5월 25일)_____

24쪽: 2권 (1899년 9월 5일) 4권 (1901년 9월 5일) 16권 (1924년 2월 28일) 32권

(1933년 5월 25일)_____

25쪽: 13권 (1922년 2월 4일) 16권 (1923년 8월 20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5월 19일) 17권 (1924년 9월 17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3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10월 21일) 32권 (1933년 5월 25일)_____

26쪽: 3권 (1900년 5월 21일) 12권 (1917년 12월 6일; 1919년 2월 13일; 1921년 4월 23일) 13권 (1921년 8월 13일; 1921년 8월 25일) 16권 (1923년 8월 5일; 1923년 8월 20일; 1923년 11월 15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4년 9월 17일; 1924년 10월 23일) 18권 (1925년 8월 9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8년 2월 5일) 31권 (1932년 11월 20일; 1932년 12월 6일)

27쪽: 3권 (1899년 12월 21일; 1900년 5월 21일) 11권 (1916년 10월 13일) 12권 (1919년 2월 13일; 1921년 3월 2일; 1921년 4월 23일; 1921년 4월 26일) 13권 (1921년 8월 13일) 16권 (1924년 2월 8일; 1924년 5월 9일) 17권 (1925년 2월 15일; 1925년 4월 23일) 18권 (1925년 11월 22일) 20권 (1928년 2월 5일)_____

28쪽: 12권 (1919년 1월 29일; 1921년 1월 5일) 14권 (1922년 4월 21일; 1922년 11월 11일) 16권 (1923년 11월 15일; 1923년 12월 2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1월 20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6월 6일) 17권 (1924년 10월 2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3월 8일) 18권 (1925년 11월 9일; 1925년 11월 12일) 31권 (1932년 9월 18일)_____

29쪽: 12권 (1920년 5월 8일) 14권 (1922년 4월 21일) 16권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5년 3월 8일) 18권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2일; 1925년 11월 19일) 31권 (1932년 10월 9일)

30쪽: 12권 (1921년 1월 24일) 13권 (1921년 12월 15일) 16권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2일) 17권 (1925년 1월 4일) 18권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19일)

31쪽: 16권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2일)_____

32쪽: 3권 (1900년 3월 2일) 4권 (1902년 12월 24일) 7권 (1906년 9월 23일; 1906년 10월 2일; 1906년 10월 31일) 14권 (1922년 11월 11일) 32권 (1933년 5월 25일)_____

33쪽: 12권 (1919년 4월 7일) 14권 (1922년 1월 15일) 16권 (1923년 11월 24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1월 20일; 1924년 2월 8일; 1924년 2월 22일; 1924년 2월 24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9일) 17권 (1924년 8월 14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1월 27일) 18권 (1925년 10월 24일; 1925년 11월 25일; 1926년 1월 24일; 1926년 2월 11일) 20권 (1932년 4월 30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2년 9월 25일) 32권 (1933년 5월 25일)_____

34쪽: 8권 (1908년 2월 9일; 1908년 12월 27일) 12권 (1917년 3월 28일; 1918년 12월 27일) 13권 (1921년 12월 15일) 16권 (1923년 11월 24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3월 2일; 1924년 3월 13일; 1924년 3월 19일) 17권 (1925년 1월 4일; 1925년 8월 2일) 18권 (1925년 10월 1일; 1925년 10월 4일; 1925년 11월 9일;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3년 3월 5일)_____

35쪽: 8권 (1908년 2월 9일; 1908년 12월 27일) 12권 (1917년 3월 28일; 1918년 12월 27일) 13권 (1922년 3월 20일) 17권 (1925년 8월 4일) 18권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_____

36쪽: 8권 (1908년 2월 9일) 13권 (1922년 1월 20일) 16권 (1924년 3월 2일) 17권 (1925년 3월 21일) 18권 (1926년 2월 6일) 31권 (1932년 9월 18일)_____

37쪽: 13권 (1921년 8월 25일) 14권 (1922년 6월 23일) 15권 (1922년 11월 28일;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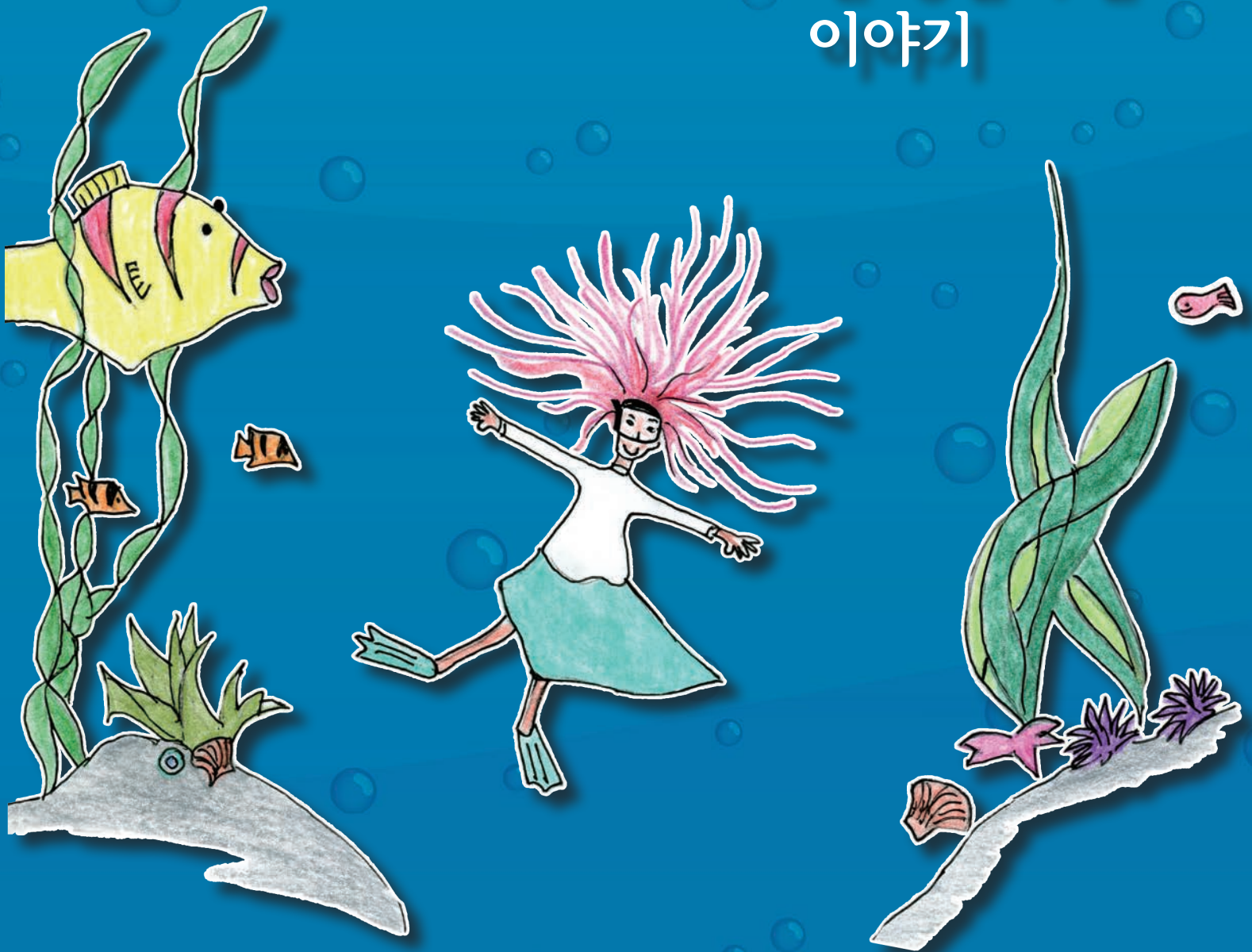
1923년 1월 24일) 16권 (1923년 7월 23일; 1923년 11월 8일; 1924년 2월 2일; 1924년 2월 10일; 1924년 2월 20일; 1924년 2월 28일; 1924년 3월 2일) 17권 (1924년 10월 23일; 1924년 10월 30일; 1924년 9월 11일; 1924년 9월 18일; 1925년 1월 4일; 1925년 2월 8일; 1925년 3월 1일; 1925년 5월 1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1926년 2월 6일) 19권 (1926년 3월 19일; 1926년 6월 15일; 1926년 7월 1일) 20권 (1926년 9월 17일; 1926년 10월 15일; 1926년 11월 16일) 31권 (1932년 7월 24일; 1932년 9월 18일; 1932년 12월 21일; 1932년 11월 20일; 1933년 1월 29일) 32권 (1933년 5월 14일)_____

38쪽: 14권 (1922년 11월 6일) 16권 (1923년 8월 1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2월 29일; 1924년 2월 18일) 17권 (1924년 7월 16일; 1924년 10월 6일; 1924년 10월 11일; 1924년 10월 30일) 18권 (1925년 8월 9일; 1925년 8월 15; 1925년 9월 16일; 1925년 10월 10일; 1925년 11월 19일) 20권 (1926년 10월 29일) 31권 (1932년 9월 18일; 1932년 10월 9일; 1932년 12월 1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16일)_____

39쪽: 2권 (1899년 4월 12일) 6권 (19904년 9월 8일) 8권 (1908년 4월 8일) 9권 (19910년 11월 1일) 12권 (1919년 1월 29일; 1921년 2월 22일) 16권 (1923년 7월 24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9월 6일; 1923년 10월 16일; 1923년 10월 30일; 1923년 11월 5일; 1923년 11월 8일; 1923년 11월 20일; 1924년 1월 24일; 1924년 3월 19일; 1924년 4월 23일; 1924년 5월 13일; 1924년 5월 24일) 17권 (1924년 12월 8일; 1925년 2월 15일; 1925년 3월 15일) 18권 (1926년 1월 30일) 31권 (1932년 9월 25일; 1933년 1월 6일) 32권 (1933년 3월 12일; 1933년 3월 26일; 1933년 4월 2일; 1933년 5월 25일)_____

40쪽: 2권 (1899년 2월 28일) 5권 (1903년 3월 20일; 1903년 6월 30일) 6권 (1904년 3월 20일; 1904년 12월 29일) 12권 (1918년 5월 23일; 1921년 2월 2일) 14권 (1922년 11월 6일) 17권 (1924년 7월 1일; 1924년 10월 30일; 1925년 1월 27일) 18권 (1925년 12월 25일) 36권 (1938년 6월 30일)_____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더 깊이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Ⅱ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더 깊이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지은이: 세븐드롭스

그린이: 메리(15세)

펴낸이: 쉐인(17세)

옮긴이: 박 요한 실비아

헬렌과 다른 여러 산 제물인 영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의 **후편**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하느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끌어당기시려고 주신 권고나 조언이나 지식을 부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루이사의 책은 그 권수가 상당히 많은데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의 보화를 그토록 많은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주신, **소중한 '빛'**인 몇몇 **구절들**을 따로 뽑아 보았습니다.

이 '빛'이 나타내는 것은 한낱 물방울들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도록 귀중한 물방울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진리의 끝없는 바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들이 곧 이 후편에 새로이 등장한 **'빛의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번호순의 주(註)**로 **책 말미**에 붙였는데, 대부분은 루이사의 책을 영어로 번역한 여러 영역판 가운데에서 해당 구절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거나 선택적으로 뽑아 적었습니다. 아직 루이사의 책 전권(全卷)을 다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본문의 구절들을 읽다가 보면, 이 「... 한 방울의 물 이야기」는 각 구절에 내포된 진리에 이제 겨우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 「... 한 방울의 물 이야기」에) 소개된 정보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이 후편에서도 어떤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지은이의 소견이나 해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쪼록 하느님 뜻 영성의 빛에 비추어 읽으시고, 원하는 만큼 많이 구입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 필자 세븐드롭스 적음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면, 목적의식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동참을 허락하시는 계획이 있으니, 이 지상에 그분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대가 완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매 순간이 하느님의 그 계획 달성에 쓰일 것입니다.

한데 그분의 뜻에 완전히 감싸인 상태로 있으려면 많은 희생과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가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완전히 감싸여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직 이렇게 물으실 뿐입니다. -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이 선물은 그것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쉽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수는 없으니, 곧 그분 신성의 한 뭉치를 -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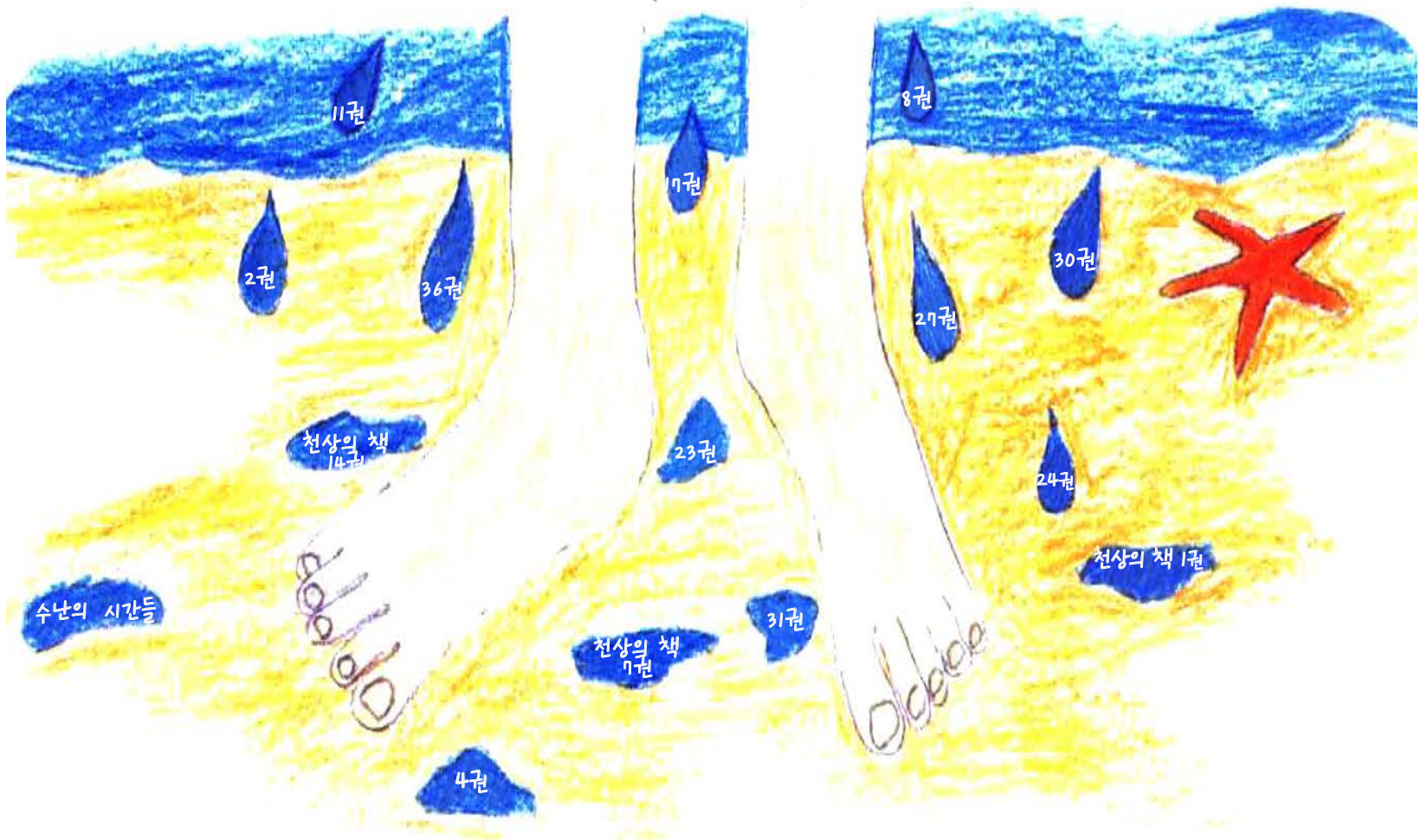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것도 알 수는 없고, 영원 속에서 점차 알아 갈 따름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루이사 피카레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에 대하여 총 36권**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든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으면, 그럴수록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루이사는 자신의 그 책을, 사람이 바다에서 걸어 나올 때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방울들을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대한 진리들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성장하려면 이 선물에 대하여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느님 뜻의) 행위와 순례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위들과 순례들이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활동이니, 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느님 뜻의 바다에 발끝만 담그고 있는 격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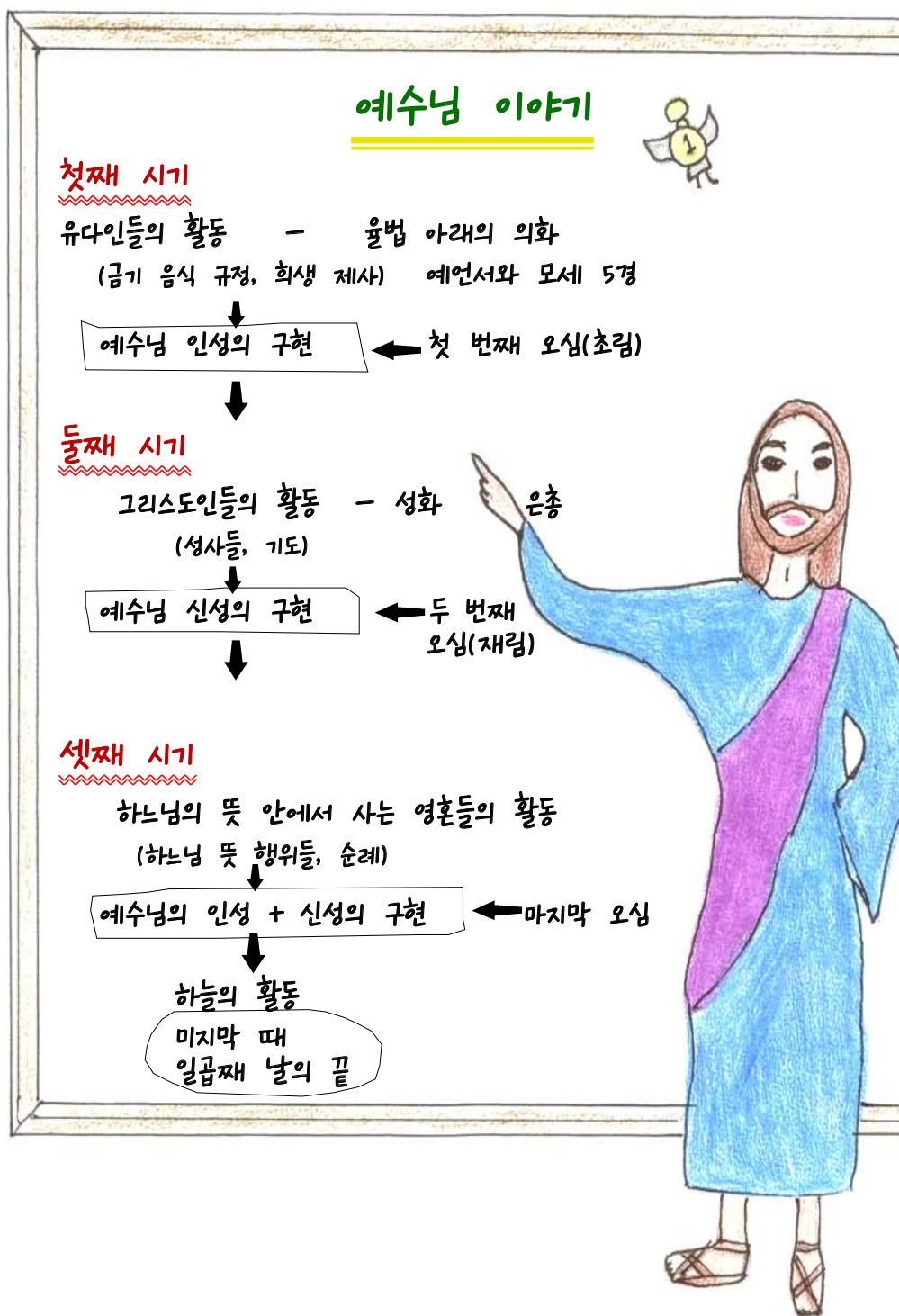
그대가 그 활동에 충실하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를 깨끗하게 만드시어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 행위들과 순례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박해받고 있습니까?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

십시오. 병들어 심히 앓고 있습니까?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마음속에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온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까?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드디어 예의 그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정화 작업은 그대 안에서 세속적이고 악마적이고 육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니, 때때로 그대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대의 그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하느님 뜻의) 행위
와 순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순례는 (하느님 뜻 안에서 행하는) 그대의 전(全) 활동 중 한 부분으로서, 그대가 예수님을 부르며 그대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청할 때, 그 "하느님 뜻에 바치는 간청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특별한 기도, 곧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2천여 년 전 지상 생활을 하실 때에 바치신 기도의 연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가 하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 동안 하신 행위들의 연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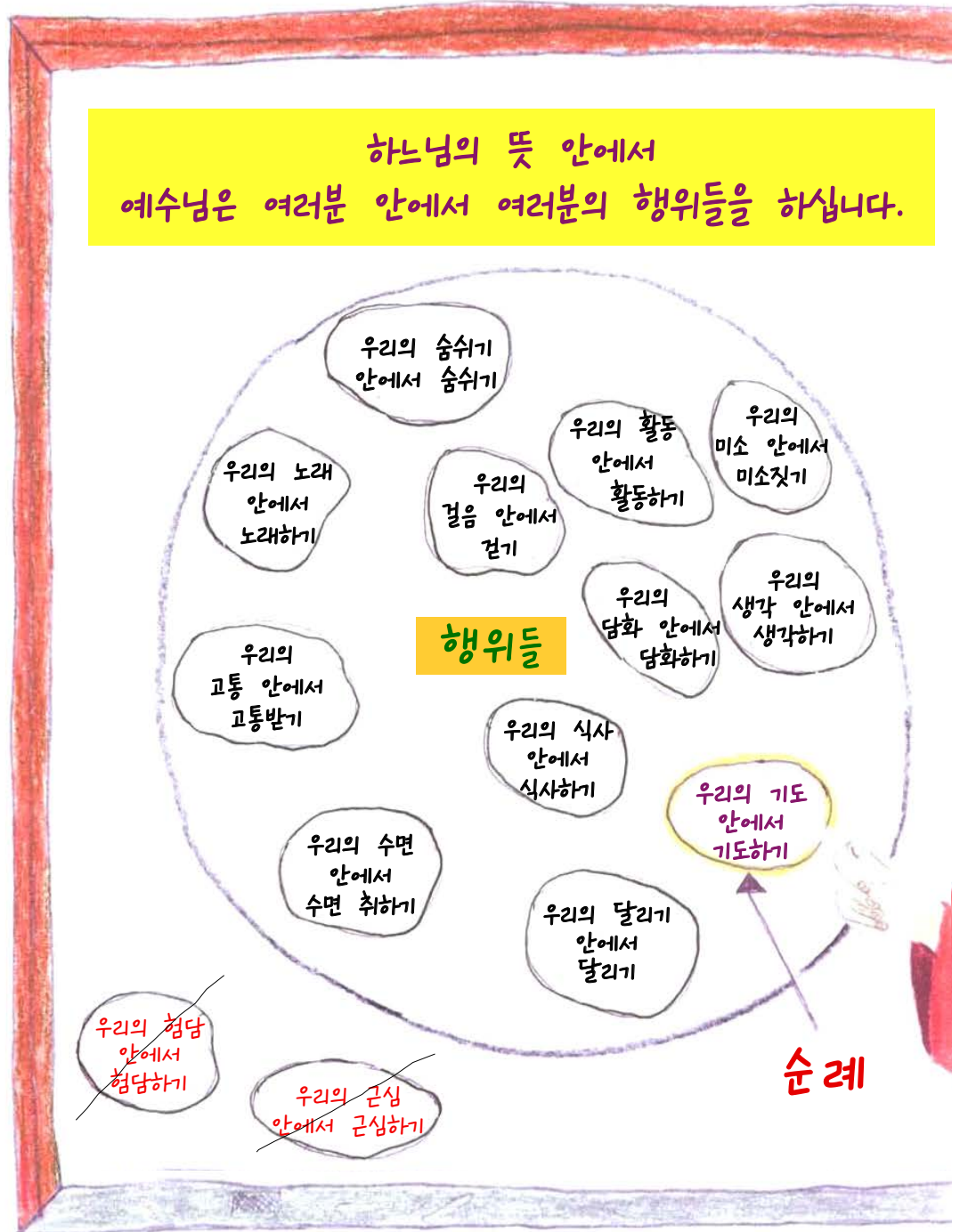
하느님 뜻이라는 선물의 본질은 그대의 인간적인 뜻을 매 순간



하느님의 뜻과 하나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지상 생활로 영혼들 안에서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을 계속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믿기 힘든 사실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질서와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안에, 그 질서와 본연의 위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질서와 위치와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만이 그대がい (하느님 뜻) 선물 안에 성장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디에서 그것이 끝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와 본연의 위치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와는 거의 답살고 지내는 것이 현대 세계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일터를 오가는 우리를 감시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때때로 천사나 은총을 내려보내고, 또는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는 존재 - 이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하느님관(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하느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단지 우리를 굽어보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시며 즐기셨습니다.



그들이 산책을 하면 그들 안에서 산책하며 즐기셨고, 그들이 짐승들과 놀거나 강물 속으로 뛰어들거나 꽃송이들을 따거나 하면 하느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뒤에 앉아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뜻을 선물로 받았고, 하느님의 본질인 그 거룩하신 뜻을 써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처음으로 쓰자마자 하느님 뜻 선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도 그들 안의 낙원을 더 이상 즐기실 수 없게 되셨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라는 동산에서 (겟세마니에서처럼) 고뇌를 겪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네 영혼 안에서 그러한 고뇌를 6천 년 동안 겪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뜻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심으로써, 기꺼이 이 선물을 받아들여 그 안에 성장하는 영혼들 안에서 다시금 저 낙원을 가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천상의 성인들은 모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그들 각자 안에서 **갓가지 색다른 낙원**을 즐기십니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와 성 바오로 안에서는 말을 타시는 한편, 아브라함과 성 비오 신부 안에서는 산책을 하시고, 성녀 아녜스와 성 에디트 슈타인 안에서는 노래를 부르시고, 성 요한 바오로 2세와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 안에서는 (폴란드식 만두인) 피에로기를 즐기시고, 아인슈타인과 엘리야 안에서는 어떤 별의 폭발을 지켜보시고, 복되신 어머니와 마더 데레사 성녀 안에서는 초콜릿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이 일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성 프란치스코와 성 바오로와 아브라함과 여타 **모든 이들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느님의 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게 하고, 행성들이 그들의 위치를 지키게 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도 활동합니다. - **성인들의 통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질서이며 (우리 본연의) 위치입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느님 사랑의 일부**입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발하시는 성령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넘쳐흐르는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징이나 비유로서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교회가 쓰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인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우리와도 그 일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느님 뜻 선물을 맡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의) 행위들과 (영적) 순례들**을 계속하는 것이니,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께서 그대를 질서와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에 필요한 일을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지상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천국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활동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으로 하여금 그대의 영혼 안에서 하시겠다고 루이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시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뜻 계약서

하기 서명자인 본인은 2000년 0월 0일인 오늘,
하느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과 질서와 위치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1. 하느님의 뜻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 가기.
2. (하느님 뜻의) 행위들을 하기.
3. (영적) 순례들을 하기.

다음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1. 그 사람을 속속들이 정화시켜 주리라.
2. 그를 하느님인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리라.

상기와 하기의 사항들을 이행하기로 약속하면서
서명 날인합니다.

2000년 0월 0일
대한민국 00도 00시

하느님 (인) 사람: 000 (인)



루이사가 쓴 36권의 『천상의 책』은 완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과 함께 순례 여행**을 하는 영혼에게는 실로 **도로(道路)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실용적인 권고**를 루이사에게 주셨는데, 이 권고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아시기에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각 영혼의 여행은 저마다 독특하지만 공통적인 체험도 많기 때문에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저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갖가지 모양과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 수없이 여러 번 루이사와 토론하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십자가들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은 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대의 십자가를 합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엄청난 가치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그대가 예수님의 제물에 합하여 바친 제물을, 아버지께서 마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몸소 하느님께 바친 제물**처럼 보십니다. 하느님 뜻의 능력으로, 제물이 다만 그대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불어나서 모든 영혼들에게서 온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순간, 하던 일을 툇 그치고 무릎을 꿇은 채 십자가와 합쳐진 그대의 고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죄에 대한 보속**으로 아버지께 봉헌한다면, 얼마나 굉장한 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는, (또 더 굉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속(救贖) 사업**을 계획하실 때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고 가실 십자가를 처음 보신 순간에 "오, 사랑스러운 십자가야!" 하시며 끌어안으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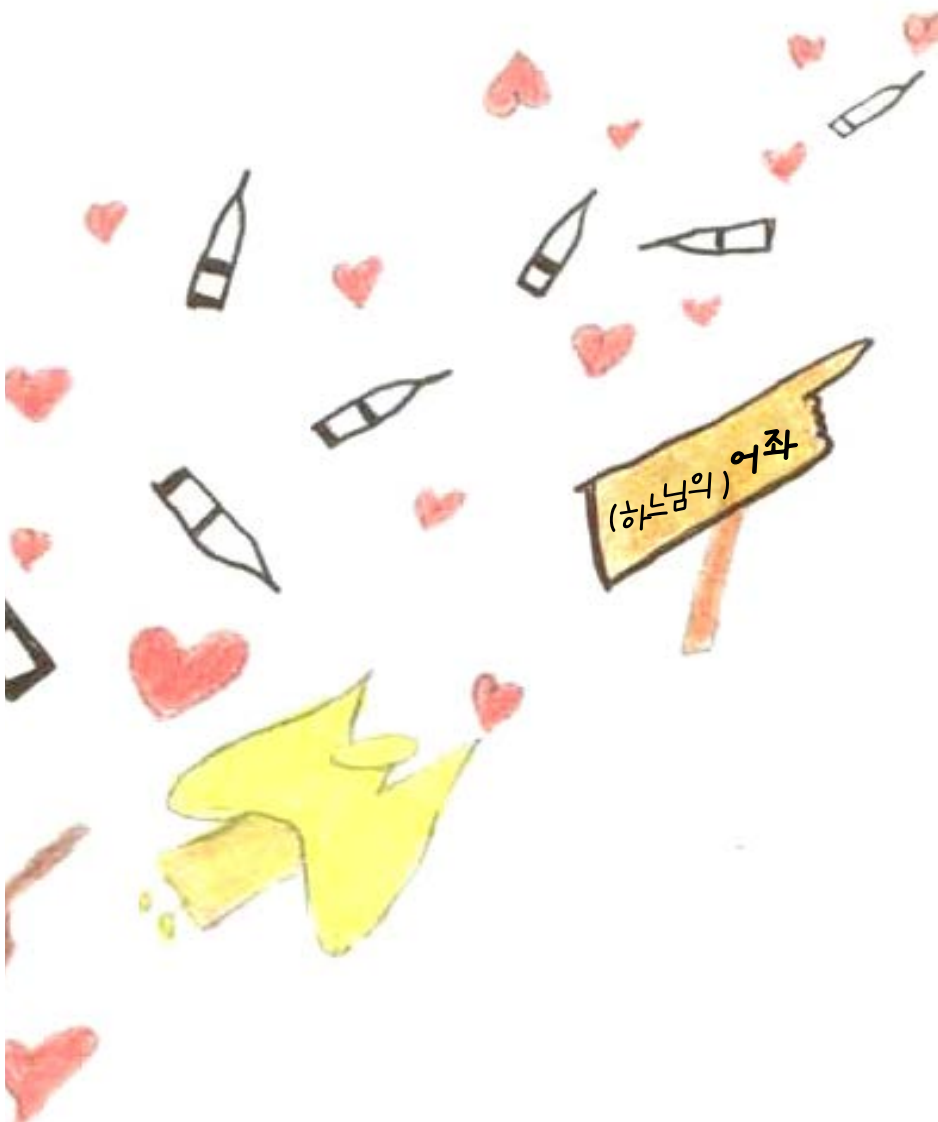
이는 그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써 **영혼들에게 하늘을 열어 주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죄에 대한 보속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바칠 때 나오는 **유익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십자가들 앞에서 불평을 그치고 "**오, 사랑스러운 십자가야!**" 하고 외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기야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순례들을 계속할 경우,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변모의 일환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우리의 인성에 "접목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십자가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루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여러 길들 중 하나라고 하시지 않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신성이 여러분의 인성에 접목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과 질서와 그 위치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길을 따라 그분의 지상 생활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일단 접목이 이루어진 뒤에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순명이야말로 영혼 안에 하느님의 성덕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장상에 대한 순명, 부모와 스승과 교회에 대한 순명이 포함됩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참 성덕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의지 안에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지 말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제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세요." 하고 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 선물의 힘으로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따금 루이사도 '순명'을 두고 갈등을 겪곤 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그래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것을 글로 쓰는 것은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누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네가 죽은 뒤에 내가 연옥에 있는 너의 손에 뜨거운 불펜을 쥐여 준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셨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십니다.**

표징이나 장상이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귀뜸해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대에게 장상이 있다면, 그 장상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대에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장상이 없다면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실천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큰 신뢰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이사도, 자기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침상에 붙박인 채 글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인지 여러 번 되묻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었을 때 어떤 성인이 나타나서 그녀가 그런 상태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달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명백한 표징을 그분에게서 받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 성인의 이 충고는 그대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대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라면**, 마음 편히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명백한 표징을 그대에게 주셨다면, 그대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음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대가 **하느님의 뜻 선물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실행**하도록, 순명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느님의 성덕들이 그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설명해 주셨듯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비우시리니, 모든 것(이신 하느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정화**시키실 때면, 그대의 몸에 배어든 **악습**이나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러모로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늑장 부리지 말고 (곧바로 대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꾸물거리다 보면 한바탕 싸움판을 벌이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만류하자, 예수님은 핵 돌아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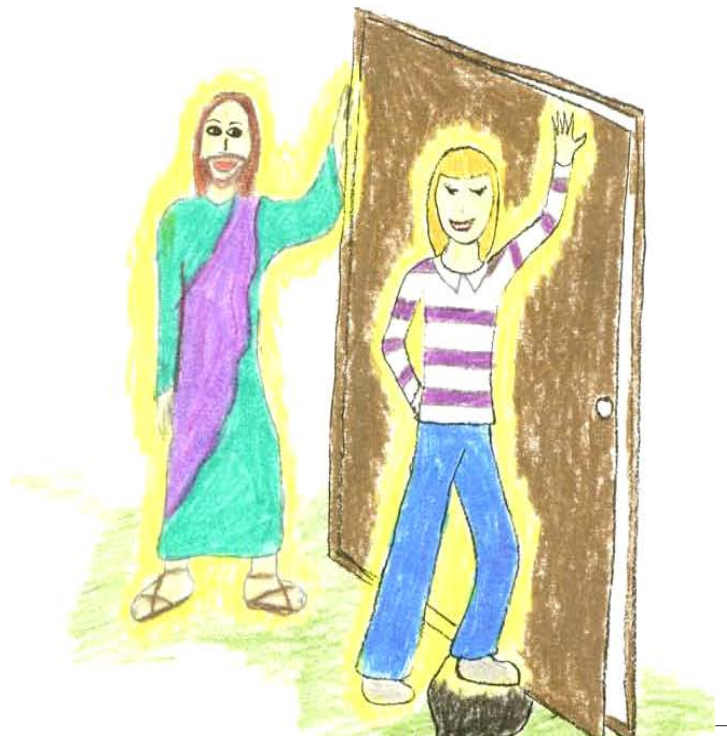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또 사탄 자신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자를 즉각 물리치셨습니다.

그대도 유혹당할 때 늑장 부리지 마십시오. **즉각 대응**하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싸움터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히 좋은 충고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를테면 공포나 걱정이나 증오나 실망이 갑자기 뇌리에 뛰어들어 부산스럽게 굴면 곧바로 물리쳐서 한바탕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의 생각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보여 주신 대로, **거룩한 질서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생각**이 저마다 가시가 되어 찌르는 참혹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 특히 이 마음의 싸움터에서 - 늑장을 부려, 예수님께 가시관 고통을 더 많이 보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죄들 가운데 하나는 **혀로 짓는 죄**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그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면, 하느님께서 갖가지 상황을 만들어 내시어 그대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만 전념하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 "네 이웃을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단 한 순간도 남을 심판하느라고 허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실행에 옮겨야 할 행위와 순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또 하나의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심적 태도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간청기도'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로 시작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서 물러가시면, 우리는 한 줌의 먼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숨을 매번 천사의 날개에 태워 가져가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매 순간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을 존속**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 특히, 아무도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기는 해도 실행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대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무슨 생각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생각할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딸아, 영혼이 **자기를 잊으려면** 그가 하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일을** 마치 **내가 그 영혼 안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가 만약 기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신다.' 하고 말할 일이다.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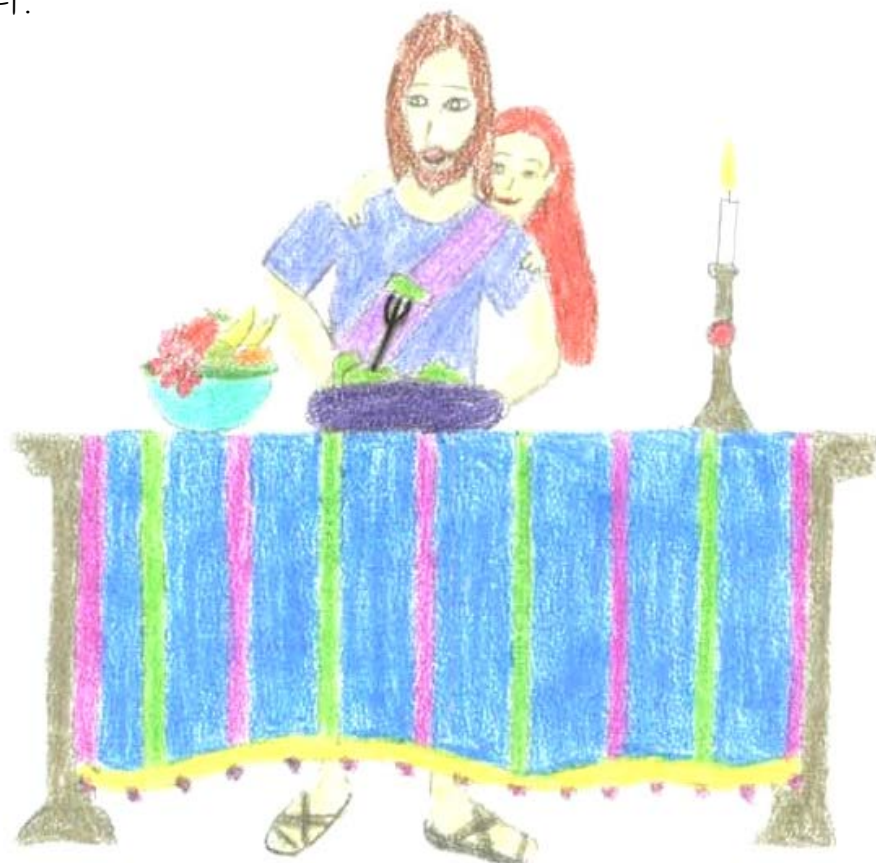
일을 해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 하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식사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일어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신다.' 등 삶 속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일이다.

이와 같이 할 때라야 비로소 영혼이 **자기 망각**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고, 또한 나 자신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 그것이 바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니 말이다."

이 조언의 의미는 간단명료합니다. 질문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 그대는 기꺼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식료품상에 가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약간의 식사를 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 중) 한 권을 읽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한두 바퀴 순례를 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잠자리에 들고자 하신다……." 하고 말하면서 기꺼이 그대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보스러워 보입니까?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이교도 군대 장수인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면 하느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리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모욕당한 듯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을 설득했습니다. "이 예언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언자의 단순 소박한 지시를 무시하지 않고 실행했으며, 마침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잊고 이 '**무(無)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단순 소박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를 하고자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고 말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 나환자 10명 치유
- 물 위를 걷기
- 빵을 많게 하는 기적
- 산상설교
- 나 (곧 '주님'의 기도) 가르침
- 바리사이를 꾸짖음



이 조언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대가 이미 식료품 상점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식료품상에 가시고자 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아이스크림콘 매장 복판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이스크림콘을 드시고자 하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시점에서는 예수님께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멈춰 설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를 하고자 하신다.**"고 말한 뒤, 그분께서 그 다음의 빈 시간을 채우며 그대에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님께서 그대의 삶 안에서 사시도록 허락하면서 진실로 현재의 순간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분께서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대는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또 그대가 행할 필요를 느끼는 일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더 이상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맡아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일들이 기적적으로 완수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대는 자주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식료품을 사러 가기를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시니, 나는 그분과 함께

그것을 사고 있는 중이다." 또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동안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속삭이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놓치지 마라."

이보다 더 좋은 삶의 방식은 없습니다. 하루가 **평화와 평온** 속에 흘러가리니, 그대가 예수님의 **조언을 충실히 따른다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를 하고자 하신다."고 말하면서 매일 돌아다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할 정도로 그분과의 긴밀한 일치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질문은 다만 이것입니다. - 그대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사도들에게 그날의 일정을 일러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순간마다 그분을 뒤따라갔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활동**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음성**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선물을 진실로 원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성인들이 누리는 '지상 천국'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사물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악이 빚어낸 환영(幻影)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이미 성인들 안에서 누리시는 그분 창조의 은혜로운 결실을 우리 안에서도 누리시기 시작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가 쓴 수많은 책들로,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서서히 밝혀 주십니다. 그분은 영혼 안에 그날그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특별한 표현들'이라고 루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 기쁨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에게 구체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 고통이라면 그분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도 당신의 고통을 나누어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설명하실 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대가 예수님 안에 숨은 상태로 그분과 함께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에 전개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을 동반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간청기도'를 참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활동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걸음 안에서 걸으시고, 우리의 음성 안에서 말씀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향하여, 그 질서와 본연의 위치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 하고자 하신다."고 말하며 그대의 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대의 그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성'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대의 활동 속에서 활동하심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들은 그대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인데 그대가 거기에 있는 것은, 그분을 위로하고, 계속 동반하며, 그분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어 가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 중의 하나는 그대의 행위와 순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순례들을 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내 삶 안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 그래서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행위와 순례들을 하면서 - 좋은 일 꾀은 일할 것 없이 -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리아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그분은 바야흐로 세상의 창조주를 낳으시려고 하는 시점에 어쩌서 당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가셔야 하는지, 어쩌서 '여관에는 묵을 방이 없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만 **"피앗."** (곧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을 뿐입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자기를 가혹하게 대하신다고 투덜거리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느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왜?"는 자기 본위의 이기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지옥에서 시작되어 지옥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휴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 그대는 일이 속히 진척되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는 그대의 행위와 순례에 충실하지만, 세상이 그대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거나 그대가 속한 세계의 문제들이 가볍게 풀리면, 『... 수난의 시간들』 같은 것은 이전처럼 선반 위에 도로 얹어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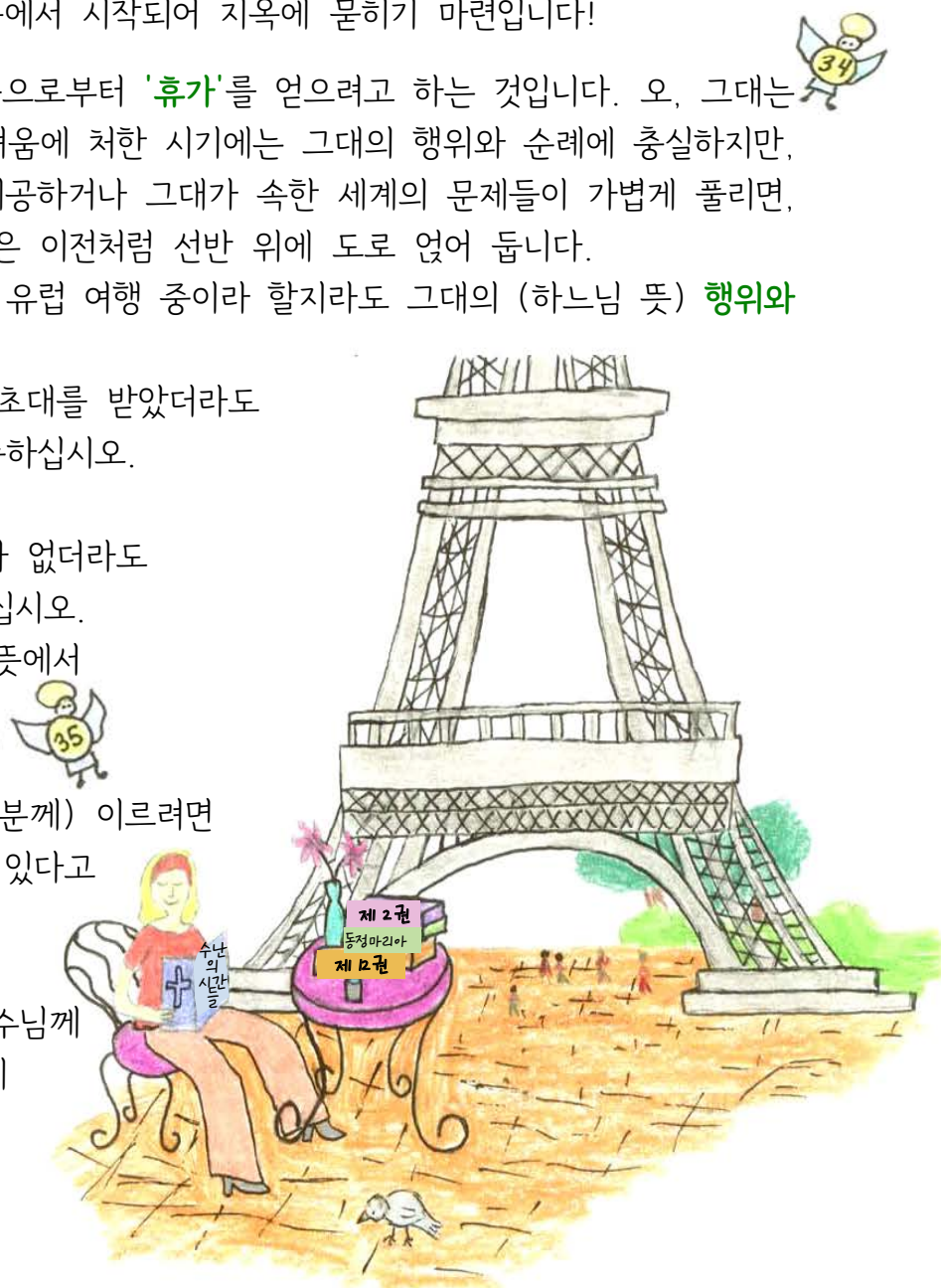
하지만 비록 한 달간의 멋진 유럽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그대의 (하느님 뜻) **행위와 순례는 계속**하십시오.

또 저 모든 여름철 모임에 초대를 받았더라도 그대의 그 행위와 순례는 계속하십시오.

또 거금을 벌었기 때문에 청구서들을 두고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대의 행위와 순례는 계속하십시오.

아무것도 그대를 하느님의 뜻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영혼이 '지극히 높은 선'(이신 분께) 이르려면 **멈추지 않고 항상 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에서 행동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순례에 충실하십시오.



(실천 및 명심해야 할 사항. 일람표)

MENU

- * 순례들을 하라.
- * (하느님의 뜻) 행위들을 하라.
- *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 * 하느님께 “왜 또는 어째서... ?” 하는 식으로 질문하지 마라.
- * 그날그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느님 사랑의 특별한 표현들이다.
- *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 * 그대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 * 순명은 성덕을 자라게 한다.
- *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시다.
- * 한순간도 자기의 뜻을 행하느라고 허비하는 일이 없게 하라.
- * 이웃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지 않게 된다.
- * 하느님의 뜻 선물의 힘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라.

오늘의 특선 메뉴

* 하느님 자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

* 능장 부리지 마라.



그대가 하느님 뜻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며 **순례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빛'은 깨달음의 순간들로, 또는 하느님 뜻의 바다 속에 **더욱 깊이 잠기도록 도와주는 진리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조언이 더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루이사에게, 진리들을 받게 된 영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번개같이 빨리 그들을 떠나게 하기 일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이 빛을 **충분히 '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들이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복되신 어머니께서도 당신의 삶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의 기구(器具)가 너를 잘게 부스러뜨리게 하여, 네 안에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하여라." 그대가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감싸이게 되는 데에 필요한 일을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하시는 동안, 그대는 종종 분쇄기 안에서 가루처럼 부스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그것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영혼의 주위와 내부에 일어나는 모든 것** - 비통, 기쁨, 반대, 죽음, 결핍과 만족 등 - 은 다름 아닌 나의 계속적인 활동이니, 영혼 안에 내 뜻을 펼침으로써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활동**이다.

내가 이를 이루면 모든 것이 완수된다. 따라서 **모든 것이 평화**를 주고, 고통 자체도 그 영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하느님의 의지**가 고통보다 더 고귀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며,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그대의 내부와 주위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완수하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 선물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그대의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고, 그대를 또 다른 예수님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하느님의 활동에 마음을 열면**, **하느님 뜻의 완수**에 이를 것이고, 여기에서는 고통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영혼이 거기에 이르고, 나로 하여금 내 의지의 활동을 완수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활용하면, 그때에는 내가 그를 준비시켜 **천국에서 살게** 한다."



여기에 하느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상 천국'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에 **완전히 둘러싸이게 된 뒤에도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고통은 영혼의 정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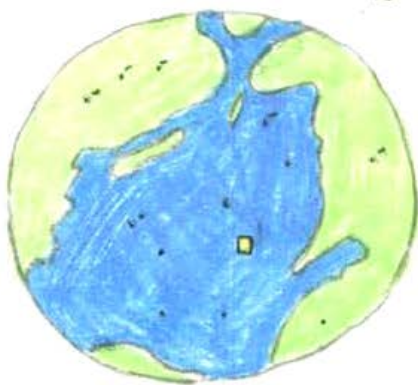
정화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에, 영혼이 현재 느끼는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느님의 정의에 **배상**을 바치기 위하여 **자원해서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 드리면서** 징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고, 또는 **영혼들을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루이사가 쓴 책들은 루이사의 진보 과정을 보게 합니다. 심한 투덜거림과 고통과 의심에서부터 (비록 아직도 이따금 고통을 계속 받곤 하지만) **온통 평화가 가득한 '지상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진보 과정**입니다.

그 **평화**는 모든 영혼들에게 소용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활동에 마음의 문을 열고, 저 '**빛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곧 잘 '씹으며') 계속해서 저 행위와 순례 여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 살며 받는 고통**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는 **정화를 위한 고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처럼) **산 제물 (victim soul)로서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대의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유익한 권고이지만, 그대가 이 행위와 순례란 것이 정녕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행위와 순례' 또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느님께서 **'빛'을 주시어 순례 여행을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예수님을 계속 동반하는 한편, **그대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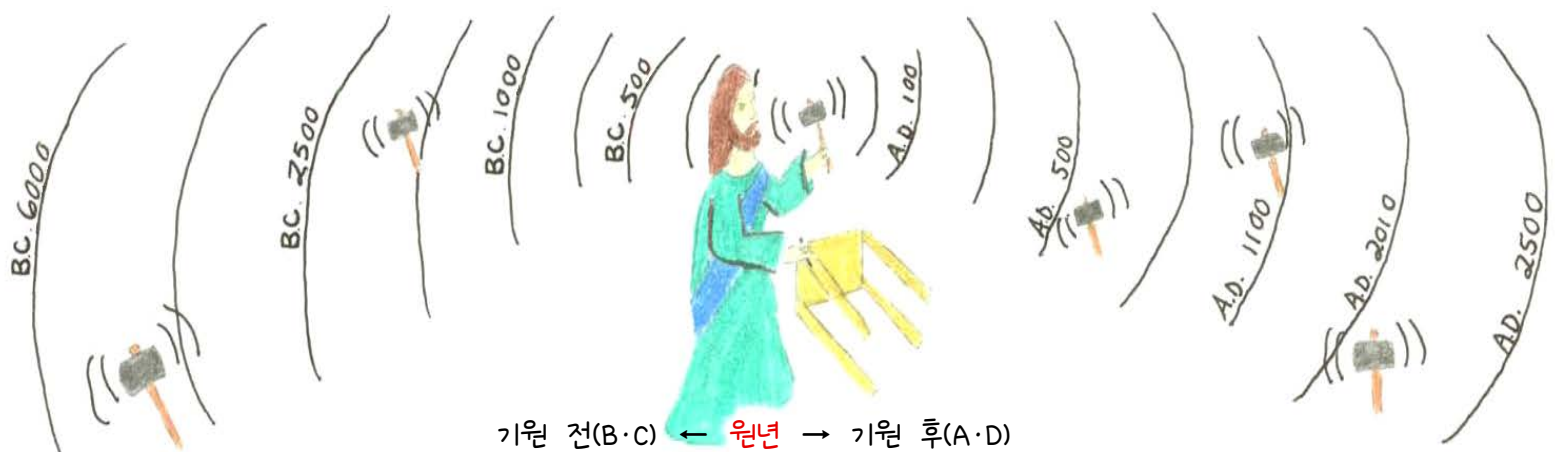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의 **숨은 생활**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하느님 뜻의) 행위와 순례의 신비를 밝히는 빛이 발산될 것입니다.

2천여 년 전 **예수님의 숨과 심장 박동과 행동과 생각과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뜻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뜻도 있었지만 매 순간 그것을 신적인 뜻에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적 행위의 중요성**을 루이사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신적인 행위들은 **인간적인 행위들을 죄다 신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세기에 걸친 인간의 모든 행위가 신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께서 모든 세기에 걸쳐 수행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은 영혼들 자신에 의해 수행된 행위들처럼 보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부터, 즉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구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심장 박동으로 **모든 인간의 심장 박동을 신적인 박동으로** 바꾸시면서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은 그대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인 까닭에 그대 안에서 또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삶 안에서 계속 숨 쉬고 움직이며 생각하고 말씀** 하시니, 그 모든 거룩한 행위들이 모든 세기의 모든 영혼들에게 불어나면서 인간적인 뜻으로 행한 행위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과 영광을 계속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행위가 거룩한 행위 - 거룩하신 하느님께 유일하게 합당한,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 역시 그 **거룩한 행위들에 응하기로 한다면** 그들로부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위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태양처럼 사람들을 내리비추어, 어떤 이들은 아름답게 하고, 어떤 이들은 은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어떤 이는 냉혹한 마음을 벗게 하고, 어떤 이는 온유한 마음을 지니게 해 준다. 또 어떤 이들 안에서는 어둠을 흩어 없애고, 어떤 이들에게는 평화와 열정의 은혜를 주어, 그들 **각자의 원의에 따라** 크든 작든 그 자신에게 필요한 **갖가지 효과**를 내게 한다.

따라서 내 의지 안의 행위가 하나씩 더 보태질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내리비추는 태양 역시 하나씩 더 불어난다."

비록 믿을 수 없는 일로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뜻을 하느님의 뜻에 산 제물로 바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순간이란 없습니다.

한때 루이사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손가락이 너의 손가락 안에서 일하고** 있다. 내 딸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나 자신을 낮추어 목재 작업이나 망치로 못을 박으면서 내 양부 요셉을 도왔던 내가 아니냐? 그 일을 하면서 바로 그 손과 손가락으로 영혼들을 창조하는 한편 다른 영혼들은 저승 삶에 도로 불러가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신성하게 하였다. **모든 행동을 성화**하면서 각각의 행동에 **신적인 공로를 부여**하였다. 내 손가락의 동작으로 네 손가락의 모든 동작들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동작들을 차례차례 불렀다**...



나는 그들 안에서 (예컨대 루이사의 손가락 안에서) 나의 나자렛 생활을 계속한다... 내가 나자렛에서 영위했던 숨은 생활을 사람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실상 나의 수난을 제외하고, 그들을 위해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가장 큰 선이었다."

그대가 그대의 인간적인 뜻을 씌으로써 저 거룩한 행위의 연속을 중단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대가 방금 이웃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은 거룩하지 않고, 따라서 인간적인 행위를 신적인 행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대에게, "나는 거룩한 하느님이니, 네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네 안에서 내 얼굴에 가해지는 또 하나의 타격을 받을 작정이다. 네가 그 못된 말을 중얼거린 죄에 대한 보속을 아버지께 바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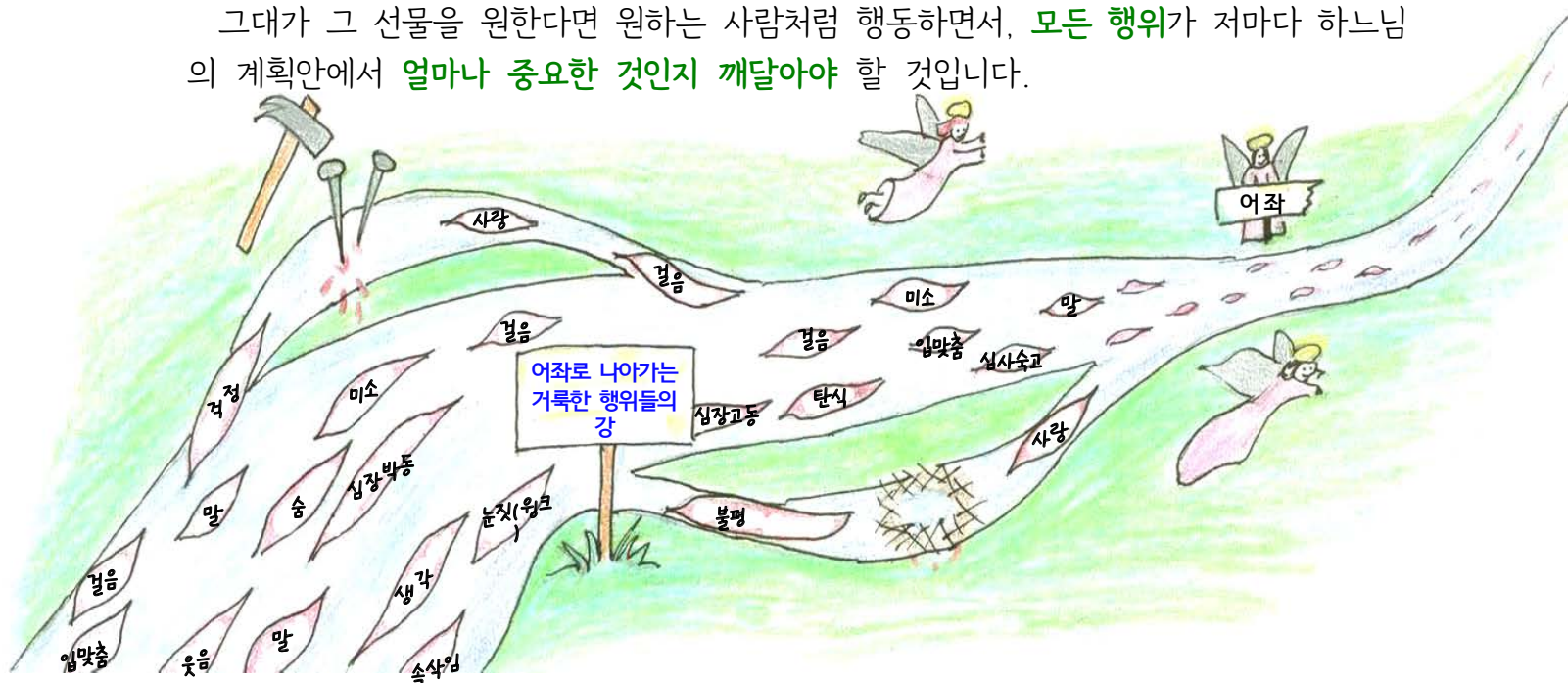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는 받아 마땅한 영광을 여전히 받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로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한순간도 그대의 뜻을 써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하리라는 것과 그래서 당신께서 때때로 우리 모두 안에서 계속 수난 고통을 겪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떠날 마음이 없으십니다. 완성의 길은 멀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종종 실패하더라도 그대에게는 아직 하느님의 뜻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 그대가 어떤 죄를 끊어버리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셈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삶이라는 선물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대가 그 선물을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행위가 저마다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의 숨 안에서 숨 쉬실 때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그 행위를 합니다. 앞에서 주신 예수님의 조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활동에 앞서) 이렇게 말하며 그대의 하루를 보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상에 가시고자 하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다……." 등등. 이를 계속하는 것이 그대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예수님 안에 사라지는 한편, 예수님은 하루 종일 그대의 손을 써서 활동하시고 그대의 걸음 안에서 걸으시고 그대의 숨 안에서 숨 쉬시리니, 그대는 그것을 **느끼고 지켜보며 인식하는 일에 진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행위'를 하라고 할 때의 그 행위는 정녕 **이 인식을 온종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대가 다시 그대의 뜻 속으로 들어가 떠다니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잊고, **그대 자신의 활동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대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대 안에서 그대와 함께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러나 "내 눈 안에, 내 귀 안에, 내 입 안에, 내 모든 것 안에 예수님께서 흘러드시는 것을 느꼈다."라고 한 루이사처럼 예수님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초자연적 체험이라는 위로를 받지 못한 채 하느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면,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할 때보다) 공로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 그대가 (보지 않고도 다만) **믿음으로** '그대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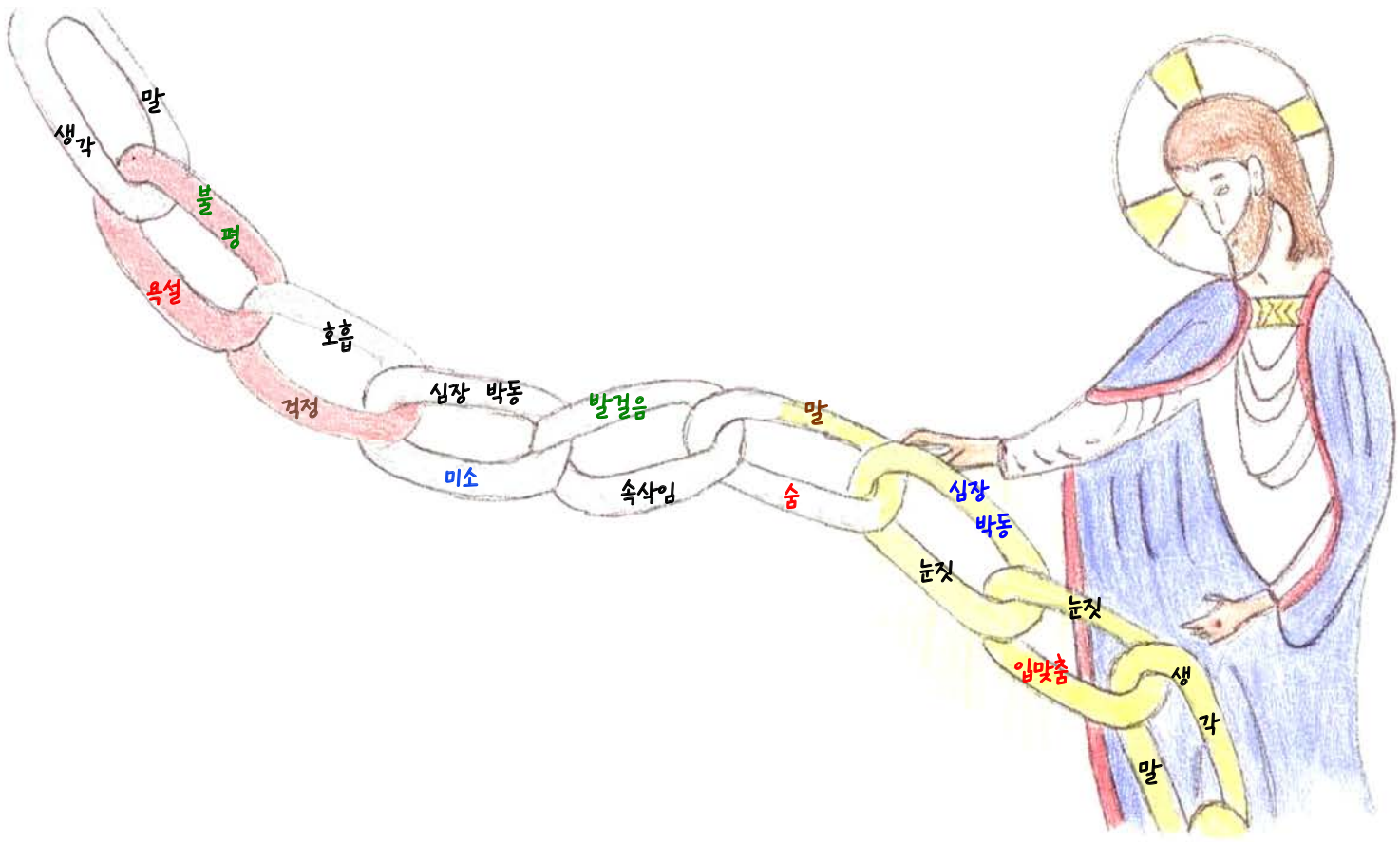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울 뒤 천상 영역에서 그대의 행위들로 무엇을 하실지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루이사에게 그녀의 행위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당신에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성인들이 **천국에서 누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창조 사업의 열매**를 누리신다는 점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낙원의 한 동산을 즐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동산이 그대의 인간적인 뜻에 의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수시로 폐쇄**되긴 하지만, 그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가 **창조된 목적과 그 질서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신비로운 경계선이 그대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는 예수님의 기도의 연속입니다. 이 큰 그림을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행되지 않은 행위들과 죄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박동과 같이 그 자체로는 무죄한 것도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이 인간의 뜻으로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쇄 반응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였고, 더욱 나쁘게도 그들의 죄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무죄한 피조물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제가 없이는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을 드릴 수 없었기에, 사람이 사제로 활동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그 사랑을 그분께 다시 바쳐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아버지께서 모든 피조물에게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고, 정의에 어긋나는 죄에 대한 보속도 받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정의를 완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연결되기 시작한 사슬이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은 바로 이 사슬의 연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보속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받으실 때, 그때에는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도 완성될 것입니다. 즉, 아담의 죄에서 비롯된 연쇄 반응이 역전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순례해야 할 것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지요? 하느님께서 새들 안에 넣어 두신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다시 봉헌**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 선물의 능력으로 그대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시기에, 그러한 봉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수만큼 불어나서 그들 모두가 새들 안의 사랑을 아버지께 돌려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집 뒤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순례 이야기로도 책 한 권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죄한 창조물을 순례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여기에 그보다 더하기 어려운 순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대 집 뒤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잠재적인 낙원들을 - **복원될 필요성이 있는 낙원들**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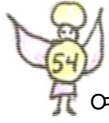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하느님의 뜻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버지께 마땅히 바쳐야 했으나 **바치지 못한 보속과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러니 정의의 요구에 따라 그것을 그분께 바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아마도 **각 사람은 인간적인 뜻의 수십억 가지 행위와 수천 가지 죄를 상징**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루이사 안에서 하신 모든 일과 그대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 중인 모든 활동을 이 두 사람 안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라야 그들 영혼의 낙원 안에서 - 그들의 걸음 안에서 걸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현재 각 사람 안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뇌에 잠겨** 계십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로** 말미암아 그대의 순례들이 **예수님의 순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그대의 목소리 안에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 두 **영혼 안에서**도 **죄로 황폐한 땅을 뒤엎고 낙원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험담이나 교만이나 어둠은 거기에서 가져가시고 **사랑과 겸손과 빛** 따위 하느님의 다른 모든 속성들은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대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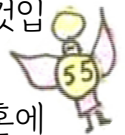
게다가 이 기도는 하느님의 기도이기에, 저 두 **영혼을 위한 기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에게** 미칠 만큼 그 수가 불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영혼은 자유 의지가 있어서 천사들이 가져오는 **은총이나 빛**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을 헐뜯으며 교만한 태도로 사랑과 겸손의 은총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충실한 응답**으로 한층 **더 깊이 하느님의 낙원**으로 변모되어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대 안에 **하느님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영혼들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분쇄기를 통과하며 잘게 으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게서 **세속적인 것과 마귀와 육적인 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순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히 **사소한 죄도** 용납해선 안 됩니다. **덕행들**마저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닦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충분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속성들과 거룩한 생명을, 바로 당신의 신성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요구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각 영혼 안에서 당신 나라의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순례는 하느님의 권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각 영혼에게 빛**을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어좌를, 그분 천사들의 합창대를,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명과 수난의 행위들을, 복되신 어머니의 신적인 행위들을, 성인들의 업적들을, 동물들의 사랑을,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모든 영혼의 행위들을, 그리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각 영혼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의 순례(기도)에 응하는 착한 영혼들 안에 여기 지상에서 시작된 일은 연옥의 세 단계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서 당신 창조 사업의 보람을, 즉, 당신의 **성인들 안에서 느끼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성인들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영혼 안에서, 마침내 그 영혼들이 천국에 있을 때에는 그들 안에서 느끼시는 것을.



은총에 응답하는 영혼들 가운데에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루이사는 일찍이 그날 태어난 모든 영혼이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기도 덕분에 그날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 지역에 따라 시차가 있겠지만 그들의 생애 동안 -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것은, 그들 중 상당수가 그 기도응하여 숨은 군대의 일부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계획 완수를 위하여 조용하게 (하느님 뜻의) 행위와 순례**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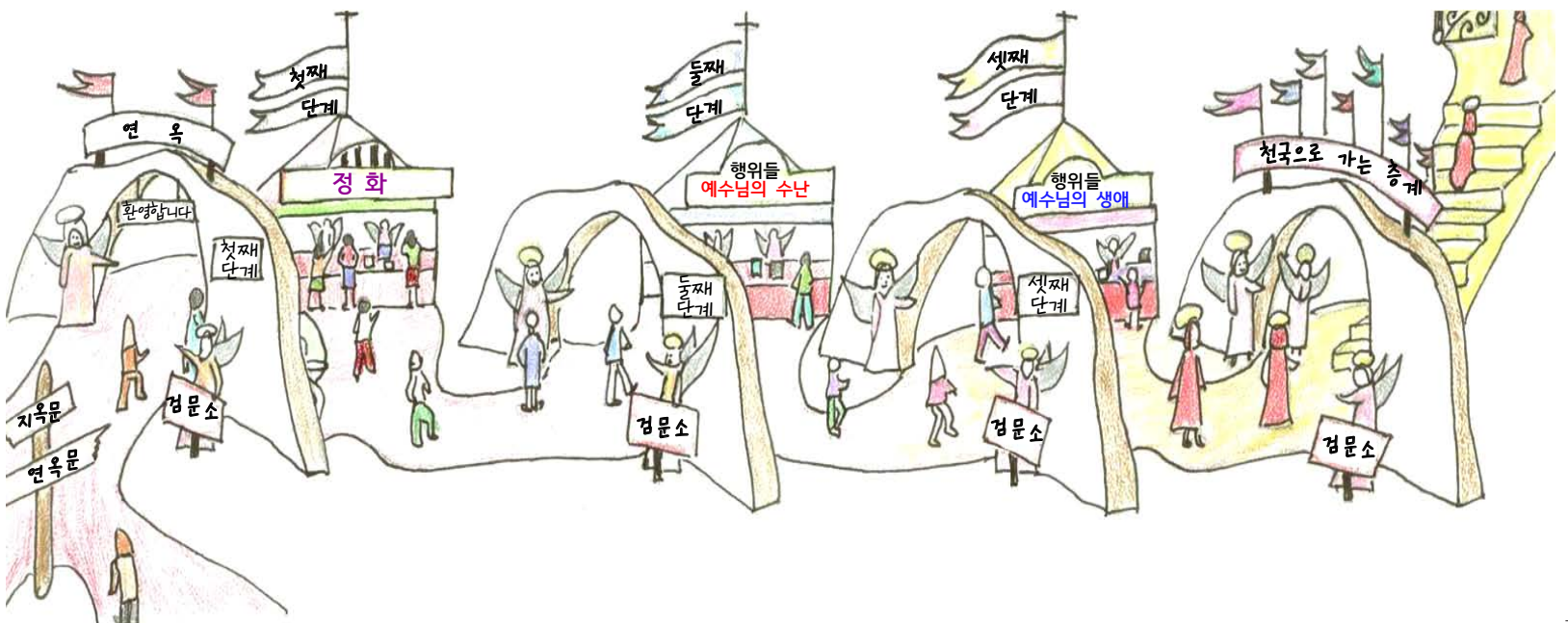
은총에 응하지 않고 지옥을 택한 까닭에 멸망한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느님은 그들에게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그러나 받지 못하신 영광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받으십니다. **모든 행위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인즉**, 멸망한 영혼들도 그 선물을 받았습다. 그럼에도 실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것입니다.

그렇게 **보류되어 있었던 행위들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와 루이사가 순례를 통하여 소유**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순례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사업과 (예수님의) 수난과 기타 등등에 대한 **순례를 계속 반복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영혼들의 수만큼 불어난다면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부모님에게 딱 한 번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후 다시는 그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순례는 창조된 세계를 넘어 창조되지 않은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만약 죄 속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천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행성들을 지탱하는 일을 돕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등과 같은 여러 일을 하면서 모두가 하느님 자신의 신적인 활동에 참여해 왔으리라는 것을?



그것은 하느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 신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혼은 하느님의 활동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느님의 계획 한복판에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분출에도 참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발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하느님 뜻의 나라의 자녀들도 위계(位階)가 서로 다른 구단(九段)의 천사 합창단과 같은 합창단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뜻 안의 천상 영혼들 중 천사들의 최고 계급인 치품천사(Seraphim)처럼 가장 높은 계급을 이루는 영혼들은 지상에서도 하느님의 활동 안을 순례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느님과 함께 태양이 빛나게 했고, 천사들에게 은총을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으며, 성령과 함께 치유 봉사를 하러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을 쳐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일들에도,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거나 선택적으로 지옥에 가는 영혼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늘 하느님을 동반한 이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당신을 동반한 이들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그분께서 영혼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니까요.





루이사의 『천상의 책』 속의 여러 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들』과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및 그녀의 편지들 속에는 **예수님의 숨은 생활**을 상세히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거니와, 그분께서는 숨을 쉬실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으로 계속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숨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성체**가 될 수 있고, 이 성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행위'**는 복되신 어머니도 더 이상 하실 수 없습니다. 자유 의지를 써서 사람의 행위와 하느님의 행위 중 하나를 택하는 이 행위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이들에게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 여기 **이 지상에서도 또 다른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그대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뜻의 자녀들 개개의 영혼 안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심에** 따라, '나라'가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루이사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두 개의 높은 층계를 내게 보여 주셨다. 한쪽 층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견고한 황금으로 되어 있는 다른 쪽 층계에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층계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또 **다른 예수님들처럼** 보였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인 것이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쪽 층계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미천하고 별로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황금 층계에는 나의 생명을 자기네 생명으로 삼은 이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내 발이요 손이며 심장이고 내 모든 것이다. 네가 본 대로 그들은 **또 다른 나인**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나를 위해** 있고, **나는 그들의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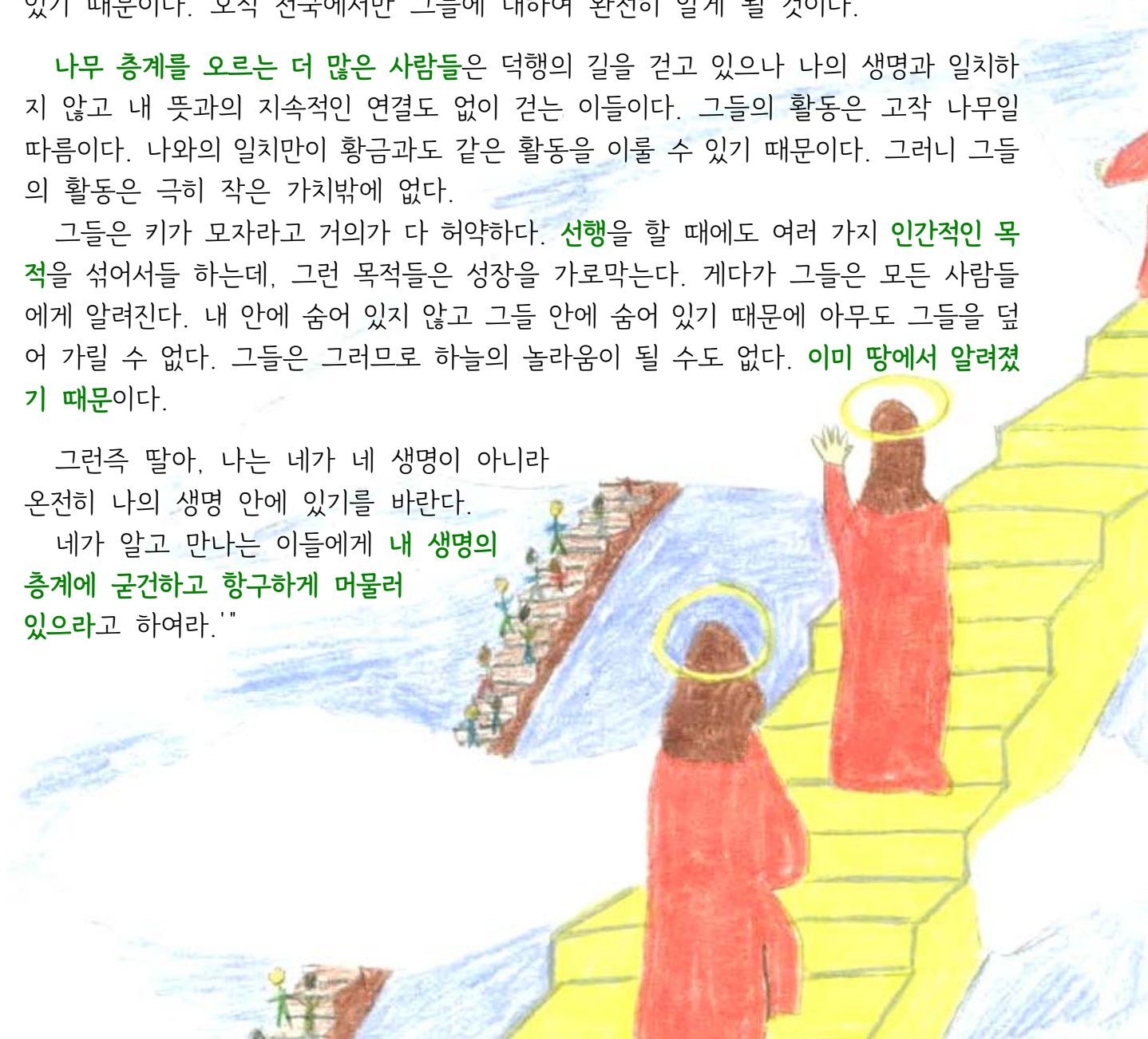
그들의 활동은 **신적인 활동**이므로 모두 황금이며 헤아릴 수 없도록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들이 도달한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다. 그들은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직 천국에서만 그들에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나무 층계를 오르는 더 많은 사람들은 덕행의 길을 걷고 있으나 나의 생명과 일치하지 않고 내 뜻과의 지속적인 연결도 없이 걷는 이들이다. 그들의 활동은 고작 나무일 따름이다. 나와 일치만이 황금과도 같은 활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의 활동은 극히 작은 가치밖에 없다.

그들은 키가 모자라고 거의가 다 허약하다. **선행**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목적**을 섞어서들 하는데, 그런 목적들은 성장을 가로막는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내 안에 숨어 있지 않고 그들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덮어 가릴 수 없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늘의 놀라움이 될 수도 없다. **이미 땅에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즉 딸아, 나는 네가 네 생명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생명 안에 있기를 바란다.

네가 알고 만나는 이들에게 **내 생명의 층계에 굳건하고 항구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여라."





하느님의 뜻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멀리 떨어져 **표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진해서 하느님 뜻의 활동을 할 생각이 없고, 어떤 이들은 **그들 나름의 종교 활동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는 **바리사이와 아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율법으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은 곧 율법의 완성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은 새로운 계약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성사들과 여러 신심들**, 그리고 지난 2천 년 동안의 교회 **모든 활동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사에 참례할 필요도, 묵주기도를 바칠 필요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 참례든 묵주기도든 하느님의 뜻 선물 안에서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각 영혼이 저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수가 붙어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따라서 남에게 받기보다 주기를 한층 더 원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두 황금 층계를 올라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을 **신뢰**합니다.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신심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숨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그런 영혼들 안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의 발이 되고, 전도자의 혀가 되고, 약한 자의 힘이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은 전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흡사 공을 던짐과 동시에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삶의 절정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징벌의 완화를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영혼 안에서 그들 죄의 얼룩을 빼기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하느님의 지상 옥좌로서 영혼들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는 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서서 아버지께서 피조물이 끼치는 모욕을 우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으시게 함으로써 인류를 덜 엄하게 대하시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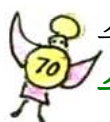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수난 중이신 예수님께 위로를 드릴 것입니다. 비록 그 사건은 2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수난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새로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인성으로 고난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무죄한 모든 조물의 사제로서 활동을 계속하고, 모든 세기의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신성하게 하는 활동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아버지를 '도우면서' 창조된 만물을 유지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점점 더 깊이 끌리면서 바로 하느님 역사(役事)의 전과정 한복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본질인 하느님의 뜻 안으로 사라짐에 따라 모든 것을 얻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모든 시대에 걸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대 주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지상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큰 평화를



느끼고 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천국은 평화 이상의 것입니다.

적어도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 세상도 이따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상 천국'으로 간주하기에는 틀림없이 너무 부족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겨울에도 꽃봉오리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갑자기 툭툭 터지듯 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 소라기보다, **하느님을 직접 뵈는 지극히 복된 직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손을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무질서 한복판에서 하느님을 직관하는 한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움직일 때에 나를 지켜보아라. 세상의 창조자인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너의 손을 움직이고 있다. 네가 내 거룩한 뜻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를 주시하여라. 네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 악행, 혼란, 슬픔 등에는 눈길을 주지 마라. 네가 땅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네 손을 보고, 네 **창조주에 대한 그 지극히 복된 직관에 집중하여라.**



내가 여기에 있다. 다시 지상에서, 네 발 걸음 안에서 걷고 있다. 나와 함께 이 천상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우리 함께 '나라'가 오게 하자. 성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네가 네 손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한밤에도, 세상이 너에게 닫혀 있을 때에도, **네 숨 안에서 숨 쉬는 나의 부드러운 숨결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약속한다. 세상과 세상의 문제들이 너와 나의 일치 빛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느님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만약 **하느님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천국보다 못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너의 **지복 직관**이고, 이 직관이 바로 너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에 관해서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온 역사가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다시 세우실 이 순간을 향하여 이어져 왔으니, 이제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 계획의 특징적인 점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일단 **이 선물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의 뜻을 다시 선물로 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힌트와 감추인 참고들이 성경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저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공유하는 데서 생겨나는 일치와 정결의 빛 안에서 보면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 요한에게 내린 성령의 계시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오로 사도에게는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나타내시기를, 곧 **하느님 뜻 선물로 살게 된 자녀들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들은 이보다 덜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온전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이 뜻의) 행위와 순례를 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마리아께서 **모든 은총의 샘이며 중개자**이신 까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고한 신비인 **삼위일체의 신비**마저 성삼위께서 같은 뜻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계시와 더불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는 **성인들이 하느님의 모든 선물의 예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누리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의 예표 말입니다. 그러니 두 지점에 동시에 존재하기, 인간의 마음을 읽는 능력, 거룩한 덕행들 같은 선물뿐만 아니라 **'신비적 혼인'** 같은 선물마저 다만 하느님 뜻 선물의 풍성함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에 대한 인간 뜻의 전적인 일치로서 자고로 영적 체험의 극치로 간주되어 왔던 **그 '혼인'도 하느님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며 실제로 활용하는 이 **선물에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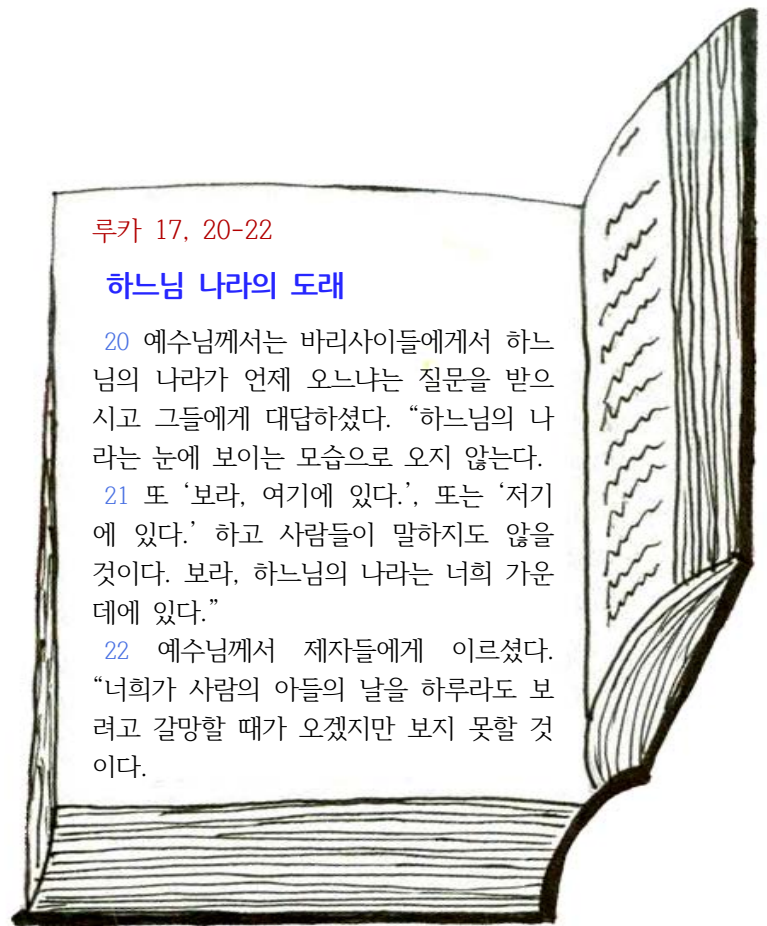
루카 17, 20-22

하느님 나라의 도래

20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자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2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 아주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한 방울의 물인 **그대**는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들을 (꼭꼭) '씹어' 그대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행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읽고 계시고, **그대**가 자리에 앉아 숨 쉬며 생각하고 있는 행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숨 쉬며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가 동작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손이 이 책을 닫으시면, **그대**는 "**예수님께서 ……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대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모시고 있고, 그 **창조주께서** 놀라운 일치로 **그대와 함께 계시면서 이 순간을 나누고자** 하시니, 이는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일치**입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고 '나라'를 더 성장시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느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인 이 순간**이,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든가 인간의 뜻 안에서 (대단한 무슨 일을 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강력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다음 순간, 또 다음 순간, 또 다음 순간에 이 일치를 이루시게 해 드리는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더 좋은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애야,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의 숨조차 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하여라. 그 불티가 확 타오르면서 작은 불꽃을 이루어 네 **창조주의 사랑을 위로**하게 하여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단**을 주셨습니다. - 우리로 하여금 영원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신 수단이니 - 바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입니다.



순례에 관하여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대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길을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시간과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아침기도 시간이든, 밤기도 시간이든, 성탄절 모임에서 하는 일 분 묵상 시간이든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순례의 중심을 이루는 행위들을 (아버지께 바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거룩하신 뜻의 사랑으로 이 행위를 아버지께 바치오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이 바치는 것처럼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뜻의 빛이 **인간 뜻의 어둠을 몰아내며** 빛나게 하시어, **아버지의 나라가** 영혼들 안에, 또 모든 조물 위에 **쏟아져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합당한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낱말을 다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행위를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아버지께 바칩니다." 순례 행위는 옳은 길이니 옳지 못한 길이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낱말들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는 순례할 것이 바닥나는 일이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순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별, 심해 생물체의 발견, 디옥시리보 핵산(DNA) 곧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성분, 폭탄 테러로 죽은 이라크 민간인 수, 수천 마일을 덮친 홍수의 자세한 피해 사항 등 정보가 (수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성인들의 전기, 교회의 회칙, 역사서 같은 책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사가 희귀본 성경을 손으로 꼼꼼히 필사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으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에 따라, 영혼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공동체 안에 숨어 있으면서)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능하게 (영적) 순례를 할 수 있는 이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선물을 그들에게 맡겨 주셨으니, 이는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그분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들을 그대가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순례에 대한 견해를 필자 나름으로 진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수난의 시간들』을 읽을 때에는 고난을 받으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들을 따라 하십시오. **마리아와 루이사와 하나 되어 계속 예수님을 동반**하십시오. 『... 수난의 시간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가장 큰 흐뭇함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2.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루이사의 『**천상의 책**』 한 부분을 읽을 때에는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루이사의 말을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아버지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파고들도록 기도**하십시오.

3. **성경을 읽을 때에는** 각 페이지마다 또 하나하나의 말마디마다 빼놓지 말고, 아브라함, 모세, 에스테르, 성 스테파노 등의 행위들을 **하느님의 뜻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활동 및 마리아와 천사들의 활동을, 성경 속에서 전개되는 대로 되풀이하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홍해를 양쪽으로 가르고, 성령과 함께 불 혀 모양으로 내려오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십시오.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독서를 계속적인 순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성인들 사전**』 (John Delency 편저)을 뒤적이며 5천 명이 넘는 그들의 **행위들을 하느님의 뜻 안으로** 가져오십시오.

5. 『**교리서**』를 통독하면서 가톨릭교회의 **진리들을 모든 영혼들 안에** 넣으십시오.

6.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이나 「파퐁러 사이언스」(Popular Science)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버지의 창조물을 보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7. 신문을 볼 때에는 (재난과 전쟁과 범죄와 질병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십자가와 결합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십시오.

8. (보행자 전용의) 상점가 벤치 (같은 것)에 앉으십시오. 자만심이니 마약이니 담배니 하는 것들일랑은 즉각 끌어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에 보이는 그 밖의 나쁜 짓거리들도 끌어내십시오. **그 영혼들과 모든 영혼들 안에 은총과 덕행들을** 넣어 주십시오.

9. 아버지께서 당신의 조물을 유지하시려고 그대 주위에서 **하시는 일과 성령께서 영혼들을 성화**시키려고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들과 합류하십시오. 천국에서 활동 중이신 **하느님과 성인들과도 합류**하십시오.



빛의 천사들

이 ‘빛의 천사들’은 본문 군데군데에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주(註)들로서 83번 까지 있습니다. 한 번호에 ①,②,③ 등의 작은 번호가 더 붙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해당 번호의 구문을 내포 또는 설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출처를 가리킵니다.

루이사의 저술을 영어로 옮긴 책들에서 택한 것인데, 그 영역판이 여러 가지여서 이미 한국어로 소개된 문장과 뜻이 다소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하느님 뜻 영성의 빛에 비추어 읽으십시오.

편의상 “천사 1” 등등에서 “천사”는 생략하고 번호만 적었습니다. - 역주

..... 49, 51, 78쪽

1의 ①: 『천상의 책』 제12권 80,1-26
(1919년 1월 29일)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쇄신의 때와 하느님의 뜻 영성, 루이사의
소명

..... 49쪽

1의 ②: 상동 제12권 153,11-13 (1921년
2월 22일) 하느님의 뜻이 인간을 창조 당
초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 50쪽

2: 상동 제19권 25,1-4(1926년 5월 31일)
루이사의 저술을 하느님의 뜻에 대한 모
든 진리에 비하면?

..... 52쪽

3: 『하느님의 뜻 기도모음집』 145면 ‘하느
님의 뜻 호칭기도’ 참조

4: 『천상의 책』 제11권 72,1-6 (1914년 3
월 24일)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이는 예
수님의 인성을 대신한다

5의 ①: 상동 제11권 40,7-14 (1912년 11

월 2일)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자
신을 알아볼 수 있다

5의 ②: 상동 제19권 51,1-14 (1926년 8
월 27일)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관한
책의 제목을 정해 주시다. 사람을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 53쪽

6: 상동 제11권 35,2-4 (1912년 9월 6일)
영혼들의 ‘안’과 ‘밖’에 계시는 하느님

7의 ①: 상동 제12권 123,2-6 (1920년 1
월 24일) 하느님은 당신 피조물과 함께
있고자 하신다

7의 ②: 상동 제12권 127,2-6 (1920년 4
월 3일) 인간 창조에서 의도된 하느님의
전적인 뜻은 인간이 매사에 하느님의 뜻
을 행함을 통해 하느님 생명이 인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었다

8의 ①: 상동 제7권 27,3-4 (1906년 7월
3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은 하느
님의 지상 낙원이다

8의 ②: 상동 제11권 8,7 (1912년 3월 3

일) 그 영혼들 안에 있는 것을 즐기시는
하느님

..... **54, 86쪽**

9의 ①: 상동 제4권 104,3-4 (1902년 1월 26일) 하느님은 인류가 당신 안으로 돌아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

9의 ②: 상동 제7권 20,2-5 (1906년 6월 15일) 영혼들을 당신 자신 안에 다시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9의 ③: 상동 제35권 11장 (1937년 10월 19일) 하느님 성삼위께서는 그분 자신들에 대한 사랑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9의 ④: 상동 제35권 2장 (1937년 8월 15일) 내 뜻 안에서 사는 삶이란,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은 사람 안에서 사는 삶이다

..... **55쪽**

10: 상동 제6권 42,1-3 (1904년 6월 6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영혼은 지성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처가 된다

11: 상동 제1권 6,3 예수님께서서 영혼을 조금씩 가르쳐 주시리라

..... **57쪽**

1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시간들』 제18시간 “오, 사랑하는 십자가야,”

13: 『천상의 책』 제4권 59,2-3 (1901년 3월 19일) 가장 쉽고 유익하게 고통을 받는 방법

14: 상동 제8권 26,1-2 (1908년 2월 16

일) 인내와 자기 포기로 지는 십자가의 열매

..... **58쪽**

15의 ①: 상동 제8권 13,7-8 (1907년 10월 4일) 신성을 인성에 접붙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15의 ②: 상동 제11권 56,7-14 (1913년 8월 20일) 신성을 인성에 접붙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16의 ①: 상동 제4권 28,3-7 (1900년 11월 8일) 순명이 영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박아 넣는 이유

16의 ②: 상동 제2권 61,1-7 (1899년 8월 17일) ‘귀부인 순명’은 사람의 모든 악습을 죽인다

17: 상동 제12권 18,40-44 (1917년 8월 14일) 참성덕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데에 있다

..... **59쪽**

18: 상동 제11권 83,15 (1914년 11월 20일) 글쓰기를 꺼리는 루이사에게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말씀

19의 ①: 상동 제36권 14장 (1938년 6월 16일)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19의 ②: 상동 제36권 15장 (1938년 6월 20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친교 속에 있다

19의 ③: 상동 제36권 1장 (1938년 4월 2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20: 상동 제8권 34,9-15 (1908년 4월 8일) 기도 중에 불현듯 나타난 한 성인과 의 논의

..... (59, 62쪽)

21의 ①: 상동 제8권 17,1-3 (1907년 11월 18일) 영혼은 텅 빈 무가 되어 갈수록 전부이신 분으로 더 차게 된다

21의 ②: 상동 제7권 54,3 (1906년 10월 14일) 전부이신 분으로 가득 차기 위한 비움

21의 ③: 상동 제12권 16,8-12 (1917년 7월 25일) 하느님으로 가득 찬 영혼

..... (60쪽)

22: 상동 제8권 21,8-9 (1908년 1월 23일) 우물쭈물 느장부리지 마라

23: 루카 4,1-14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르 8,33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24의 ①: 『..... 수난의 시간들』 제17시간 (오전 9시-10시) 인간의 사악한 생각들에 대한 보속으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24의 ②: 『천상의 책』 제11권 90,1-9 (1915년 4월 24일)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사악한 생각

..... (61쪽)

25의 ①: 상동 제2권 50,2 (1899년 7월 30일) 이웃을 보지 마라. 그러면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25의 ②: 상동 제2권 50,2 (1899년 8월 12일)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다

..... (62쪽)

26: 상동 제6권 110,2-3 (1905년 5월 23일)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이루는 모든 것인 분과의 일치

27의 ①: 상동 제7권 52,1-6 (1906년 10월 10일) 인간 행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27의 ②: 상동 제12권 8,2-9 (1917년 5월 10일) 모든 이에게 생명과 활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숨

28: 상동 제11권 39,1-6 (1912년 11월 1일) 너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 (63쪽)

29: 상동 제11권 28,2-14 (1912년 8월 14일) 자기 망각에 이르는 방법

..... (64쪽)

30: 2열왕 5,14-15 나아만이 요르단 강물에 몸을 씻다

..... (66쪽)

31: 『천상의 책』 제7권 74,1-7 (1907년 1월 5일) 진정한 성덕을 이루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느님 사랑의 특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 (66, 81쪽)

32의 ①: 상동 제11권 67,19-24 (1914년 3월 8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 겪는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다

..... (66, 83쪽)

32의 ②: 상동 제11권 96,10-13 (1915년 7월 9일) 예수님의 인성으로 쓰이는 영혼

32의 ③: 상동 제11권 4,10-13 (1912년 2월 18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게는 살고 있는 것이 그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 (66쪽)

33: 상동 제12권 105,4-5 (1919년 5월 24일)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영혼이 느끼는 것들

..... (67쪽)

34: 상동 제8권 64,3-4 (1909년 1월 30일) “왜?”의 정체와 역사

35: 상동 제7권 36,3-4 (1906년 8월 8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 까닭

..... (68쪽)

36: 상동 제7권 5,7-8 (1906년 2월 28일) 저 진리들을 음식처럼 잘 씹어 삼켜라

37: 루카 1,29; 2,19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 (69, 77쪽)

38: 『천상의 책』 제12권 45,4-5 (1918년 5월 7일) 인간적인 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드는 제분기

..... (69쪽)

39: 상동 제11권 61,2-5 (1913년 9월 20일) 영혼 주위와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의 의미

40: 상동 제8권 35,2-6 (1908년 5월 3일) 지상적이라기 보다 천상적인 삶을 사는 영혼

..... (70쪽)

41의 ①: 상동 제7권 81,1-5 (1907년 3월 2일) 산 제물인 영혼 -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자진하여 받는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 고통은 없다

41의 ②: 상동 제11권 91,10-12 (1915년 5월 2일) 예수님의 인성과 가장 근접해 있는 영혼들 그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산다

42: 상동 제6권 27,8 (1904년 3월 16일) 십자가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 (72쪽)

43의 ①: 상동 제11권 64,10-12 (1913년 10월 2일)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영혼 안에 형성되는 예수님의 생명

43의 ②: 상동 제7권 69,1-6 (1906년 11월 28일) 예수님과 긴밀한 일치 속에 있었던 루이사는 자기의 숨 안에서 숨 쉬는 예수님의 숨을 느낄 수 있었다. 신적 행위를 이루는 것

43의 ③: 상동 제11권 80,6-14 (1914년 10월 29일) 하느님 뜻과 일치된 행위는 그 하나의 행위로도 천 개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완전무결하다

44: 상동 제12권 103,8-11 (1919년 5월 16일)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의

효과와 태양

45의 ①: 상동 제11권 28,5-15 (1912년 8월 14일) “나의 손가락이 너의 손가락 안에서 일하고 있다.”

45의 ②: 상동 제12권 30,2-9 (1917년 12월 28일) 사람의 사소한 행위도 예수님의 행위와 결합되면 위대한 것이 된다

45의 ③: 상동 제12권 28,4-15 (1917년 12월 6일) 지극히 사소한 행위 속에서도 모든 피조물을 싸안으신 예수님

..... 73쪽

46: 「..... 수난의 시간들」 제10시간 (오전 2시-3시) 한나스의 한 종에게 뺨을 맞으신 예수님. 불평을 포함하여 여러 죄들을 보속하시다

47: 「천상의 책」 제11권 67,16-17 (1914년 3월 8일) 하느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한순간의 가치

..... 74쪽

48의 ①: 상동 제11권 119,2-4 (1916년 4월 15일)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뵙다

48의 ②: 상동 제11권 68,1-8 (1914년 3월 14일) 영혼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신 예수님

48의 ③: 상동 제8권 48,3-5 (1908년 9월 5일) “나의 온 존재가 그의 내부로 흘러든다.”

49: 상동 제11권 73,1-2 (1914년 4월 5일) 빛이신 예수님이 루이사의 귀와 눈과

입 따위 모든 것 속에 흘러드시다

50: 상동 제12권 28,13-14 (1917년 12월 6일) 자기의 행위들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예수님께 넘겨 드리는 영혼

..... 74, 83쪽

51의 ①: 상동 제11권 74,7-10 (1914년 4월 10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그분의 지상 중심이며 옥좌이다

51의 ②: 상동 제11권 118,5 (1916년 4월 1일) 지상 삶보다는 천상 삶을 살아야

..... 75, 78쪽

52의 ①: 상동 제11권 132,2-6 (1916년 10월 13일) 천사들이 예수님의 활동들을 아버지께 가져가다

52의 ②: 상동 제12권 27,14-15 (1917년 11월 27일) 마침내 완성될 지상 천국

52의 ③: 상동 제12권 99,5-8 (1919년 4월 19일) 아버지께 완전한 영광과 사랑과 보속을 드린 예수님

52의 ④: 상동 제12권 117,2-7 (1919년 12월 6일) 첫 사람에서부터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대신하여 바치는 배상과 보속과 사랑

52의 ⑤: 상동 제12권 121,9-15 (1920년 1월 9일) “모든 이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 대해, 내게 흠숭과 사랑과 보답하는 마음과 감사의 정을 표해 주려무나.”

..... 76쪽

53: 상동 제11권 119,8-10 (1916년 4월

15일)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따라다니며 보상을 바치는 영혼

..... 77쪽

54의 ①: 상동 제11권 125,2-16 (1916년 6월 15일) 가장 강력한 기도는 예수님께 서 행하고 겪으신 모든 것을 옷 입듯 입고 지존하신 하느님의 여좌 앞으로 가는 것이다

54의 ②: 상동 제11권 122,1-15 (1916년 5월 3일)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

54의 ③: 상동 제11권 42,4-9 (1912년 12월 14일) 모든 이 안에서 기도하며 보상을 바치다

54의 ④: 상동 제11권 62,2-13 (1913년 9월 21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그분과 같은 특성, 같은 생명, 같은 가치를 얻는다

54의 ⑤: 상동 제11권 112,7-11 (1915년 12월 10일) 그대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안에 흘러들게 하십시오

54의 ⑥: 상동 제12권 76,7-12 (1919년 1월 4일) 천사들과 성인들도 합세하여 영혼들을 청하며 외친다

55: 상동 제12권 47,2-6 (1918년 5월 23일) 하느님은 영혼이 (당신 뜻 안을 날아다니면서) 접촉하는 마음들을 보시고, 중단하지 말라고 하신다

..... 78쪽

56: 상동 제36권 1장 (1938년 4월 12일)

루이사가 한번은 오늘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청한 적이 있었다

..... 79, 83, 85쪽

57의 ①: 상동 제12권 41,1-11 (1918년 4월 8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신 분의 전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57의 ②: 상동 제11권 69,1-12 (1914년 3월 17일) 하느님 뜻을 행하는 영혼은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도 참여한다

..... 79쪽

58: 상동 23권 40,5 (1928년 2월 28일) 거룩한 피앗의 나라의 자녀들의 위계

59: 상동 9권 52,2-7 (1910년 11월 1일)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이루는 지고한 일치

..... 80, 82쪽

60: 상동 12권 72,1-8 (1918년 12월 10일) 예수님의 숨은 생활을 반복하는 영혼

..... 80쪽

61: 상동 11권 84,1-7. 16-18 (1914년 12월 17일) 하느님 뜻 안의 살아 있는 성체

62: 상동 36권 2장 (1938년 4월 15일) 승리의 행위를 이루는 자유 의지

63: 상동 11권 109,3-8 (1915년 11월 11일) 땅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들

..... 81쪽

64: 상동 11권 41,19-28 (1912년 11월 25일) 땅에서 하늘로 솟은 두 종류의 층층대

..... 82쪽

65: 상동 12권 18,32-39 (1917년 8월 14일) 사람의 뜻이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가짜 성덕

66: 상동 11권 110,32-39 (1915년 11월 13일) 받아 모신 성체를 잘 봉헌하는 방법

67: 상동 11권 58,1-11 (1913년 9월 3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68: 상동 11권 11,1-11 (1912년 3월 15일) 하느님의 뜻은 거룩함 중의 거룩함이다

..... 83쪽

69의 ①: 상동 11권 85,2-7 (1914년 12월 21일) 예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위로는 그분의 고난을 함께하는 것

69의 ②: 상동 12권 22,1-4 (1917년 10월 8일) 하늘에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 인성을 땅에서 대리하는 영혼

69의 ③: 상동 11권 97,4-7 (1915년 7월 25일) 하느님의 의노가 피조물을 내려치는 시기에 위로를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70: 상동 12권 15,2-12 (1917년 7월 18일)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그 영혼을 느끼신다

71의 ①: 상동 12권 111,2-7 (1919년 9월

3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서서

71의 ②: 상동 12권 134,2-8 (1920년 6월 10일)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혼

..... 84쪽

72: 상동 12권 161,2-6 (1921년 4월 26일) 세상을 보지 마라. 하느님 뜻 안의 행위들이 새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73: 상동 12권 8,10 (1917년 5월 10일) 예수님의 숨에 열중한 상태로 있는 것

..... 85쪽

74: 요한 17,21-23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75: 마태 5,48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76: 1요한 3,2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77: 로마 8,18-19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78: 『천상의 책』 제11권 52,1-14 (1913년 5월 9일) 예수님과 그분 어머니의 불가분적 관계 “그분과 나는 서로 안에 함께 녹아 들어 있었다.”

79: 상동 제11권 86,14-23 (1915년 2월 8일) 뜻의 일치가 성삼위의 모든 완전성을 이룬다. 이는 또한 창조주와 인간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이다

..... 86쪽

80: 요한 15,13 가장 큰 사랑

81의 ①: 『천상의 책』 제8권 29,4-8 (1908년 3월 15일) 하느님으로 가득 찬 이는 폭풍이 닥쳐도 심해처럼 평온하다. 그렇지 않은 이는 물이 얇은 여울처럼 폭풍에 온통 뒤흔들린다

81의 ②: 상동 제12권 17,2-4 (1917년 8월 6일) 더할 수 없이 드센 폭풍 속에서도 행복한 영혼

..... 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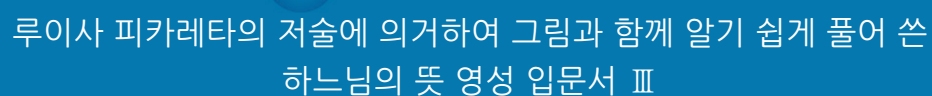
82의 ①: 상동 제7권 63,2-5 (1906년 11월 9일)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은 예수님을 기쁘게 함

82의 ②: 상동 제11권 81,2-5 (1914년 11월 4일) ‘수난의 시간들’ 기도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

82의 ③: 상동 제11권 82,2-8 (1914년 11월 6일) “이 기도를 바치는 이들과 접촉하면 못들이 뿔히고 가시들이 흩어져 사라지며 상처들이 아물고 침이 다 닳인 느낌이 든다.”

..... 87쪽

83: 상동 제11권 86,1-6 (1915년 2월 8일) “자기를 잊고 영혼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한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돌아온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이 책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 및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에 더 깊이 녹아든 한 방울의 물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그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독자가 **루이사 피카레타**(1865~1947)의 **저술**에 담긴 **진리**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쓰였습니다.

그런 배경 (또는 예비) 지식이 없을 경우, 뒤쪽 참고란에 밝혀 둔 하느님 뜻 선물에 대한 여러 출처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출처에는 이미 출간된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1~Ⅱ 권도 포함됩니다.)

루이사가 쓴 『**천상의 책**』과 다른 책들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위의 책 1~Ⅱ 권에 그들 중 상당수를 특별히 택하여 실은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진리**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책**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진리들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그대의 **나날이**, 사랑하올 **아버지**와 경탄하올 **예수님**과 눈부시게 빛나는 **성령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성장**시키며 이를 반영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느님과의 대화**가 **온종일 지속**되는 것 — 이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그대의 **행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권의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시리즈는 www.dwdropbooks.com에서 무료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책은 값을 치러야 하지만, 재료비와 출판 비용 및 우편 요금을 포함한 값일 뿐, 우리로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히고, 그렇게 한 것을 모두 모아 포장하고 배에 싣는 것 — 이 모든 작업은 **하느님 뜻 선물**을 **전파**하려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하느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창조 업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기다려 오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 『... 한 방울의 물 이야기』 시리즈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체험**한 것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고, 아울러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성찰**일 따름입니다.

그대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대는 아마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가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순례를 포함해서 하느님 뜻의 행위들에 충실하고 이 선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워 익힌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집에 갈 것입니까?" 하고 묻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마침내 **하느님 뜻 안의 집에 도착하면**, 오는 도중에 특이한 사건들을 많이 만난 긴 여정이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시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왔구나!"**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현동(現動) 한복판 그 **신성의 동산**에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에덴동산**은 시작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아담**은 아직 집에 와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하느님을 알긴 했지만, **하느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성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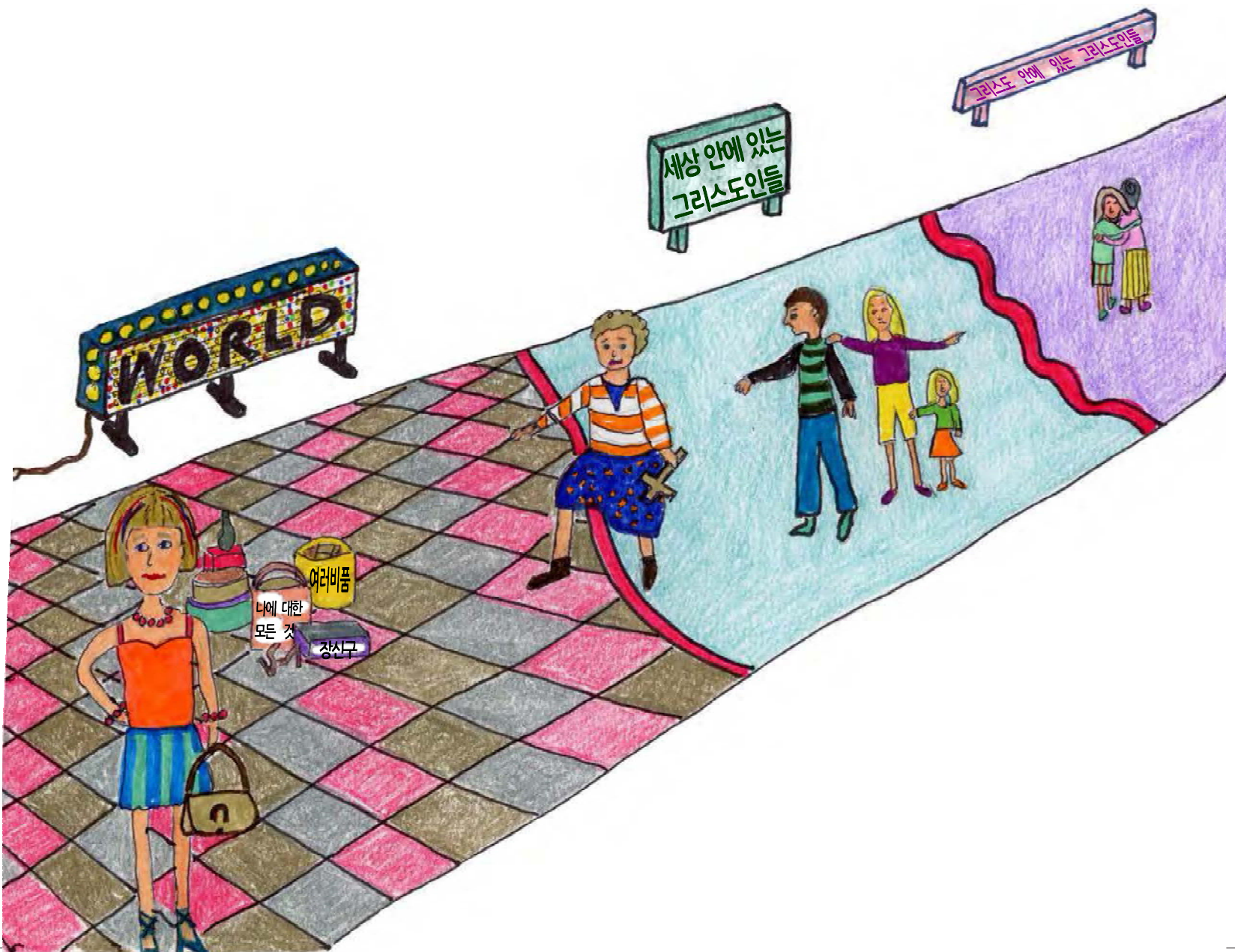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삼위 - 같은 뜻을 공유하시는 이 성삼위의 일치 및 하느님의 다른 신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 자신의 활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관계성, 지복 직관, 신성의 동산, 하느님의 현동 속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대가 그 집에 가 있게 되면 그 사실을 자각할 것이고, 이를 확증하기 위해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고무적인 관계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대가 **질서와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각각의 다리는 믿음과 지식과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상으로 만드신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의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자각한다면, 길에서 내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다리는 매우 친숙하지만, 집 가까이로 다가감에 따라, 나중 다리들은 때때로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이 여정의 출발점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돈, 재물, 그리고 세속적인 관심사들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여로에 오르게 하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응답하면 믿음의 처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체 없이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고무하며 자극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불꽃**이 더 커지게 하여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발이 세상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계속 걸어갈 마음이 없어서 수백 가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진노한 아버지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 **자기네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하느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 많은 생활방식**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이들도 있고, **돈에 대한 집착**에 빠져 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명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하느님을 믿지만**, 그 하느님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 **생명의 하느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그 노력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 분투합니다.

게다가 성령께서는 그들을 은총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들이 그 은총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간적인 경향이나 정욕과 싸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 뒤에 하느님의 뜻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이 선물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순간이 얼마나 중대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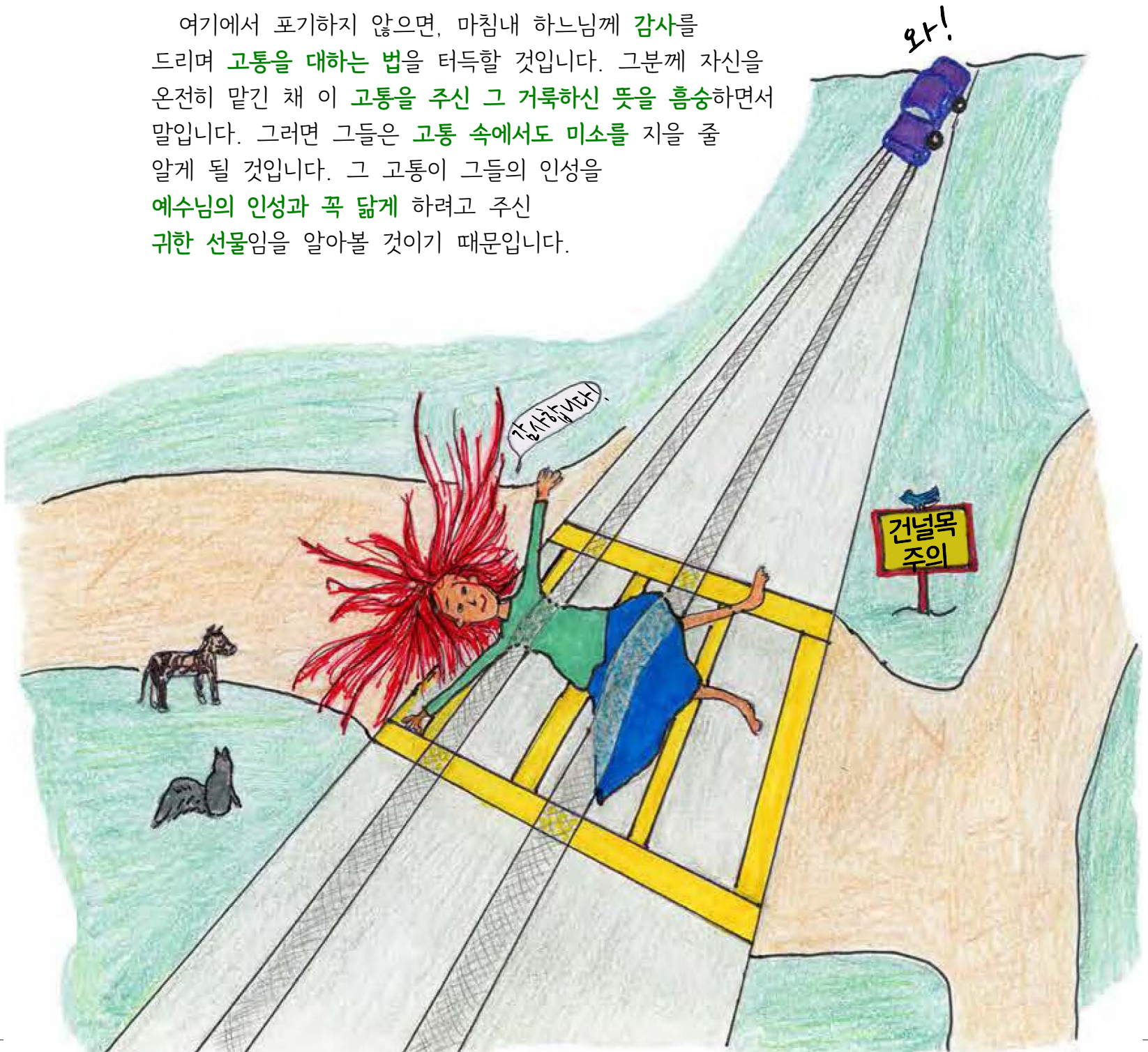
그리고 계속 이 선물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이 -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 다 의미심장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 길을 따라 매 순간 그 영혼을 더 멀리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 뜻의 행위와 순례**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익히고** 있으면, 하느님의 뜻이 그 영혼에게서 **인간적인 것을 비우고** 그 자리를 **신적인 것으로** 채웁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영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소유와 이 다스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하느님의 뜻이 **순간마다 인간의 뜻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들은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상태로 **현재 이 순간을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연옥을 겪는 은혜**를 받습니다. 즉, 그 **정화 과정**을 미리 겪습니다. 이는 때때로 뒤로 물러설 만큼 언짢은 일이지만, 그럴더라도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통을 대하는 법**을 터득할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채 이 **고통을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흡수**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들의 인성을 **예수님의 인성과 꼭 닮게** 하려고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통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대도 **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은 루이사가 (산 제물로서 겪는) 그 자신의 일상적인 고통 상태에 놓이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제의 개입이 필요한 그 특이한 '안수' 때문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사랑이시여, 저를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 뜻은 그 안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면 저는 기쁘겠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루이사는, "저는 이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한 셈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더러 **네의 뜻이 없는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나는 그런 고통으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뿐더러, 그런 고통이 하느님의 정의나 나의 의노를 진정시키는 데에 소용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뜻**이기 때문이다. ... 내가 그 **뜻이 없는 고통**을 원한다면, 그런 것은 이 세상에 허다하게 있으므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내 뜻의 작은 딸에게서는 그 **뜻의 자발성이 없는 고통**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다."

그대가 하느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을 때의 복되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다른 모든 군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이 거룩하신 뜻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그것은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간 뜻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피앗**'이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겪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차례 루이사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 흥미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루이사가 **고통에 짓눌려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루이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솜은 그대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말하여라. **박해와 상처와 고통**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그것으로 **내 상처를 다스리며 치유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주는 매우 큰 영예가 되는 까닭은, 의사인 나 자신을 내어 주어 내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나를 치유한 사랑의 공로**도 없어 주기 때문이다."

많은 연옥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소리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숭고한 가르침을 많이도 받고 있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느님을 치유하는 공로**를 얻게 된다는 것 — 이는 다른 **모든 공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광**은 하늘이 땅에서 아득히 높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영광과 구분**될 것입니다. 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 우리의 고통이 하느님을 치유하는 데에 소용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넉넉한 부를 얻었을 것입니다."

'피앗'을 발하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대의 고통으로 하느님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연옥 영혼들도 그대와 같은 입장에 있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대가 고통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감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이름 있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의 능력을 알아듣지 못해서 고통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폄하(貶下)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고통은 (본디) 천사적인 총명(을 지니도록 창조된) 사탄마저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할 정도로 모순적인 것입니다.

루이사가 한번은 그의 몸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위협이 무서워 움츠리기는커녕, 가서 자기를 칠 회초리를 들고 오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내가 흘릴 모든 핏방울마다 내 하느님께 드리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랑과 보속과 영광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루이사는 나중에 그 악마가 다른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그녀를 후려치면 도리어 우리의 손해이고 패배일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겠나?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낫겠어. 그걸 원치 않는 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만 고통받기를 원하는 자를 건드렸다가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해치는 격이 될 뿐 아니겠어?"

마귀는 그렇게 말하고 루이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사탄이 2000년 전에 희생적 고통의 힘을 충분히 깨달았다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을 열어 준 사건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고통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더욱더 진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십자가가 지닌 여러 칭호 가운데 하나는 '축제'이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들 하느냐? 경축하고 기뻐하며 더욱 행복해하지 않느냐?"

십자가는 가장 값지고 그 무엇보다도 고상한 선물인데다 존재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고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른 어느 선물보다도 더 즐거운 축제이고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만약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 고통을 기리는 사람과 마주친다면, 이는 그대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느님 뜻의 집을 향한 여정을 무사히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 좋은 기회입니다.

고통은 그 선물을 받은 이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의 타락을 초래한 원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한 보속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선물은,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에 따라 타락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고통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들 중 하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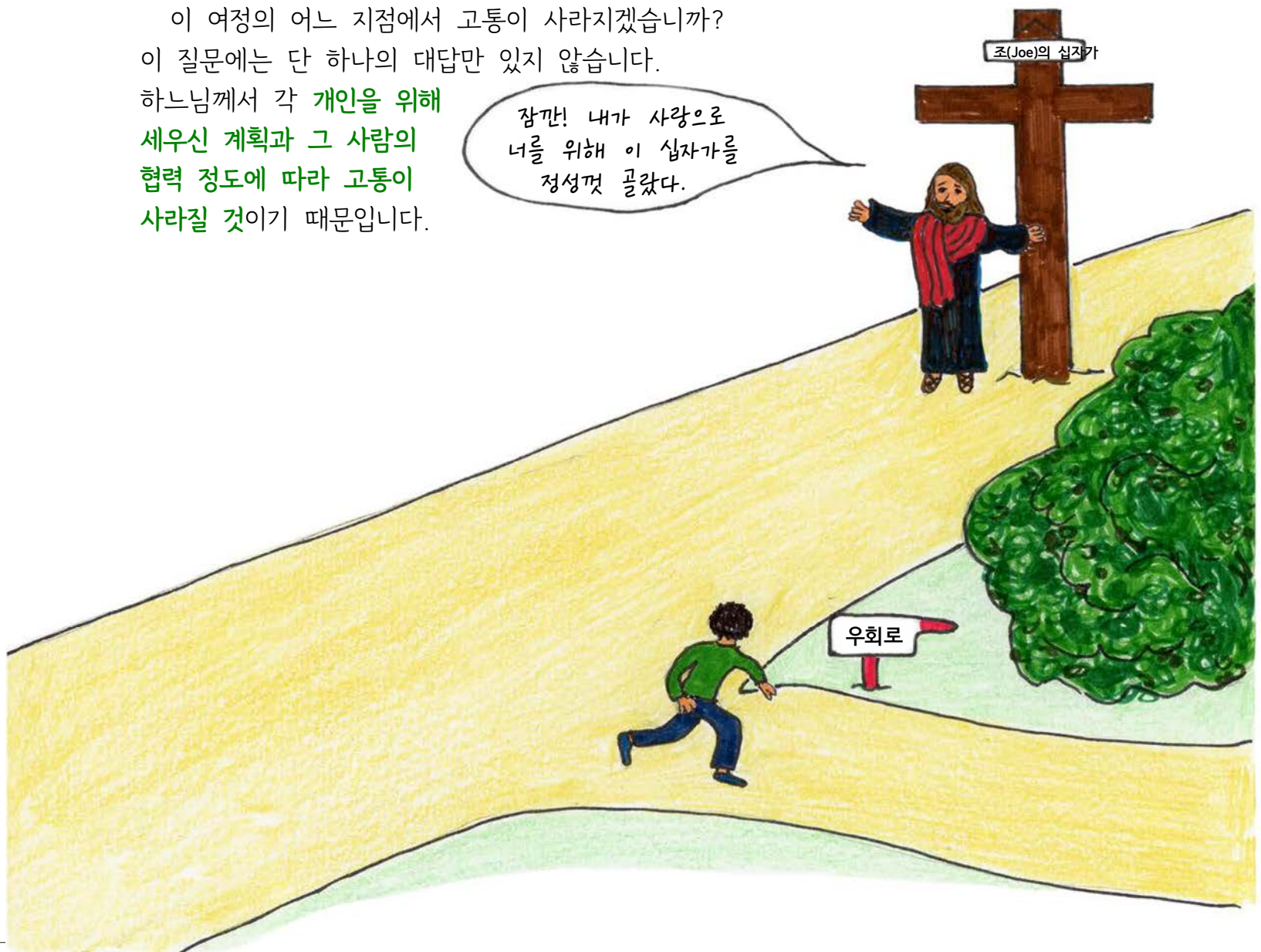
"하느님의 (뜻을) 생명으로 소유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거룩하고 신성하며, 고생이 끝나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도 자취를 감춘다."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대답만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개인을 위해 세우신 계획과 그 사람의 협력 정도에 따라 고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내가 사랑으로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정성껏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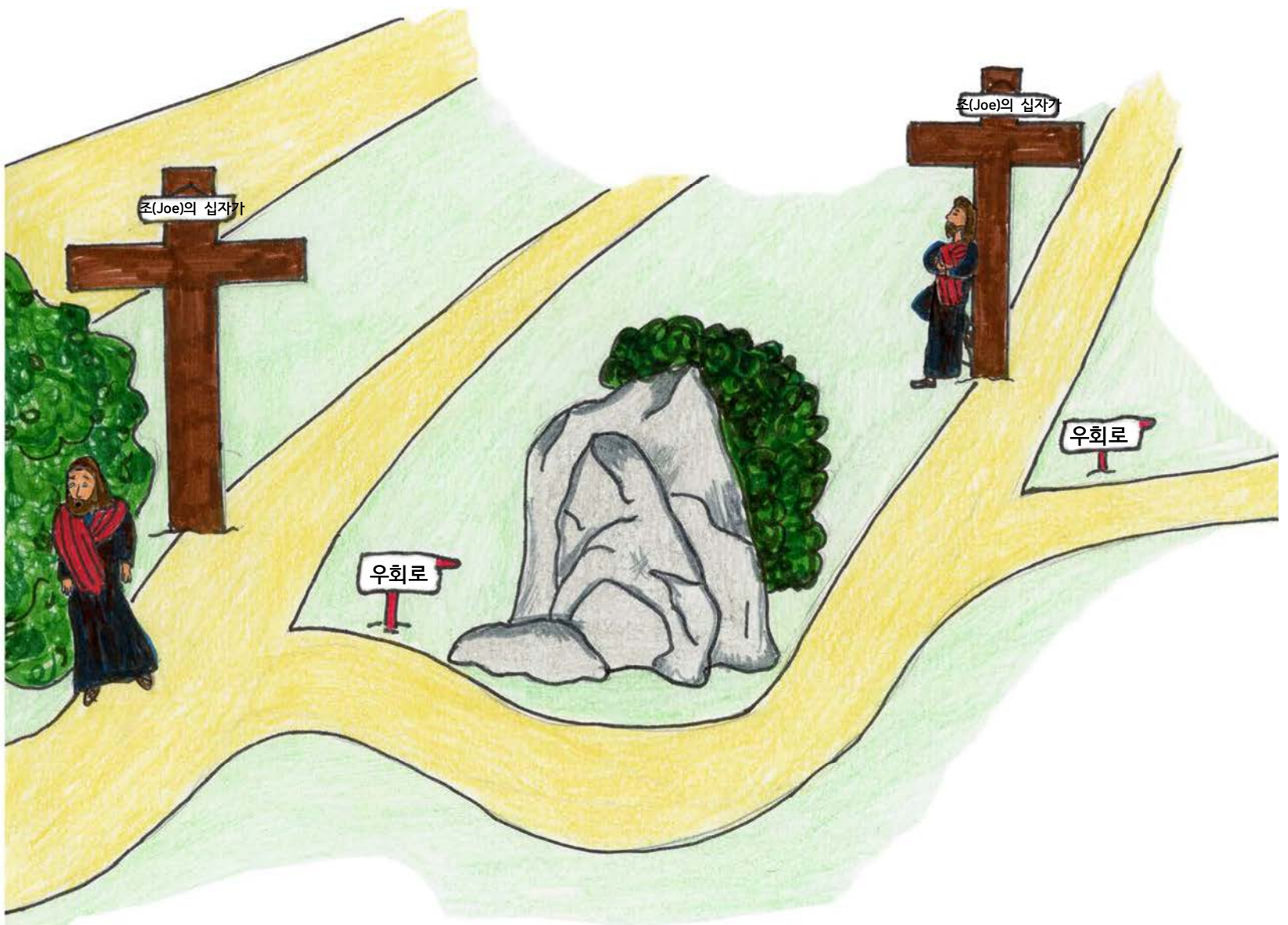
하지만 고통을 주제로 다룬 루이사의 구절들이 한결같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항구한 인내로 고통에 대한 앎을 얻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은 지상에서 천상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입니다. 천상에는 고통이 없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용기와 이해심을 가지고 그대의 십자가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고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고통이 엄습하면... **달아나기가 일쑤다.**"

그대는 그대의 십자가들에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달아나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진도만 늦출 따름**입니다. 그대를 위해 계획된 십자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연적으로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꼭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 지상에서 **천상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 고통의 한 몫**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똑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말입니다.



고통의 의미와 함께, **하느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어려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충분히 알아듣고 수용하려면, **자기 자신을 보되 무(無)로 보는 것**에 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러나 하룻밤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간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자기 망각에 이르려면** 하루하루를 자기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처럼 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 온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종일 그분의 손을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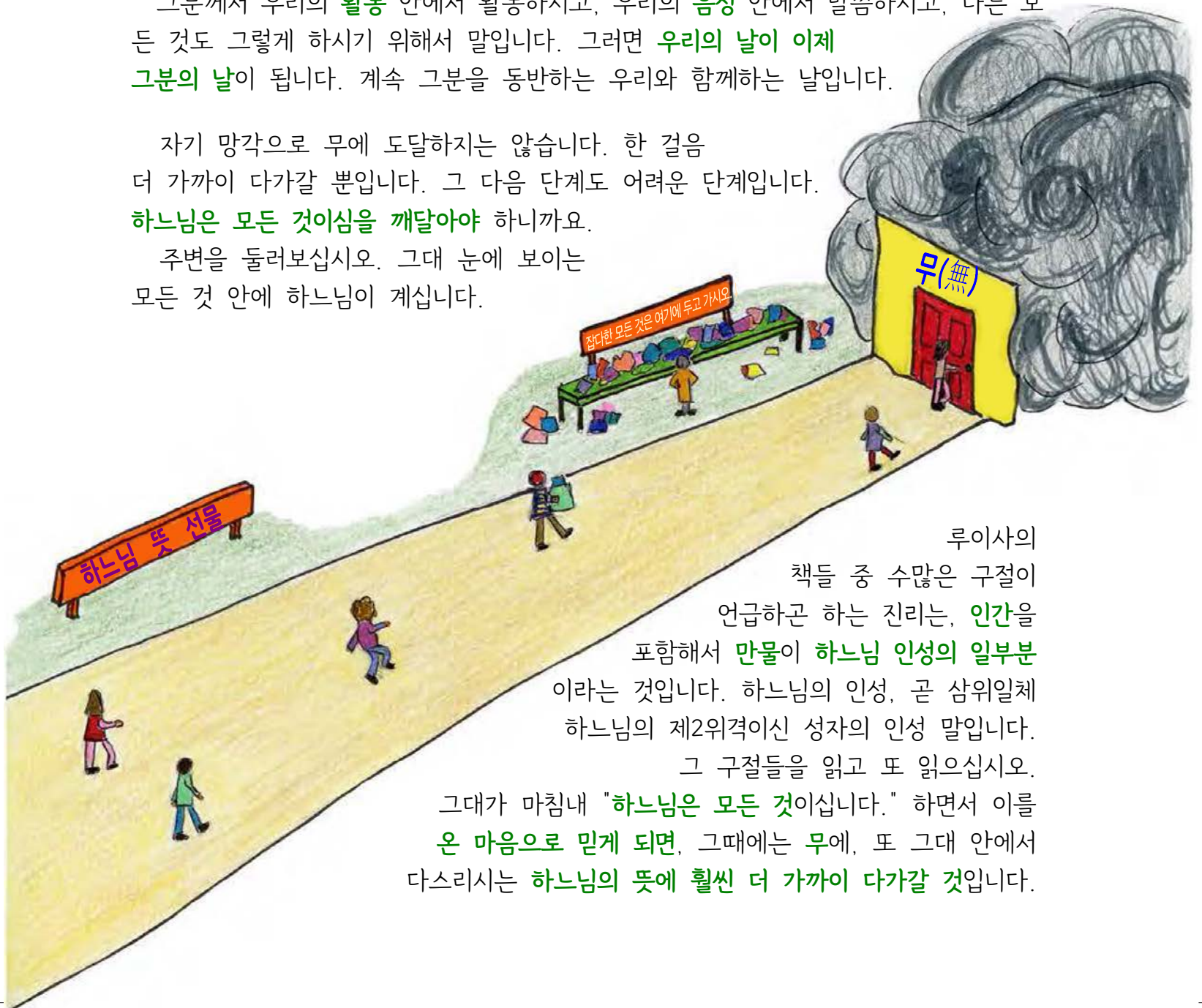
하지만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놓고 실제로 **그분의 내면 안으로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활동**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음성**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른 모든 것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이 이제 그분의 날이** 됩니다. 계속 그분을 동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기 망각으로 무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심을 깨달아야 하니까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루이사의 책들 중 수많은 구절이 언급하곤 하는 진리는,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하느님 인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성, 곧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의 인성 말입니다. 그 구절들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대가 마침내 **"하느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면서 **이른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때에는 **무에**, 또 그대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무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은 말김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과정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여러 해에 걸쳐 그대가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해 온 모든 것이 그분의 권리에 속한 것인즉, 그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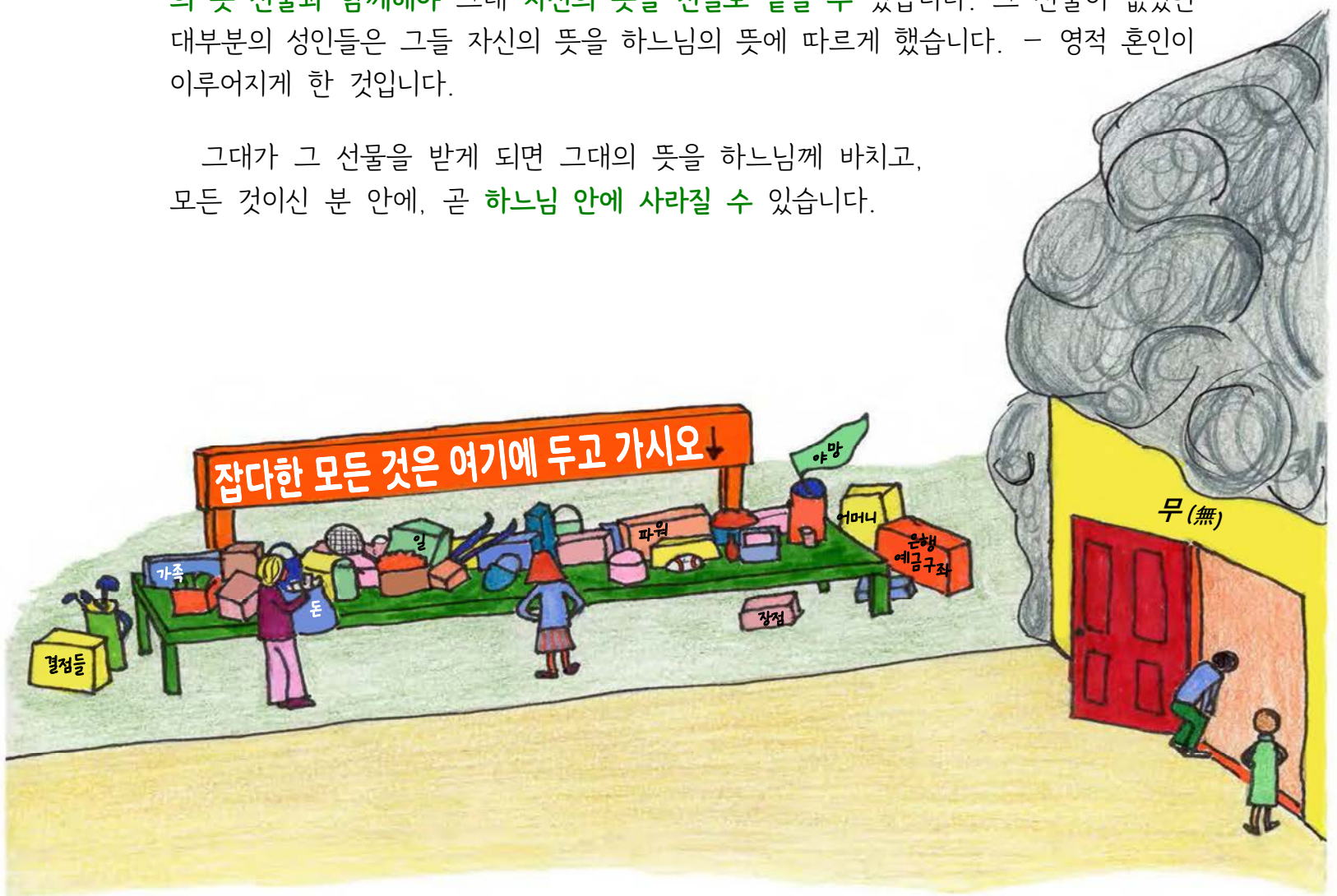
말김의 좋은 면은, 그대를 **무겁게 내려 눌렀던 것들**, 곧 청구서들, 골칫거리, 책임질 일들, 질병과 결점들도 그대의 것이 아니고 **전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태가 지각되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야망, 꿈, 구체적인 관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추한 것이든 일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삶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완수하면, **무의 어귀에** - 그 경지의 문간에 다다를 것이고, 이 문을 통해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 그대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영성의 몇몇) 기도 시작 부분을 즉,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를 실제로 **처음 체험**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교회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신자들에게 말김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선물과 함께해야** 그대 **자신의 뜻을 진실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없었던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들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따르게 했습니다. -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대가 그 선물을 받게 되면 그대의 뜻을 하느님께 바치고, 모든 것이신 분 안에, 곧 **하느님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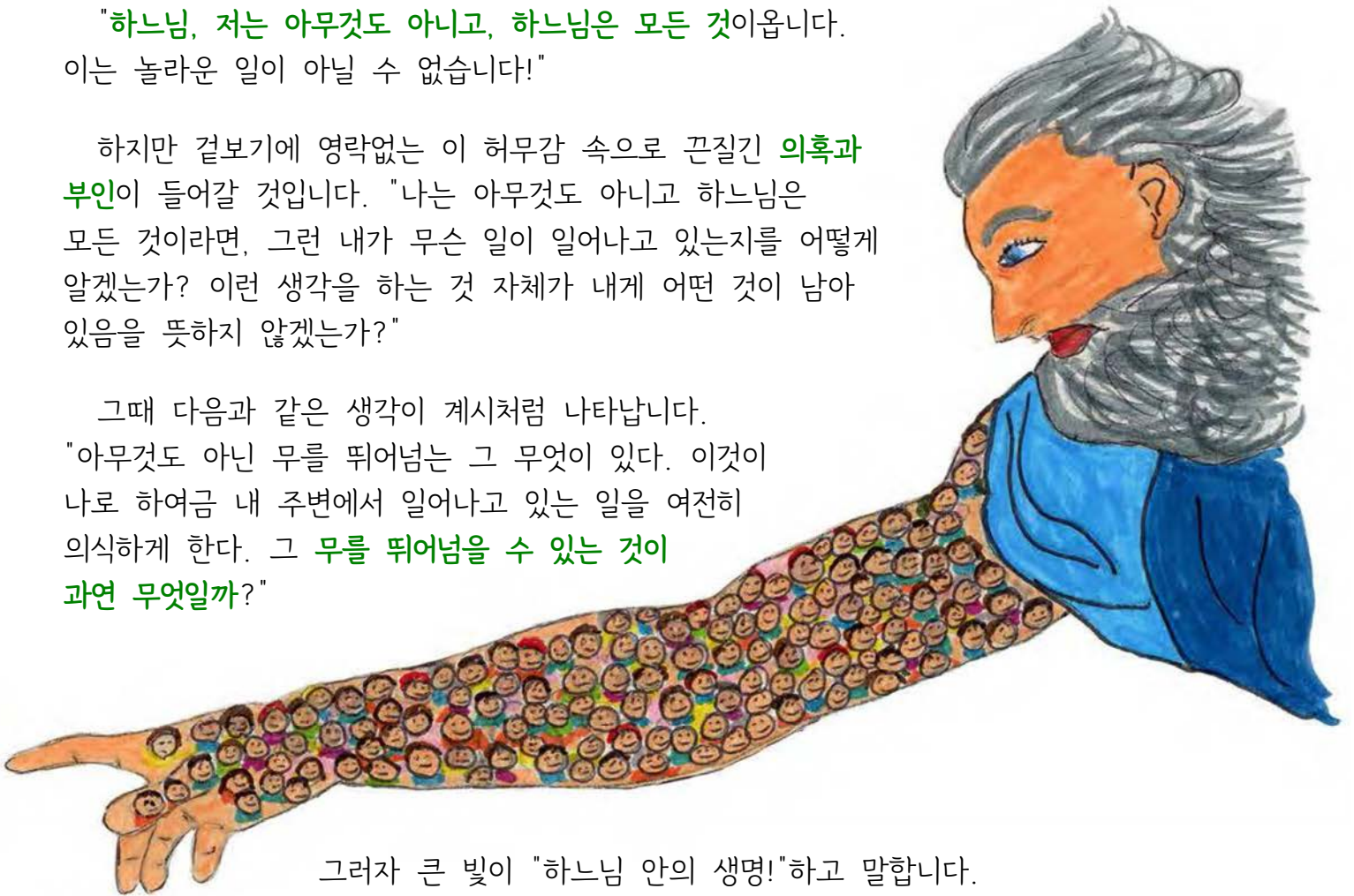


그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며칠을 거듭거듭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영락없는 이 허무감 속으로 끈질긴 의욕과 부인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라면, 그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어떤 것이 남아 있음을 뜻하지 않겠는가?"

그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계시처럼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전히 의식하게 한다. 그 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큰 빛이 "하느님 안의 생명!"하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대는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언제나 하느님 인성의 한 부분이 었다는 것, 곧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사람 -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는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하느님 뜻을 한몫 나누어 받았으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것'이니 '나의 것'이니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무엇이냐 다 '우리의 것' - 우리의 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고통, 우리의 꿈, 우리의 몸, 우리의 지혜, 우리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공유한 까닭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아무것도 하느님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일체 만물이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았다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이신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피조물로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이제 이 큰일을 시작할 준비를 합시다!

마침내 그대가 **하느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관계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뜻을 공유**하게 하시는 그대는 **그분 인성의 한 부분**이니 말입니다. 그대와 하느님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이든 상상적인 것이든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일랑은 극복하십시오.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뜻의 선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도록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서로 다른 개성과 별개의 목소리를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엄격한 주인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사실 그대로 완전하고 **애정 깊은 아버지**인 그분을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 그대 생명의 사랑이 되시어, 가르침과 격려를 주시며 대화를 나누실 것이고,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떠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를 떠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떠나는 것이 되니까요.

성령님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 고유의 특성은 그대에게 신비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성이 빛을 뿜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 **흥분과 놀라움과 유머와 감동을 자아내**시는 분이니까요.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소통에 나날이 더욱더 숙달되고** 있습니다. 결코 그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 **침묵의 언어**를 나눕니다. - **영적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술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 생각, 영상, 꿈, 또는 환시를 체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대가 정녕 하느님과 대화 속에 있는지에 대해 그대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싹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필요로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대는 **구체적인 표징들**을 받을 것이고, 그 대부분은 섬세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가 작은 것들 속에 계신 그분들을 알아보기를 바라시고, 이윽고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분들을 알아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대에 대한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리둥절해진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다종(多種)의 혼합된 (mixed) 메시지를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합시다.

바로 그 순간 MIXSIG라는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그대 옆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그대의 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대의 그 **느낌**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웃음**을 터뜨리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 **성삼위와 함께 4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 그대 자신의 **개인적이고 신적인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아버지**의 무릎 위에 기어올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실 때문에 슬퍼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바르게 행한 일들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를 최상의 빛 안에 넣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성령**의 가장 훌륭한 응원자가 되어, 이 시대에 땅을 새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 **만물과 만인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리니, 하루 중 세세한 것들까지 모조리 다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대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테니까요.

이 길 어딘가에서 그대는 드디어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집에 와 있구나!** 하느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나 내가 집에 와 있다는 것이나 다 **같은 뜻**이라. 여기에 내 가족이 있다.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집이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대와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이 한 가족**입니다. 그분들은 그대로 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그대는 그분들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대가 집에 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대 안에서 다스리시고**, 그리하여 그대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역동적이고도 신비로운 관계** 안에서 한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음**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징이 평화**라면, **행복**은 그대가 **하느님 뜻 안의 집에 와 있음**을 나타내는 **압도적인 표징**일 것입니다. 이 행복은 아담이 동산에서 하느님과 누렸던 것과 같이 그대가 **하느님 가족과 누리는 친교의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 하느님의 뜻 선물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아직 불행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대의 행복을 이룰 것입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동반을 받지 않고 탐구하기에는 너무나 큰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또한 그대가 그분들과 누리는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지러운 혼란이 그대 주변을 휩쓸고 있을 때에는 당신들과 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고통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과 그대의 고통이 **그분들의 고통**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온갖 악의 음모**가 걱정스럽습니까? 어쩌면 그분들께서 그대에게 모든 것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주실지 모릅니다.



드라이 토스트

- 공연 중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친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들과 비슷하게 그분들의 모습으로 창조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세 위격 사이의 친교 속에 계시니 그대도 같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대화가 없다는 것은 그분들과 친밀한 사이가 아님을 뜻합니다.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친교가 없는 것이고, 친교가 없으면 닮은 모습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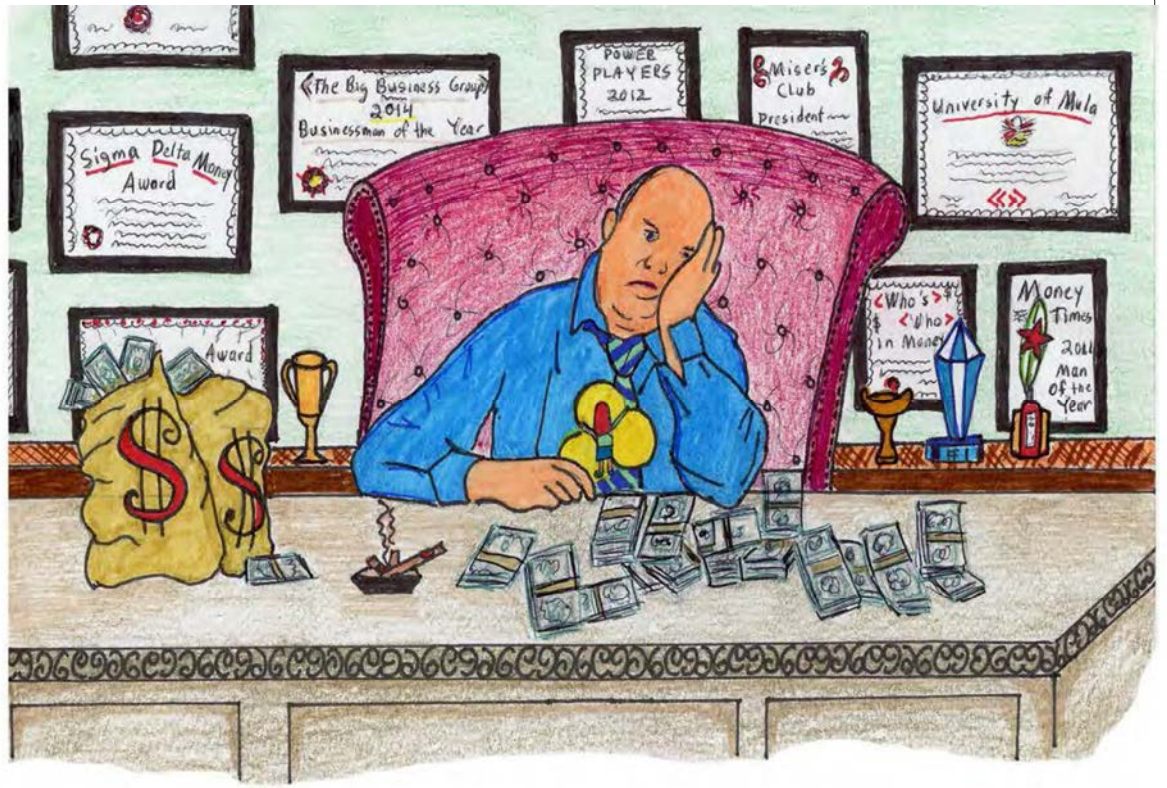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그분들께서 그대를 그만큼 더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대도 그분들을 그토록 좋아할 것입니다. 이 상호 사랑과 즐거움이 바로 창조 사업의 전(全)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느님과의 친교와 맞겨울 수 없습니다. 그대가 온종일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대의 은밀한 기쁨, 그대의 하늘과 땅이 되리니, 이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드라이 토스트처럼 (메말라) 보일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대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전쟁'이라고 하신 것의 한 부분입니다.

루이사의 책들은 모든 대화와 교환마다 또 그대가 알게 된 새로운 진리마다

제각기 **모든 영혼들과 모든 조물들 안에 반영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루이사 및 우리 앞 세대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루이사나 다른 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을 **우리는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즉, 그대가 **오늘 알게 된 진리**는 다른 이들이 이미 그대 안에 넣어 둔 것과 같은 진리이고, 이들이 **서로 만난 셈**입니다.

하느님 뜻에 대한 진리를 얻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군대가 있어서, **모든 영혼들 안에** 그 진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히 흘러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 안에 **거룩한 진리들이 축적**되면, 세상을 정점에 -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臨界點)에 다다르게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점에 다다르면 '**하느님 뜻의 나라**'가 **신속히 땅에도 도래**하리니, 땅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도래를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 행위의 중요성**을 알고 그 행위가 **모든 영혼들 안에 반영**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승리의 행위로 인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행위가 그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며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행위가 될 수 있겠으며, 또한 영혼들 안에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창조 사업의 목적**이 모든 영혼들 안에 신비롭게 울려 퍼지는 행위입니다.

그대가 (에덴) 동산에서처럼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대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을 영혼들 안에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도록 영혼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 무엇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니, 그렇게 **타고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의 행위들은 이 진리와 함께 영혼들을 마주하며 **마음들이 변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루이사에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들의 악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행위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분 '**사랑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전쟁'에 대하여 루이사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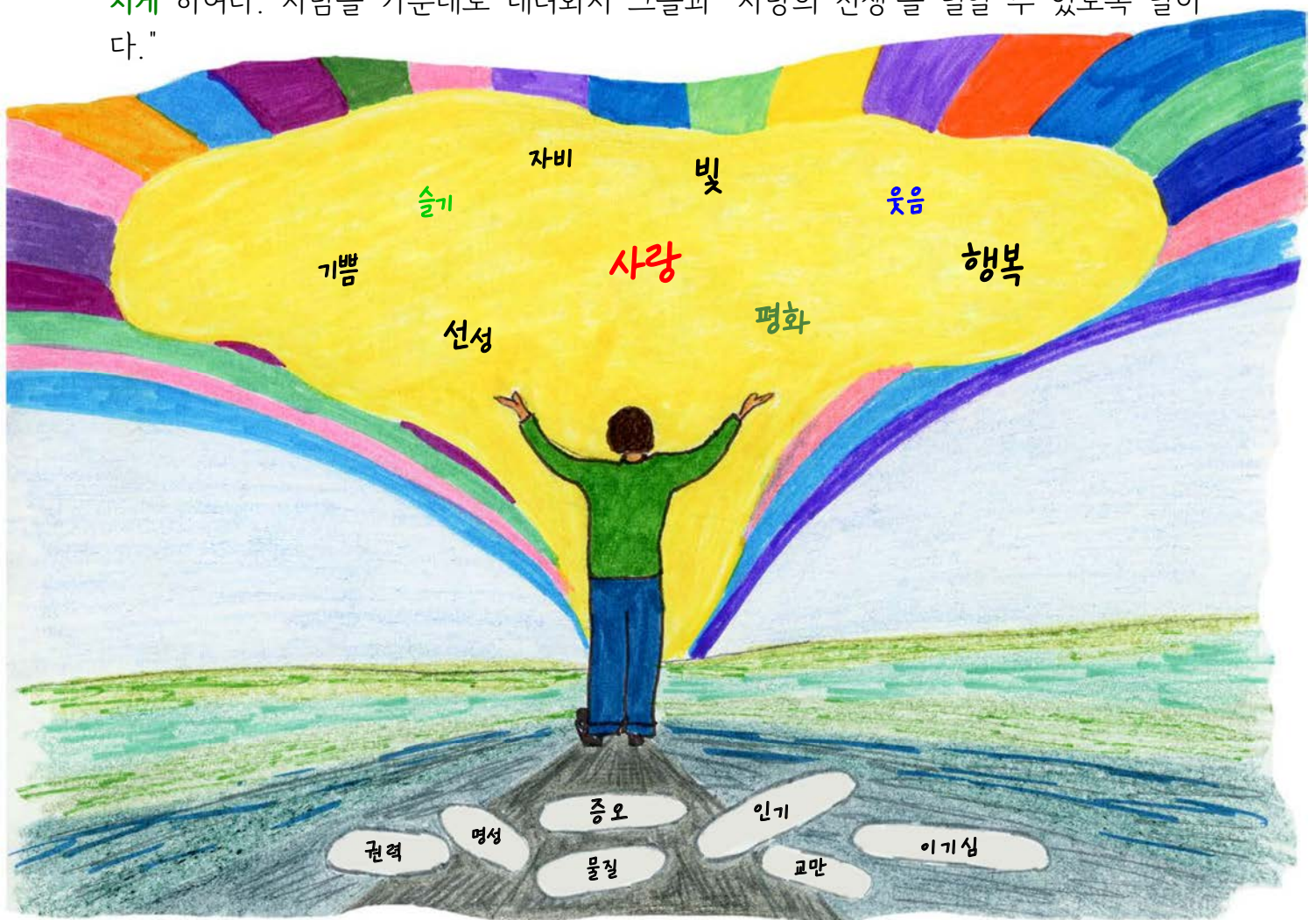
"딸아, 한 번 더 말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전쟁을 걸고자 한다. -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 - 하지만 그들이 **지칠 무렵이면 나도 전쟁을 걸겠다**. 악에 물리고 환멸을 느끼며 망상에서 깨어나 상실의 고통을 겪다 보면 그들도 나의 전쟁을 받아들일 태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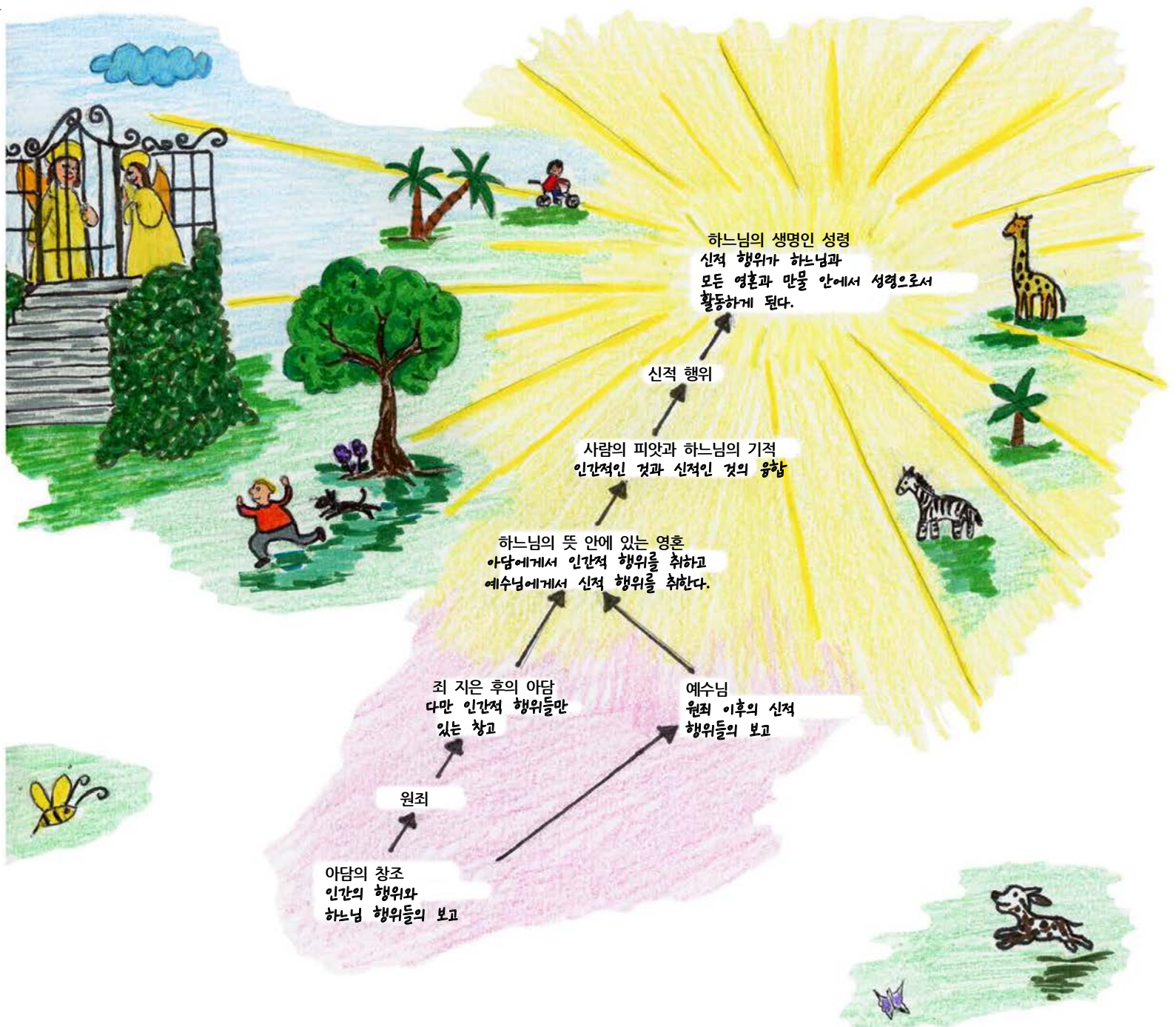
내 전쟁은 사랑의 전쟁이니, **내 의지가 하늘에서 그들 가운데로 내려올 것이다**. **내 의지 안에서 행해진 너의 모든 행위와 다른 이들의 행위들이**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터인데, 그것은 피를 흘려 가며 벌일 싸움이 아니다. **사랑을 무기로 쓸 싸움**이니 그들에게 **선물과 은총과 평화**를 줄 것이다. 배은망덕한 인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말이다."

"**나의 이 뜻은 하늘의 군대**로서 거룩한 무기로 인간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압도하면서 **빛을 줄 것이다**. 이 빛은 내가 인간을 부유하게 하고자 줄 선물과 재보들을 보기 위한 것이지, 악을 보기 위한 빛이 아니다.

내 의지 안에서 수행된 행위들은 그 내부에 **창조력**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새로운 구원**이 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땅에 가져올 것이다. **새 시대**를, **인간의 악에 대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런 무기와 선물과 은총들을 이룰 **내 뜻 안의 행위들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라.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와서 그들과 '사랑의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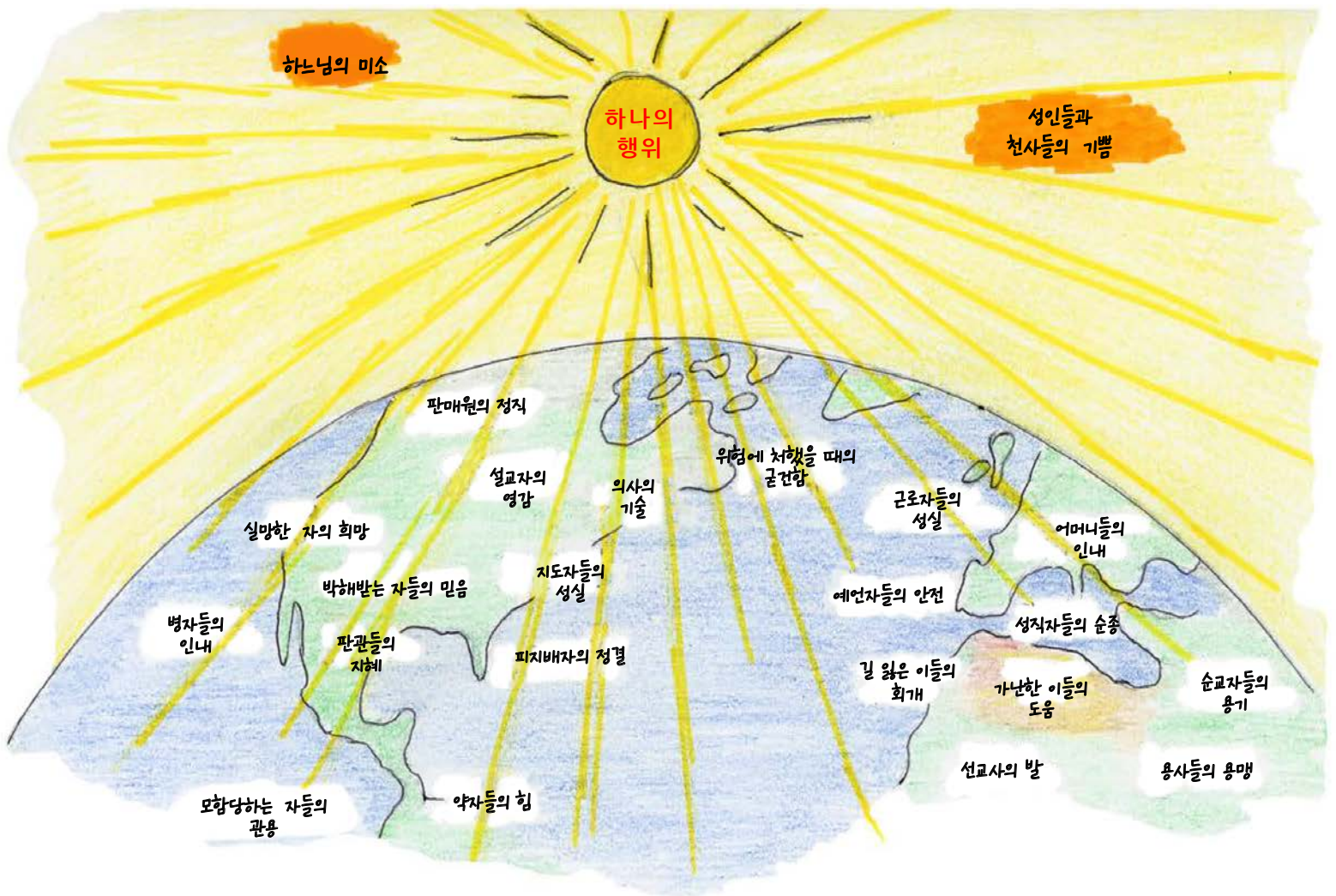


'사랑의 전쟁'은 이미 수천 년 동안 해 온 투쟁이지만,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이** 분명 **마지막 승리**를 가져올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 거룩한 행위들이 **땅을 성화**시킬 것입니다.

잠깐! **땅의 표면을 거룩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이들이 **성령의 일**을 빼앗을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성화는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서 **인자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돕게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피앗'으로 이 승리의 행위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루이사의 책에는) **우리의 행위들이 어떻게 하느님의 생명을 이루며** 모든 영혼들과 창조물을 덮을 만큼 **증식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화 사업**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느님의 뜻 안의 행위들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대하여 여러 번 설명하셨거니와, 그 구절들 가운데서 딱 한 구절만 찾아 읽어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는 하나이지만 **태양처럼** 모든 피조물 위에 빛살을 퍼뜨려 어떤 것은 **아름답게** 하고 어떤 것은 은총으로 **비옥하게** 한다. 또한, 얼어 있는 마음들은 **녹이고**, 굳은 마음들은 **부드럽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이들은 깨끗이 **정화**하며 불태운다.

이처럼 **하나인 행위가 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효과**를 내는데, 각자의 **마음 바탕이 준비된 정도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 안의 행위가 하나 더 증가하면 **모든** 피조물 위에서 빛나는 태양이 하나 더 증가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役事)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에 의해서 하느님의 행위가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위들이 바로 성령의 행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쟁' 속에서는 **사랑이 바로 성령**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셋째 위격(인 성령)께서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 위를 휘돌며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한 번 더 땅 위를 휘돌며 **원래의 질서대로 만물을 복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복되신 창조주시여...



교회도 더 이상 방관자처럼 옆에 앉아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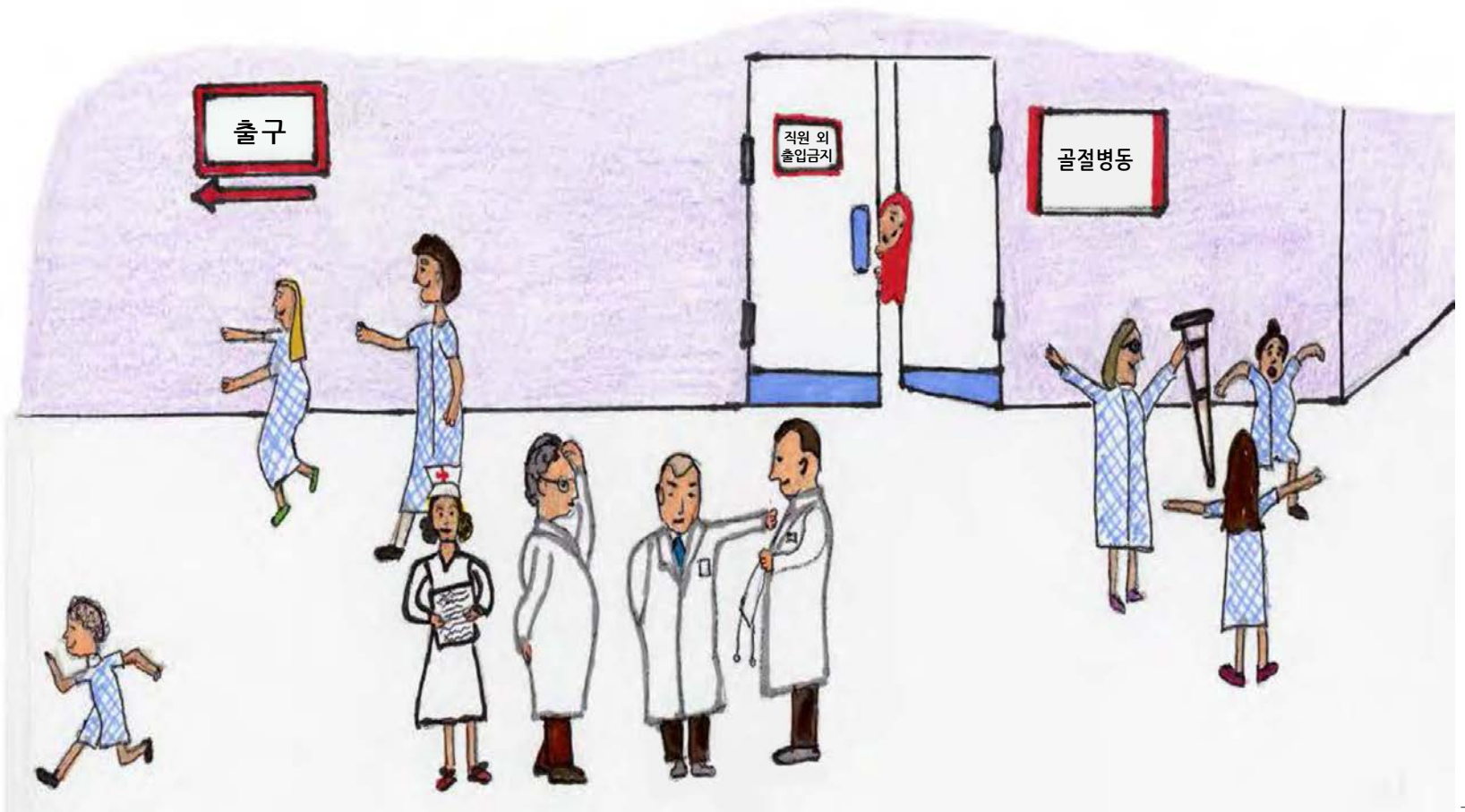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의 행동으로 하여 성령의 현존이 그 은사와 함께 땅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매일이 새로운 성령 강림절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이들을 위하여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오고 있습니다. 치유 봉사자들이 이 병동에서 저 병동으로 옮겨 다니면서 병자와 부상자들에게 안수를 해 주는 바람에 병원들이 텅 비기도 할 것입니다.

또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수의 비신자들이 응답하리니, 성령의 모든 은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히 쏟아질 때가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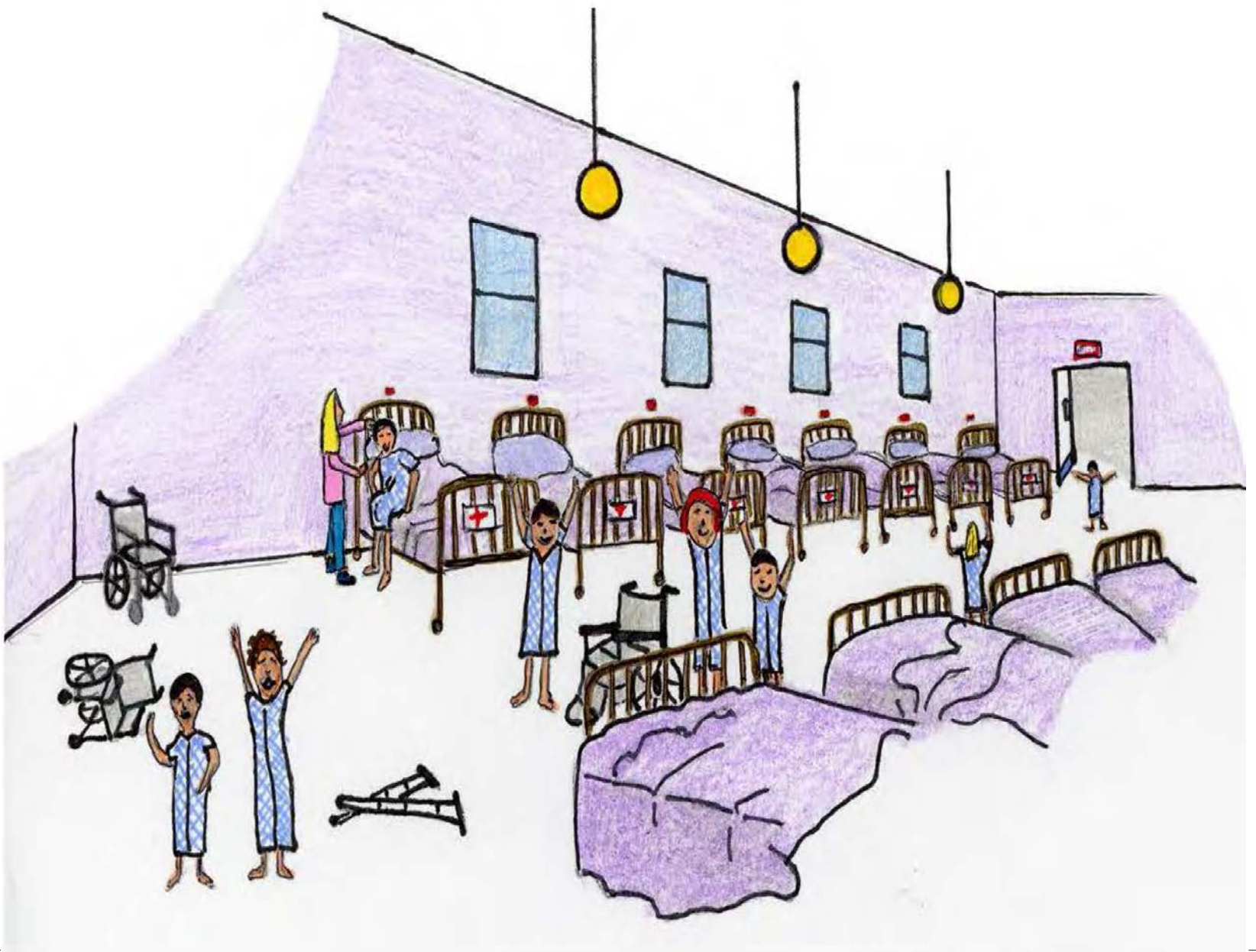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교사의 발이 되고, 설교자의 혀가 되고, 약한 이들의 힘이 되고...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적들 배후에 있는 기적들입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 한다.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느님처럼 은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깨끗하게 하는 바람이며, 태우는 불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통로에 불과한 반면에, 내 뜻을 행하는 그들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영혼이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나오는 능력과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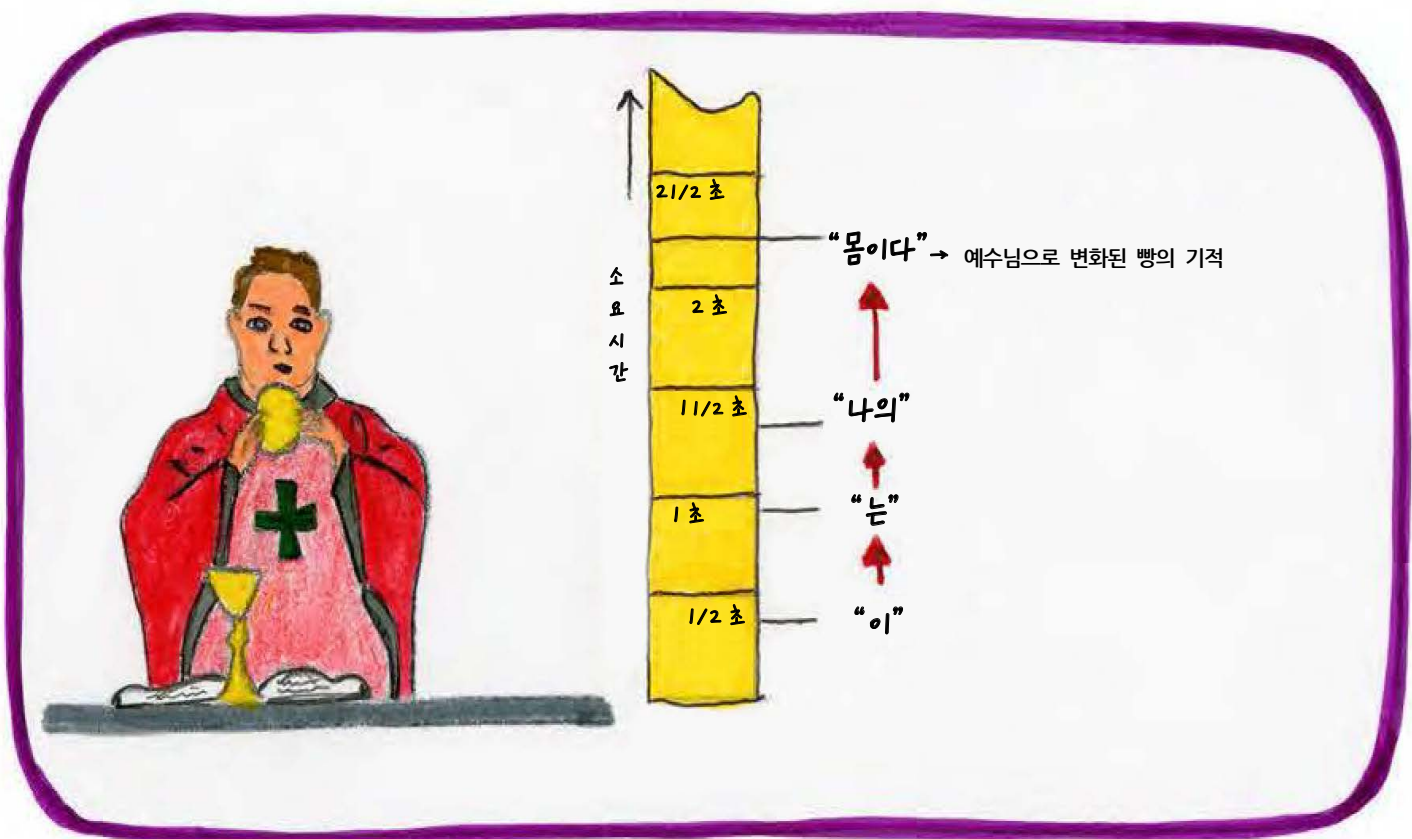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인간적 행위들을** 실상 가장 큰 기적인 **하느님의 행위들로** 바꾸셨습니다.

"내 거룩한 뜻의 더없이 소중한 딸아, **내 거룩한 의지**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기적**이다. 그 자신의 행위와 생명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조물의 비천한 행위 안으로** 내려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를 일으킬 능력은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내 의지**는 모든 것을 둘러싸는 능력으로 **어디든지 스며든다**."

피조물의 행위를 매혹하는 빛의 입맞춤으로 그것을 **감동과 변모와 일치**에 이르게 하고,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피조물의 그 행위 안에 **내 의지의 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도 **피조물**의 행위를 파괴하는 대신, 그 안에 **내 의지의 행위**를 심어 **널을 공간**으로 그 행위를 이용한다. 피조물의 행위가 내 의지의 행위를 기를 빈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것이 **인간적 행위**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놀랍고 거룩하고 **신적인 행위**가 - 크나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행위는 변하지도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의 힘)이 **인간의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와 분리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는 이 기적이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미사 성제** 중 빵과 포도주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니 말입니다. 즉, (누룩 없는) **빵인 제병**이 **예수님의 몸과 영혼과 신성으로 변화되지만** **빵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지만** 그 모양과 맛은 여전히 포도주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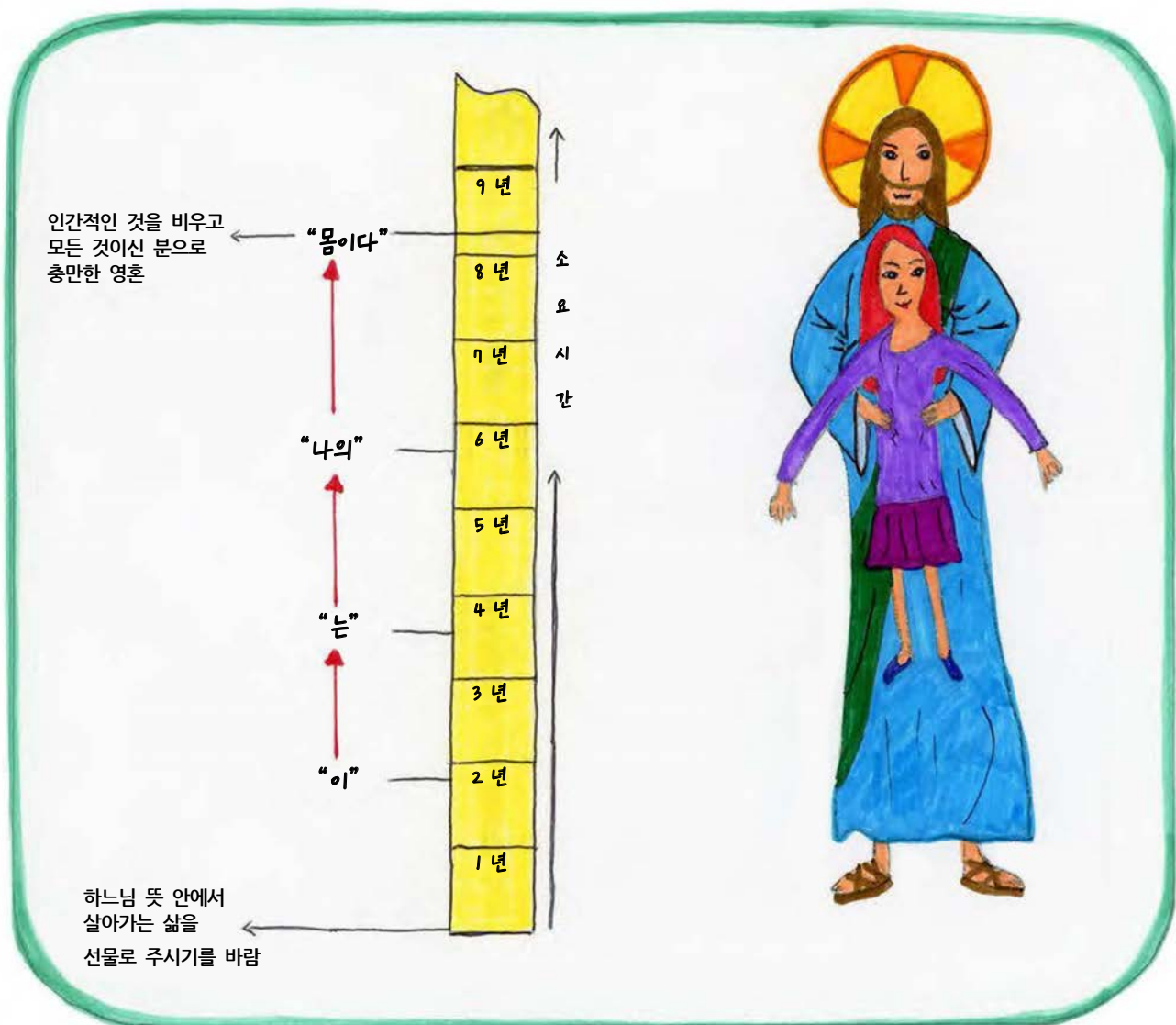


이는 또한 하느님께서 **당신 뜻 안에서 사는 영혼**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신화(神化)되며 살아 있는 성체**가 됩니다. 그러나 미사 때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을 축성**하여 살아 있는 **완전한 성체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빵과 포도주는 사제가 양손으로 거양하며 '축성 말씀'을 발하는 순간에 변화되는데 반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성하여 (그렇게 변모되게 하려면) **꽤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에는 제거해야 할 죄나 결점이나 나약이 없고, 하느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의지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흠 없이 **완전한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파괴되지 않고 **신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이신 분 안에 있는 우리 위치에서 **다른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고, 그들이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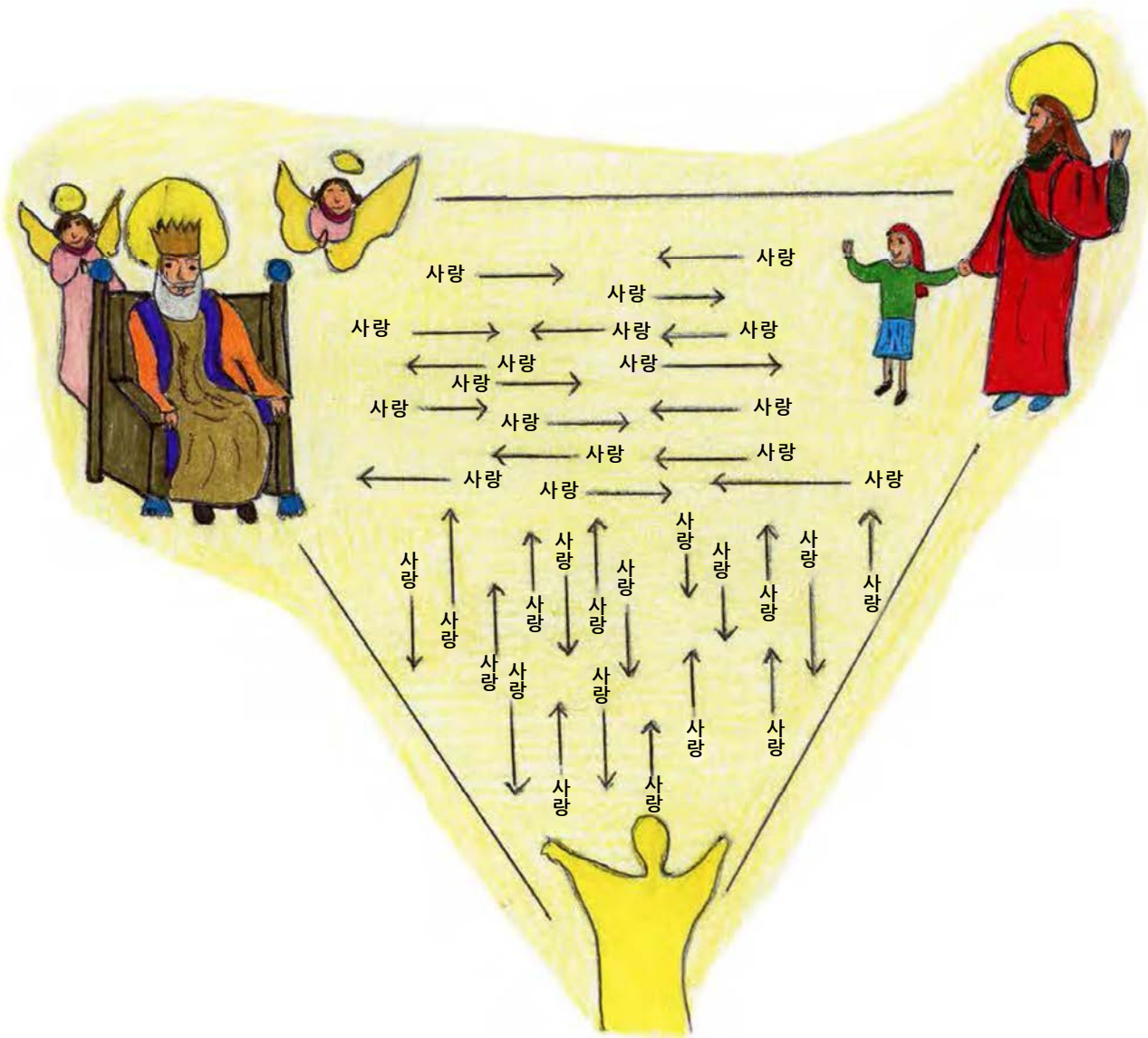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의미심장하고도 매우 놀라운 일은 **하느님 뜻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하느님 안에 거룩하신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가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나**이기에, 하느님은 삼위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삼위에게 본질적인 하나의 특별한 활동, 곧 그 **신적인 현동(現動)**은 하느님의 신성 안에서 삼위 상호 간의 **사랑의 교환**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데서 나오시는 **성령**이 다시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인즉,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는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교환**이고, 이 사랑의 교환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다시 사랑을 돌려줍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현동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그러한 **현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곧 성령이 나오시게 하는 그 신적인 방식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선물과 함께, 진실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창세 1,26 참조)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또 다른
내적 활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거룩한
회의입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말씀의 강생이 결정된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피조물을
대하실 때 입고 계셨던 정의의 망토를 무한하신 자비의
망토로 갈아입으셨고, '말씀'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기로 함께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찼음을 우렁찬 소리로 선포하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뜻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나누신 가장 뜻깊은 한 대화 중에
메시아의 강림을 간청하셨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내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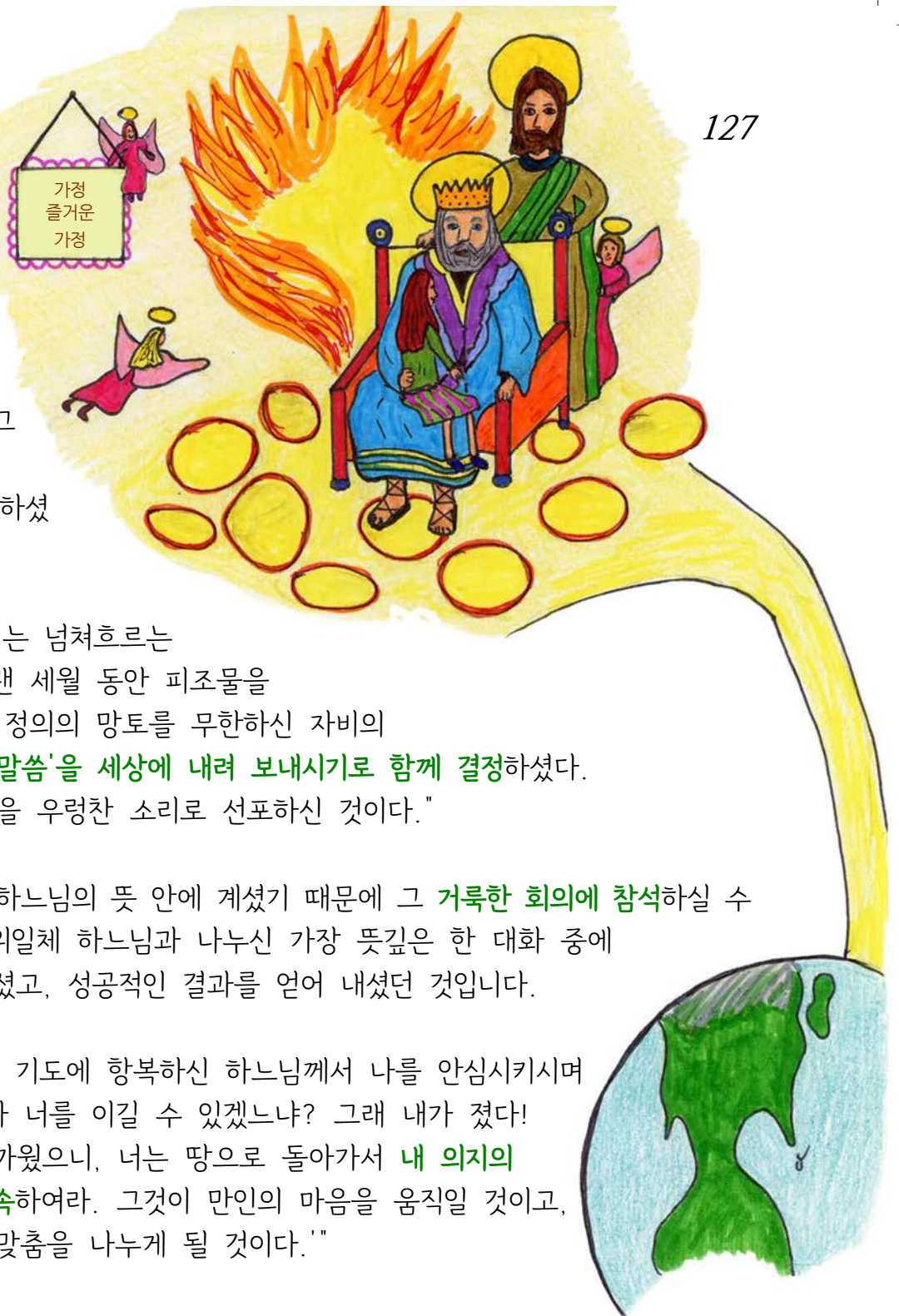
"이윽고 나의 눈물과 기도에 항복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누가 너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졌다!
이제 하느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는 땅으로 돌아가서 내 의지의
능력으로 네 활동을 계속하여라. 그것이 만인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늘과 땅이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게 될 것이다.'"

또한 루이사도 그 거룩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번은 아버지께 징벌을 보내지 마십
사고 간청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루이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열
개의 징벌을 다섯으로 줄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룩한 회의에 참석
하지 못하도록 멈춰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
고 루이사에게 "오, 성삼위께서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지!"하고 말
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그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내적 활동들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계시니, 바로 **외적 활동들**입니다. 이 외적 활동들은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나누이지 않고 **함께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성령께서 불 혀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같은 활동을 나누임 없이 함께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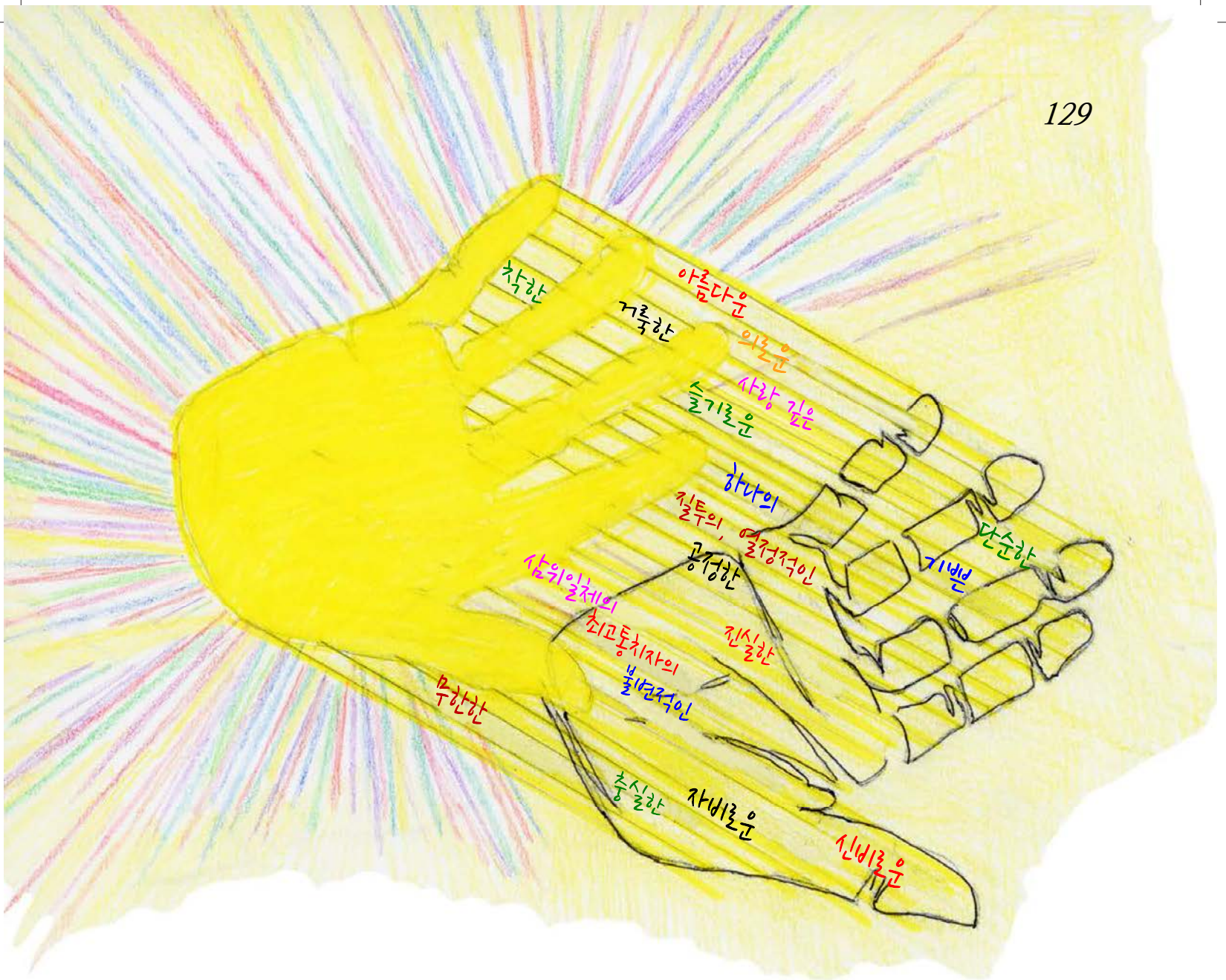
우리의 외적 활동들도 그분들의 것입니다. 그대는 일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홀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들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느님의 현동과 회의에 그대가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삼위 하느님과 함께 넷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활동이** 하느님의 현동과 회의 밖에서 일어나더라도 하나의 행위와 목소리로 일치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냅니다.

태양으로 하여금 그 빛으로 마룻바닥 위를 휩 지나가게 하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효과들을 내는데, 이제 그대가 그 행위와 목소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대와 **이야기**를 하면 - 너무나 놀랍게 보이겠지만 -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대와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또 어떤 이가 그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저러나 태양을 보십시오. 그대가 그분들과 함께 그것이 빛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느님과 그대가 내적이든 외적이든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모든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활동 중인 그대를 떠나시거나 그분의 활동에서 그대를 배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을 떠나시거나 배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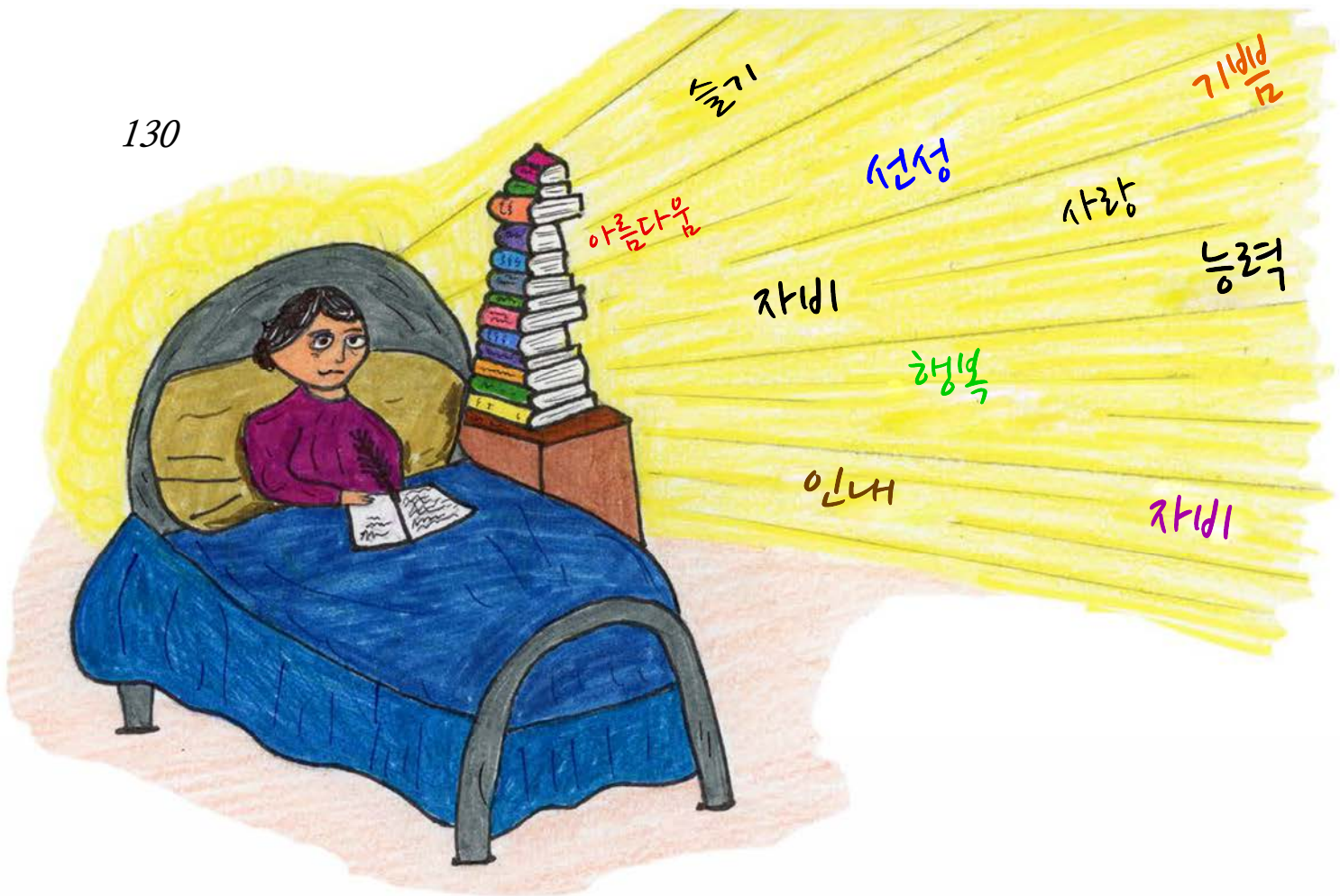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당신의 **속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느님은 영이시니** 그분의 **속성들이** 곧 그 분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 기쁨, 행복, 자비, 정의, 창조성, 유머, 선성 및 나머지 모든 것이 그분의 다리요 팔이며 손과 발이요 머리이며 다른 모든 **지체들**입니다.

그대와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짐에 따라,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느님의 속성들** 가운데에서 그대가 독특하게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대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이 **속성들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신성에 대항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원래 계획은 **인성이 신성과 불가분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재능과 다른 특성들은 **신화(神化)의 기적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괴되지 않고 **하느님의 속성들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하느님의 속성들을 받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바다들을 어머니 위에 쏟아부으셨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창조 사업의 여섯 날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잉태는 창조 전반에 걸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능가하는 일이었고,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피앗'으로 내 안에 그 여섯 단계에 이르는 일을 수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 안에 그분 뜻의 충만하고 전적이고 완전한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얼마나 신성의 높이에까지 들어 올리셨는지!"

루이사도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창조된 세계 안을 순례하면서 '거룩하신 피앗'이 그 창조물들 안에 이루신 업적들을 따라다니다가 에덴동산에 이르렀는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다. 사람을 빚으시며 주신 사랑과 선성과 거룩함 및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때 그분은 또한 그분 자신을 온통 사람 안에 쏟아부으시어, 사람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신적 특성들로 완전히 가득 차게 하셨고, 어찌나 많이 쏟아부으셨는지 밖으로 넘쳐흐를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에게 더없이 영예로운 일을 부여하기도 하셨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사랑과 선성과 거룩함과 능력을 활용하면서 바로 이 재산들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 신적 특성들이 내 안에 흠뻑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은 창조 사업의 그 날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뜻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바다들 및 **하느님 속성들의 바다들을 쏟아부으시게** 하겠습니까? 그 답을 루이사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창조된 만물 사이를 순례하는 동안 하느님의 속성들이 자신 안에 흠뻑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신적인 뜻이 인간적인 뜻을 내 뜻 자신과 내 뜻의 행위들 안으로 끌어당겨** 이 인간적인 뜻에게서 내 뜻 자신의 사랑과 흠숭과 영광으로 **사랑과 흠숭과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이, 오직 **내 뜻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내 뜻의 모든 행위들을 자기 자신 안으로** 끌어당긴다.

요컨대 신적인 뜻은 자기의 **거룩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물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느님의 속성들을 그대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과 성화 사업 속을 계속 순례**하십시오. 이들이 활동 중인 하느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대가 이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적인 활동들을 소유하면, 그때에는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그대의 영혼 안에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속성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들이 그분의 영광인 까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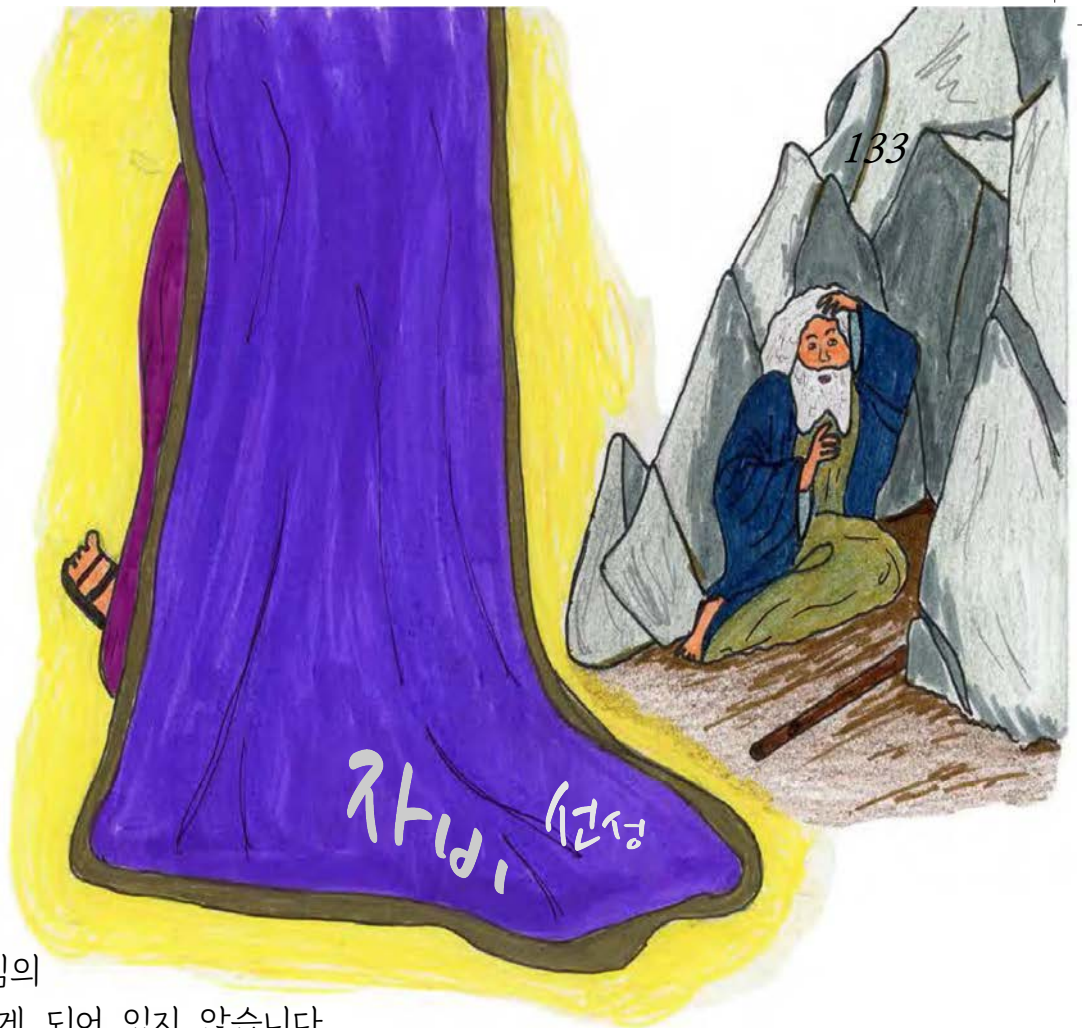
모세가 하느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청하자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루는 두 가지 속성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성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을 훔쳐 보기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기에 하느님의 속성들이 (곧 그분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그들의 속성이 바로 그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착한 천사들은 하느님의 능력, 정의, 사랑 및 다른 신적 속성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 속성들의 결핍입니다. 그들의 영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느님의 속성들의 결핍된 곳을, 텅 빈 공터를 만들어 냅니다. 죄가 바로 그 빈 땅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속임수, 죽음, 증오, 타락, 추악함, 공포 및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악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를 급습하려고 들면, 그때에는 이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대 영혼의 '하느님 나라'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 대신 그것을 불 심연으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고, 죄와 악의 빈 땅을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모든 신적 속성들로 채우는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루이사의 책들 속에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현동, 그분의 결의, 그분의 단일성, 그분의 속성들 - 바로 하느님이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선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과 완전히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대는 **하느님 뜻의 집**에 와 있으니 매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느님과 무엇을 함께**할 것입니까?

아마 이제껏 해 온 것과 같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선교를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도록 불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대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하시는 동안 복음 선포와 치유 및 기적을 행하셨고 다른 특별한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그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명이 그분의 임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귀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면 마귀들을 쫓아내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하라고 하시면 치유하셨고,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 계속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기에 - **그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순명은 하느님 뜻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임무입니다. -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을 하고, 말을 하라고 하시면 말을 하고, 들으라고 하시면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치유 활동**을 하라고 명하시면 그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치유가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대가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일을 했으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기적들은 상대방이나 다른 이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기적을 별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백십프로 신뢰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할 뿐이다.**" (요한 12,50 참조-역주)

아버지,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몇몇 사람을 치유할
것입니까?



아니다, 아들이,
대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도 너는
언짢아하지 마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사기꾼일 뿐인데, 대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겠습니다. 하지만,
저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 그들은 너를 믿는다.
치유해 주자꾸나.

언제나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대가 **하
느님의 뜻 선물로 충만하면 어떤 능력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 영혼 안의 **옥좌**를 차지하
시고 **모든 것을 그대와 함께**하시기 때문
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이, 이제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



저를 아버지 안에
넣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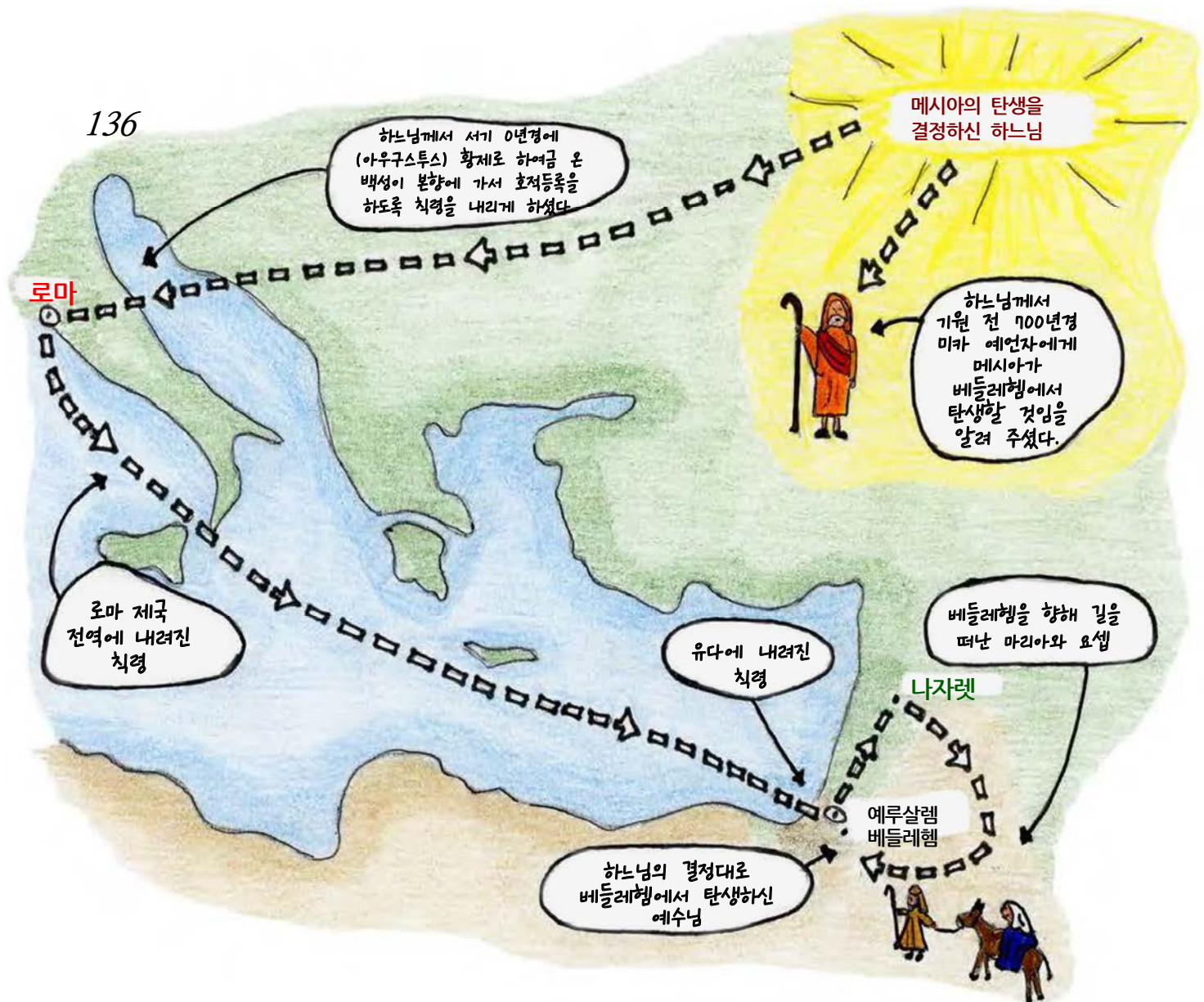
예수야, 내 아들이,
정녕 가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이루어질 것이니,
슬지 마세요



피앗!



그대가 하느님의 시력을 나누어 가지면, **하느님이 전부라는 진리**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 분명하게, 만인과 만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볼** 것입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그렇게 보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전부이며 죄는 (신적인 것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빈 땅임을 아신 것입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이라는 그 베일 뒤에 하느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식사 중에는 그 **음식**을 보면서, 또 들의 **나무들**이나 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당신의 창조물 안에 은밀히 **숨어 계신 하느님**을 보셨습니다. 샘터로 가서 **물**을 길어 올릴 때에도 그 물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고, 물 길어 올리는 여인들 안에서도 보셨고 ...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한평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그분은 그것이 **호적등록**을 하라고 명령한 로마 지도자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도에 맞게 **안배하신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도 그분은 그 수난의 배후에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은 하느님의 뜻이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함을 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삶 안에서 로마의 군사들이나 나귀를 타는 것에 (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이 매 순간 활동**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대를 공격할 때**도 그들의 그런 행위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 뜻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나자렛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뜨리려 했지만, 그분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유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자 그 유예는 철회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있소."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몹쓸 짓**을 했을 경우 그대가 그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를 허락**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대와 함께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한다면, 그대가 참으로 하느님 뜻 안의 집에 와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처럼 우리 영혼의 눈으로 사물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떨기나무나 나귀나 불이나 사람이나 또는 어떤 부류의 조물이나 그 물리적 모습 너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죽을죄 속에 있는 영혼들**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하느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즐겁게 지내시는 대신 그들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곧 **예수님의 수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가림막을 뚫고 들어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조물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는 하시지 않는지를) 넌지시 알려 줍니다. 활동적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현존 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이 만물의 존재를 보존하면서 그들의 첫 활동에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느님**은 (죄, 곧 그분 속성의 빈 곳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의 속성들이 그분 영적인 '몸'의 지체들이듯 **창조된 만물**은 하느님의 인성을 이룬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신적인 인성의 부분들이** 분명 **병들어 있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저 빈 곳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들이 (곧 이 인성의 건강한 부분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삶에 따라 '사랑의 전쟁'이 그 빈 곳들을 채울 것입니다.

창조된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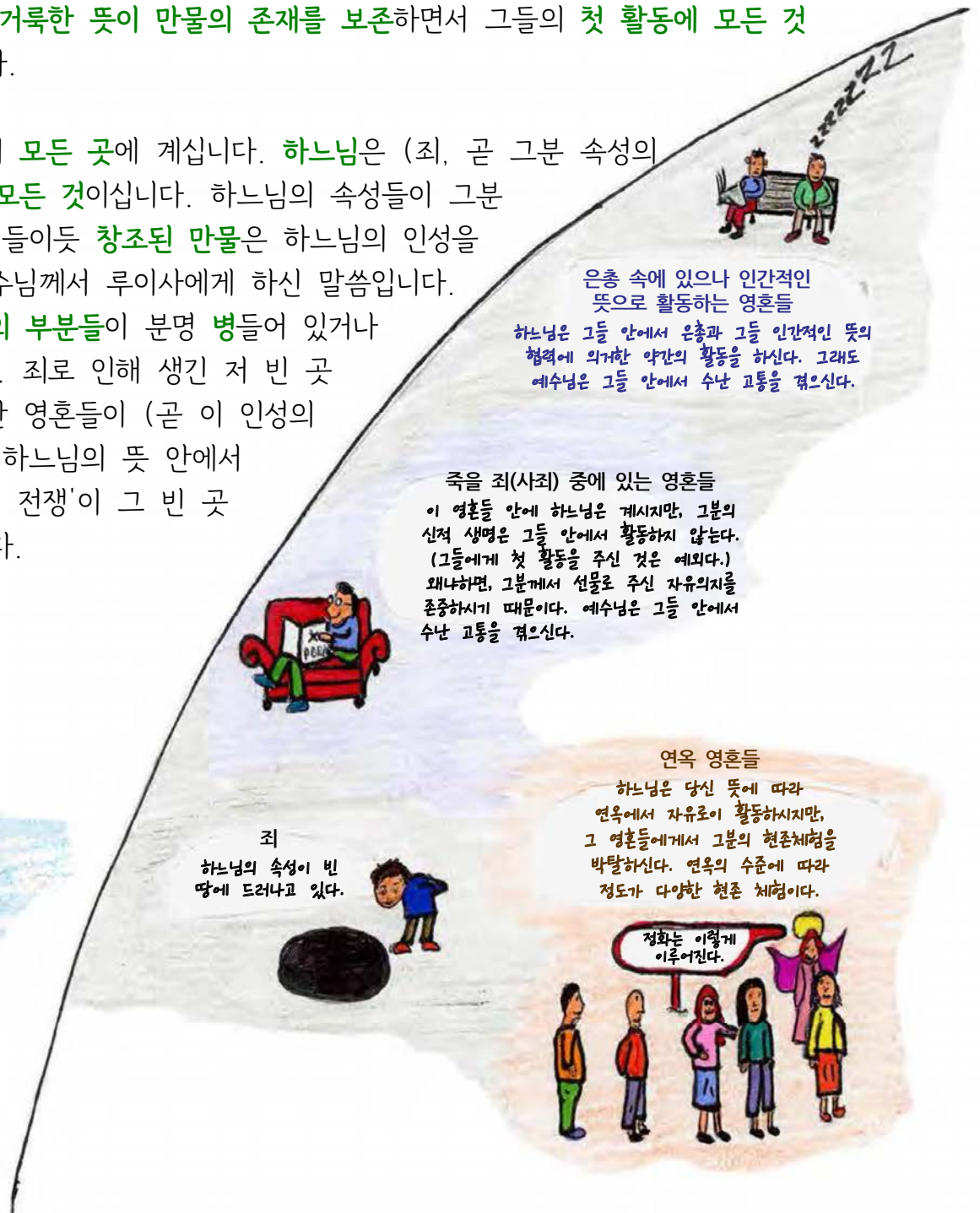
죄
하느님의 속성이 빈
땅에 드러나고 있다.

죽을 죄(사죄) 중에 있는 영혼들
이 영혼들 안에 하느님은 계시지만, 그분의
신적 생명은 그들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첫 활동을 주신 것은 예외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수난 고통을 겪으신다.

은총 속에 있으나 인간적인
뜻으로 활동하는 영혼들
하느님은 그들 안에서 은총과 그들 인간적인 뜻의
협력에 의한 약간의 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수난 고통을 겪으신다.

연옥 영혼들
하느님은 당신 뜻에 따라
연옥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지만,
그 영혼들에게서 그분의 현존체험을
박탈하신다. 연옥의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다양한 현존 체험이다.

정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천상에 있는 영혼들과 천사들
하느님은 충분히 활동하시고, 성인들은
지복직권을 누리는 초자연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하느님 뜻 선물의 완성에 다다른 영혼(집)
하느님은 하느님 안에 불가분적으로 완전히 녹아든 한 인성
안에서, 곧 그 거룩하신 현동의 또 하나의 센터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하느님은 그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혼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느님과 함께 활동한다.



에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말을 하는 나귀,
불기둥 및 다른 기적들

창조된 만물은 (인간과 달리) 하느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활동하신다. 하느님은 당신 뜻의 계획에
따라 자연적인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것
안에서 활동하신다.



하느님 뜻 선물과 함께 출발하는 영혼들
하느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뜻의 형식에 따라
여러관계로 불어나게 하면서 그들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며 활동하실 수 있다.



떨기나무, 나귀, 불 및 나머지 모든 창조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만물이 (인간과 달리)
하느님 뜻에서 떨어져 나간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보통 자연적인 것에는 당신의 활동을 제한하신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과 (악한)천사들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당신 뜻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하시지만, 이들에게서 당신의 현존과 속성들을 박탈하신다.
영벌에 처해지도록 단죄된 자들은 지상에 있을 때
여기를 택한 자들이니, 이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조
차 힘든 놀라운 진리** 하나를 루이사
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
느님께서 어디든지 계실 뿐만 아니
라, **우리도 하느님의 뜻 안에 살면
하느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다는 것**
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
기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도 하느님처럼 모든 것 속에 번식합니다. 떨기나무와 나귀와 불과 사람
과 다른 모든 것 안에 하느님과 함께 그대의 수가 불어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 안에 꼭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루이사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는 공간 문제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 하느님과 그분의 창조물이 거듭거듭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다는 사실 - 이 진리의 중요한 일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뜻을 선물로 받았다면, 모든 영혼과 조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들 안에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물 안에서 하는 그대의 이 활동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함께, 또 그대가 하는 **각각의 거룩한 행위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지못해 동의하는 영혼들** 안에서도 친히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느님을 도와드립니다. 그대가 하는 **하느님 뜻의 행위들**에 의해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대 또한 영혼들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수난 고통**을 덜어드리고, 하느님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분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 모든 활동이 결과적으로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죄인들에게 당황과 불안을 일으키고, 더할 수 없이 완악한 죄인들도 회개로 내몰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내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처럼 그대가 **하느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그분께서 그들 안에서 즐거워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영혼들이** 즉각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정복적인 행위**는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내리실 중대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에는 '**가라반달의 경고**'도 포함되는데, 이는 하느님의 뜻 선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그 '**경고**'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네 영혼을 보되 하느님께서 보시듯 볼 것**입니다.

범세계적인 그 **비추임의 순간**, 사람들은 자기들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들이 배치해 둔 **하느님 뜻에 대한 진리들**을 보는가 하면, **죄와 마귀들이 만들어 낸 빈 곳들**도 볼 것입니다. 이 마귀들은 그들이 신으로 받은 **거짓 신들**, 곧 **세속적인 것들에 붙어 있는 마귀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매 행위는 더욱더 들떠 있기 마련입니다. 때가 차서 '**나라**'의 도래가 **가까워짐**에 따라,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영혼 안에 더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은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청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로 인한 빈 곳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전쟁**'으로 인해 영혼들은 더 이상 자기네의 실상을 부정할 수 없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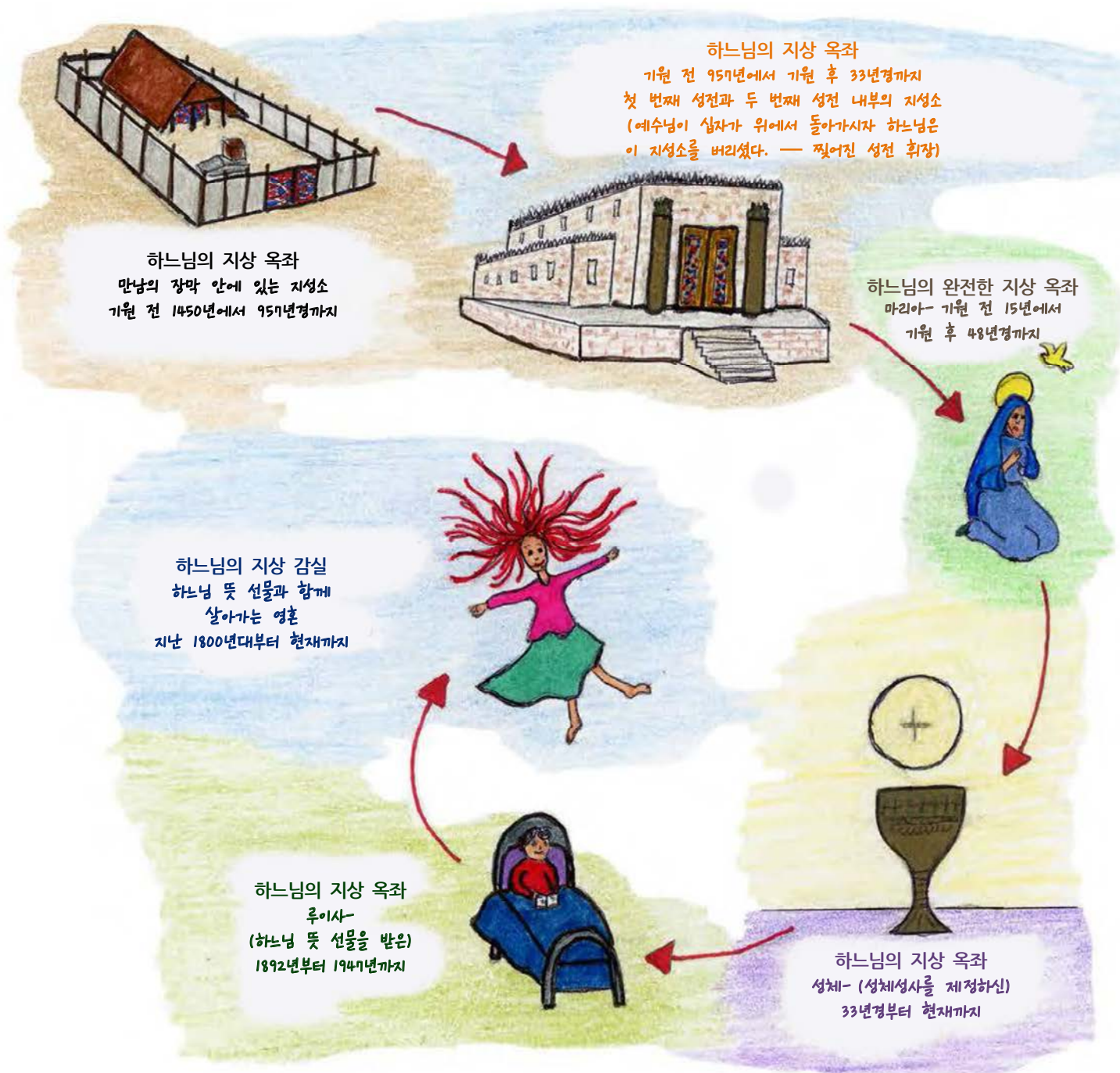


더 이상 죄스러운 세속적 생활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영혼들 속의 문을 여는 이들**입니다.

'사랑의 전쟁'의 그 일면과 또 다른 면들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 선물**이 '**하느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비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제각기 삼위일체 하느님이 즐기시는 아주 **멋진 동산**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동산은 하느님께서 **옥좌**에 앉아 계시고 **자녀들**과 나머지 조물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에덴동산**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하느님의 모든 지상 거처들**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체조차**도 그분의 궁극적인 거처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생각해 오신 **살아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성전이 영혼들 안에 건설될 때**, '**하느님의 나라**'가 창조된 만물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천**



국의 충만함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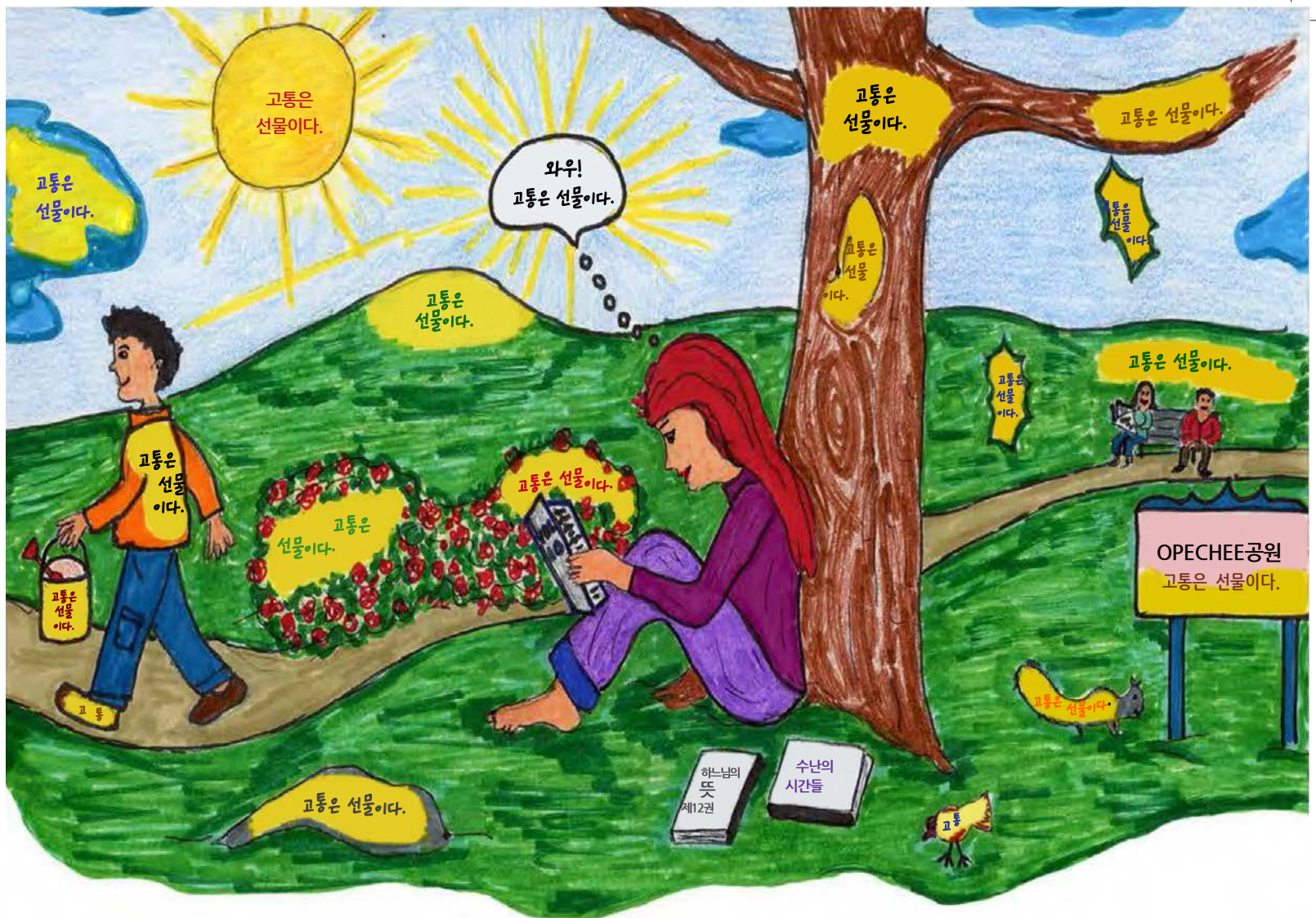
'사랑의 전쟁'을 하는 동안 그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느님의 뜻을 주목**하십시오. 특히 우리 시대에는 사실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 루이사가 환시에서 본 그대로 - '다리를 하늘로 치켜올리고' 머리를 '땅에 댄' 채 '거꾸로 선 자세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세상의 모든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피다 보면, 정신이 마비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루이사에게 그 무엇도 그녀의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그녀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고 **가르침**을 주실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뉴스**에서 눈길을 돌리고, **신문**들을 던져 버리십시오. 피비린내 나는 **최근 뉴스의 세세한 내용**까지 그대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불평분자들, 험담을 늘어놓는 자들, 전쟁 도발자들을 피하는 대신,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과 그대 안에서 하시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이는 세상이 주는 권고와는 정반대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박식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그대는 과연 **세상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동, 갈등, 범죄, 테러, 정치 및 다른 세상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기를 원하지만, 하느님의 승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성 바오로는 바르게 처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선한 것,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등을 생각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권고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느님을 생각하십시오."이고, 이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땅 위 저 높은 곳에서 살며 아래를 굽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는 행위마다 모든 피조물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는 영혼들 안에서 하느님 뜻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선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세계 국가라는 무리가 꾸미는 또 다른 음모의 구체적인 내용도 그대가 볼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그러나 곧 평화를 위해) 내려올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려면 그대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주변의 대혼란이 그대 안에 가득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내 인성은 하늘과 땅 사이의 중간**에 매달려 살았다. 온 땅을 내 아래 두고 온 하늘을 내 위에 둔 채. 나는 그래서 **나의 모상**이 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내 인성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지주**이다. 나 자신의 팔이 너를 지탱한다. 내가 너를 안아 **공중에 매달고 내 팔 안에서 살게** 하므로 가장 긴요한 것만 네게 달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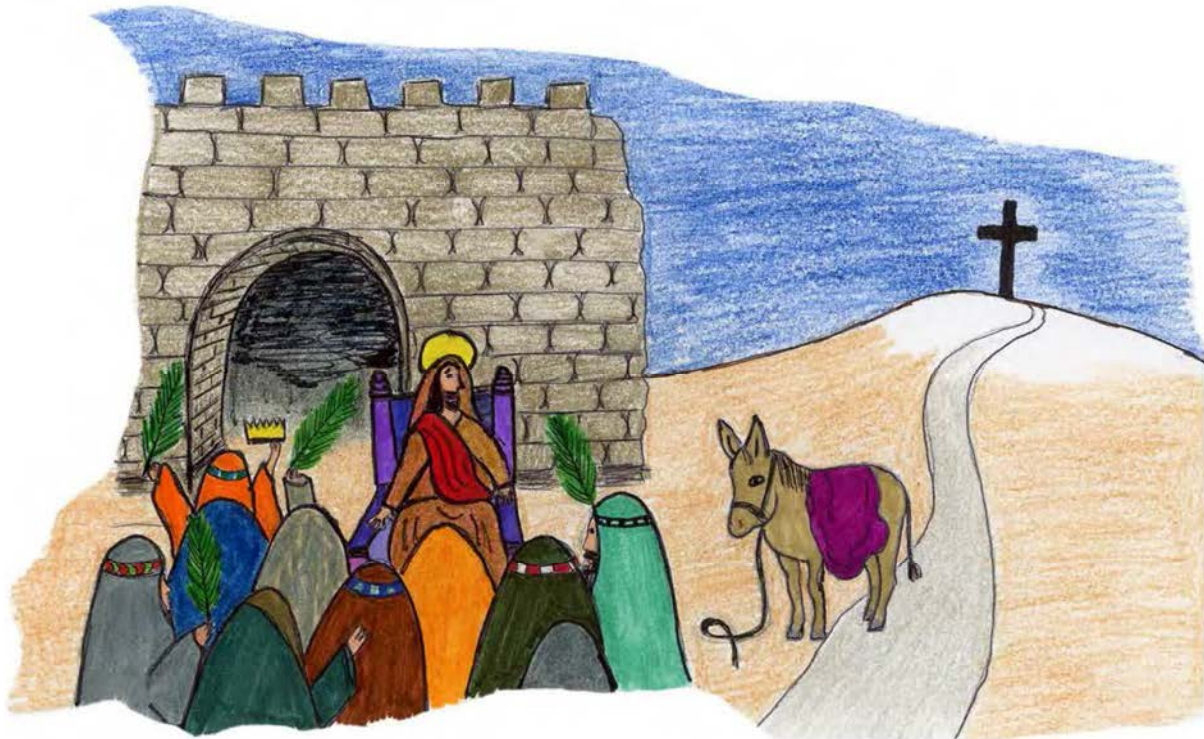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해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천박한 것이고, 그의 고상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어쩌다 **인간적인 의 것거리**가 주어지면, 그는 인간적인 것의 악취를 맡고 멀리 치워 버리기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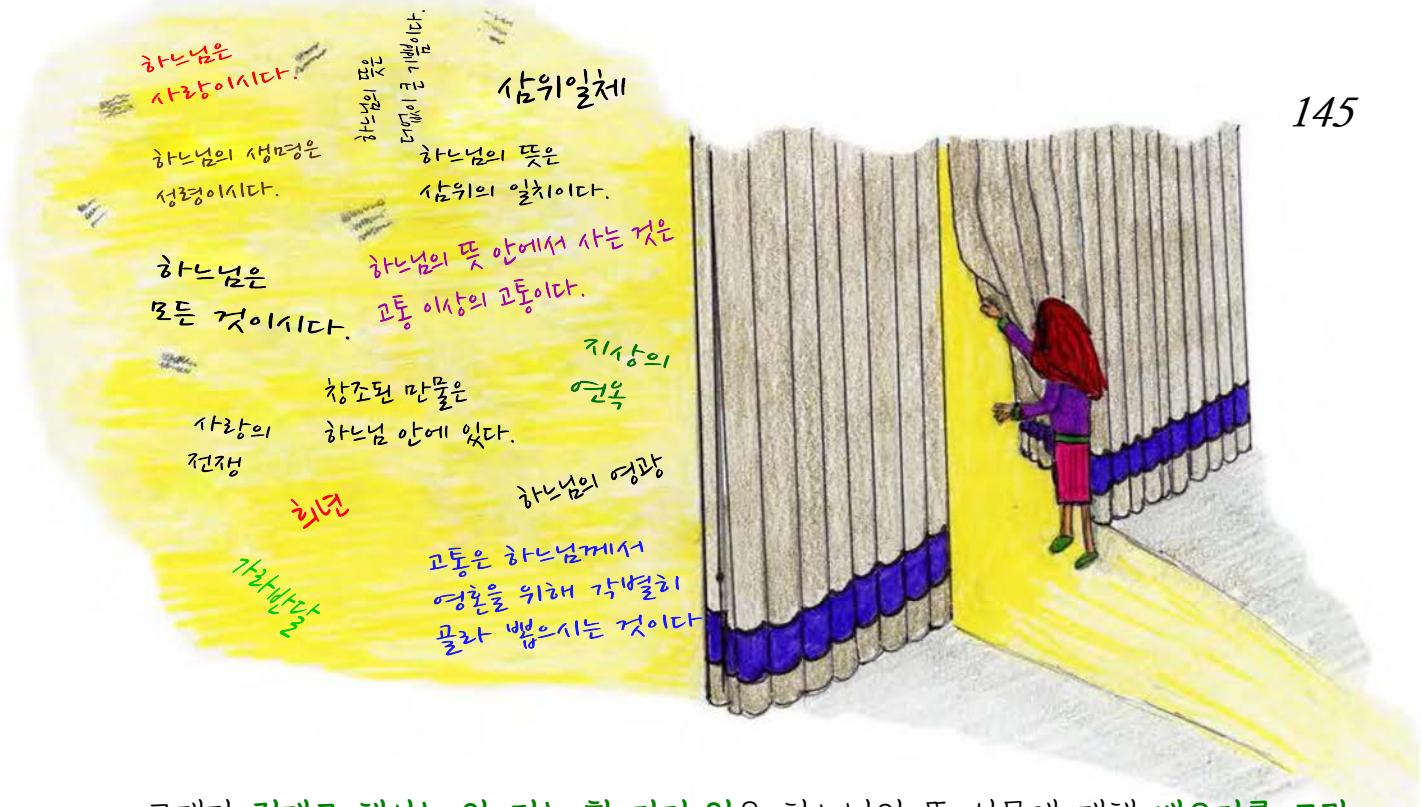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무는 것 -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천박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데 **천박한 것**이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이름난 사람**에 대한 숭배 충동, **최신 유행**의 의상을 입는 것,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그리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 극단적인 처신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대가 공중에서 살면 그런 것들을 쉽사리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민감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런 것들의 **인간적인 악취** 역시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꿈의 지위**'가 제공된다고 해도 그 지위가 그대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속하지 않는다면 천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그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천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대신, **이 '꿈의 지위'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은 하느님의 뜻 선물에 대해 배우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느님께 질문도 계속하십시오. '사랑의 전쟁'을 통해 그대가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진리**는 저마다 만인과 만물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서 그대 자신의 **영혼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무르익게** 합니다.

"사람을 내 '**거룩한 피앗**'의 빛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이다. 그 지식이 씨앗이고, 이 씨앗이 피조물 안에 태어나는 내 '**거룩한 피앗**'의 생명의 시작이다. **각각의 지식**이 여러 모금의 생명을 마시는 것 같아서 피조물 안에 그 '**신적인 생명**'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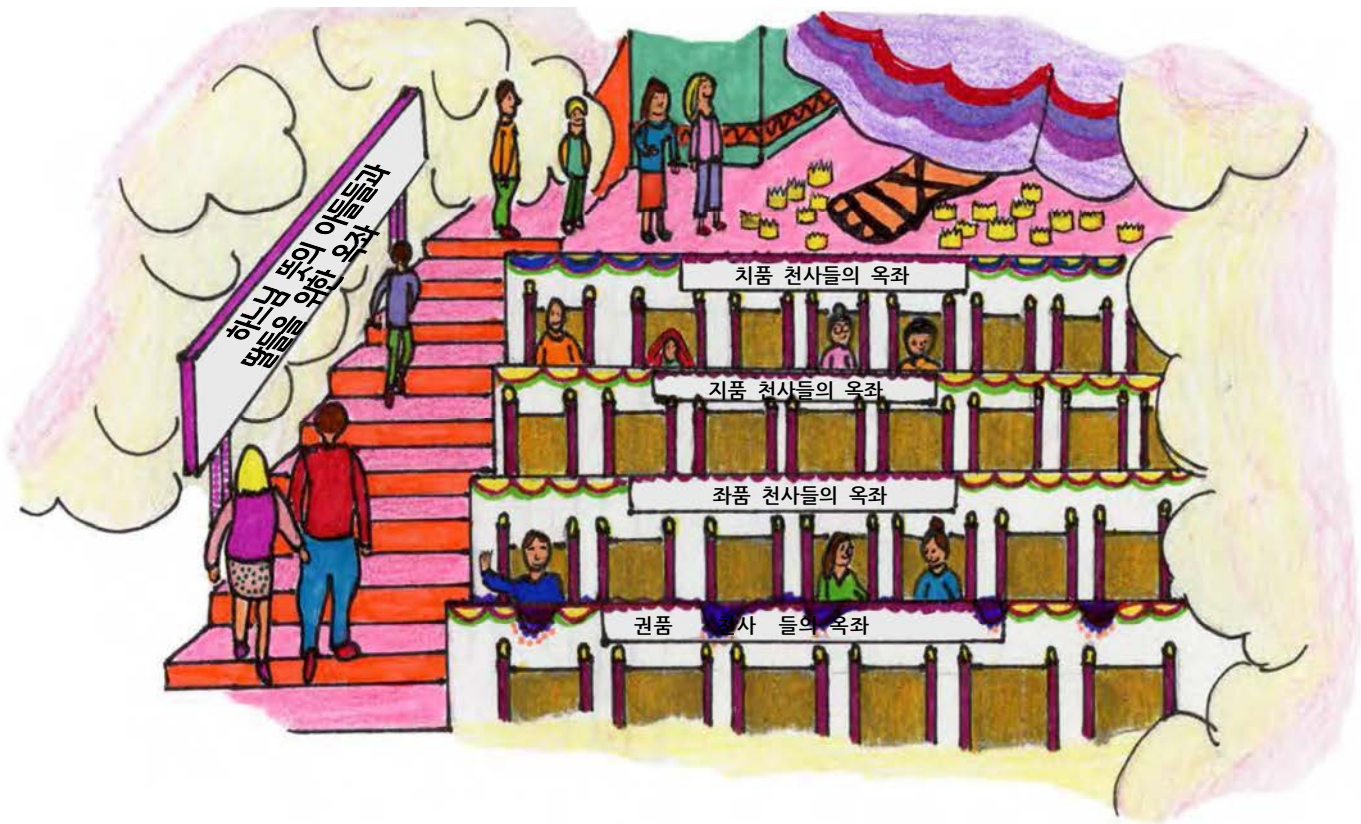
그 지식들은 영혼들(의 품성)을 도야하면서 **인간적인 뜻의 악한 불을 꺼 버리기도** 한다. 내가 너에게 내 거룩한 뜻에 대한 지식을 그토록 많이 일러준 것은 결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니고말고! 그것은 이 뜻에 대한 **지식을 먼저 네 안에 형성한 다음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도 형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이 '신적이고 온전히 천상적인 지식'이 **알려지고**, 그것이 '거룩한 피앗의 생명'을 **성숙시켜 '피앗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비록 그대가 하루에 한 구절을 읽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직접 배우거나 하여 **매일 새로운 진리**를 하나만 배워 익힐지라도, 그것이 그대에게는 **성숙의 정도를 한 단계 더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 걸음 더 '**하느님 뜻의 나라**'에 **다가가게** 합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감춰져 있었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 안에 삶으로써** 하느님 뜻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느님의 감각 능력**을 얻는다. 먼 데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얻고, 매우 날카롭고 투철한 빛으로 스스로를 하느님 안에 정착시킬뿐더러 이 하느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루이사가 자기의 책 제36권의 마지막 구절을 쓰기 38년 전, 예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실 극히 높은 경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 안에서 무료 돌아간 영혼은 완성의 단계가 극히 높아서 마치 하느님처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영혼 안에 그 자신의 뜻은 이제 살아 있지 않고 하느님 자신의 뜻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 및 그분 소유의 다른 모든 덕행들을 지니게 된다고 해도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너로 하여금 그런 완성에 도달하기를 열망하게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마음이 들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넉넉하리라. 즉, 오로지 나의 뜻으로만 사는 경지에 도달한 영혼은 모든 여왕들 중의 여왕이다.

그의 옥좌는 아주 높은 곳에 있기에 영원하신 분의 옥좌에까지 이른다. 그는 지극히 영화로우신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나누시는 사랑에 참여한다. 이 영혼 안에 거룩하신 분께서 계심을 알아보면, 모든 천사와 성인들은 얼마나 그를 공경하겠느냐! 사람들은 얼마나 탄복하고, 마귀들은 또 얼마나 무서워하겠느냐!"

이에 대하여 루이사는 예수님께 즉시 이렇게 응답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응답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언제 저를 그러한 경지에 다다르게 해 주시렵니까?"

실은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첫째로, 이 선물에 대한 지식을 모으지만 말고 그대가 배운 진리들을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협력'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보내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마침내 그 대망의 약속 성취를 확보한 것은 복되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일이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2천 년 동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간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십사고 아버지께 간청하셨던 때와 같이 세계 역사상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그분의 천상적인 약속이 하루 속히 지상에 내리게 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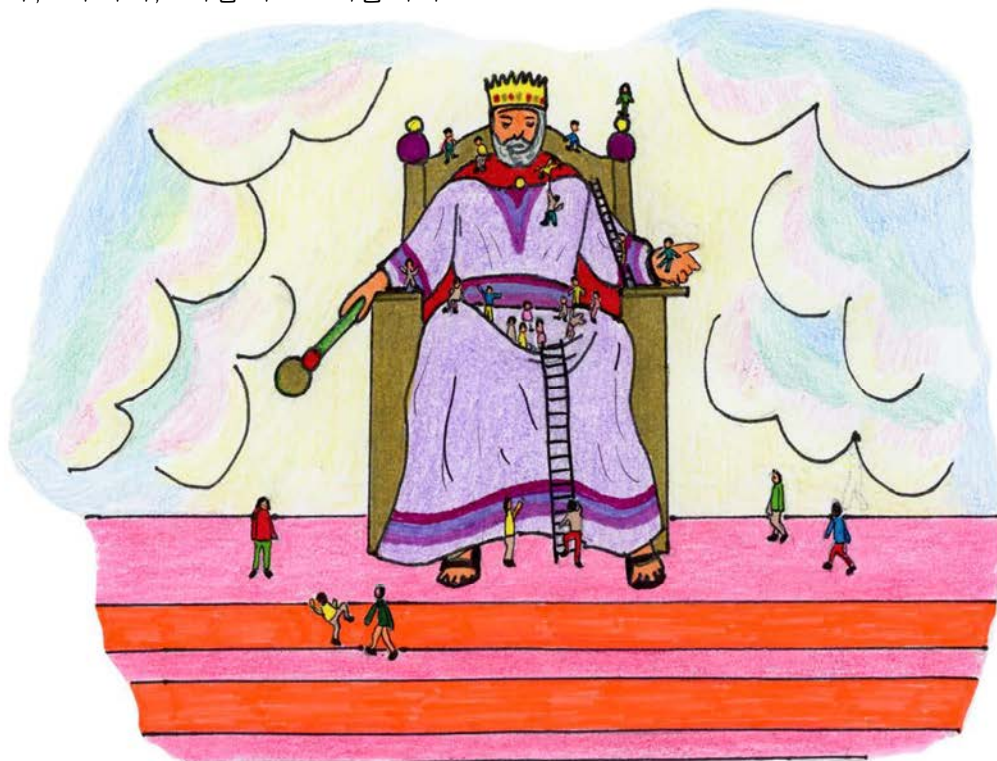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사랑의 사슬로 아버지의 의노를 가시게 하고, 그분께서 마리아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내 거룩한 뜻의 자녀들아, 누가 너희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졌다! 이제 하느님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과 협상할 수 있는 그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이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우리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가 우리 자신도 지배하게 하였다. ... 오!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그를 이기게 했던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 대신에 피조물 안에 있는 우리의 뜻이 승리를 거두게 하곤 하였다."

하느님 뜻의 끝없는 바다 안의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의 어디쯤 그대가 와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마땅히 저희 임금님의 영광스러운 돌아오심을 준비하오니,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그때입니다!"





♪ 태양처럼
 밝게 빛나면서
 우리는 오랜 세월
 거기에서 살았다네.
 날이면 날마다
 첫날과 다름없이
 하느님 찬미의 노래를
 불렀다네. ♪



점 검 표

♥ 영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네 가지 표

- ☒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 ☒ 자기가 이미 받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네 가지 선물



- ☒ 기도의 선물 : 그 영혼의 기도는 **보편적인** 것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만물이 함께할 정도로 **큰 능력**을 펼친다.
하나님의 속성들도 함께하신다.
- ☒ 사랑의 선물 : 새로운 사랑, **한결같이 성장**하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한다.
- ☒ 불가분의 선물 :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이**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된다.
- ☒ 승리의 선물 :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진 영혼이어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긴다. 이 영혼 안에서는 **일체가 승리**이다.
은총의 승리, 성덕의 승리, 사랑의 승리이다.

하나님 뜻 반석



..... 99쪽

제28권: 1930년 4월 1일 (하느님 뜻 안의 행위를 많이 할수록 신적 생명의 성장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 **제36권**: 1938년 12월 5일 (하느님의 생명이 형성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 피조물) **제16권**: 1923년 11월 10일 (하느님의 뜻 선물은 영혼이 상실한 고귀성을 돌려준다) **제4권**: 1901년 2월 17일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느님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26권**: 1929년 5월 16일 (아담에게 하셨을 말씀을 루이사에게 하신 예수님)

..... 100쪽

제32권: 1933년 3월 19일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함) **제32권**: 1933년 4월 29일 (왕녀의 신분에서 유배자로)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제12권**: 1921년 2월 22일 (하느님의 성화 사업을 완성할 '피앗') **제29권**: 1931년 8월 10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 103쪽

제33권: 1935년 5월 14일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는 곳에서 그분의 신성을 느끼는 피조물) **제33권**: 1935년 3월 10일 (하느님의 뜻이 비어 있는 곳을 채우기 위한

지상 연옥의 필요성) **제33권**: 1935년 11월 5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는 내면에는 또 다른 예수님이 자라실 수 있다)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 뜻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옥좌에서 영혼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느님의 뜻)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영혼을 다스리며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6권**: 1905년 10월 10일 (고통 중에 미소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받으시지 않게 할 수 있다.)

..... 104쪽

제29권: 1931년 4월 2일 (인용된 부분) 『... 수난의 시간들』: 제17시간 43-45 참조 **제29권**: 1931년 10월 8일 (신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만이 흠 없고 정연하며 완전한 행위로 드높여진다) **제6권**: 1905년 3월 16일 (진정한 말김은 하느님 섭리의 안배를 받드는 것) **제6권**: 1905년 4월 9일 (완전한 말김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 영혼을 온전히 정화시킬 수 있다) **제8권**: 1908년 2월 16일 (고통에 대한 인내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다)

..... 105쪽

제7권: 1906년 10월 2일 (인용된 부분)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영혼들 안에서 겪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위로)

..... 106쪽

제6권: 1904년 5월 28일 (인용된 부분)

..... **107쪽**

제6권: 1904년 3월 16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새로운 에스 테르) **제8권:** 1908년 2월 7일 (보석으로 바뀌는 삶의 무게) **제6권:** 1905년 2월 10 일 (모든 만족 중에서 가장 큰 <만족인> 고통) **제9권:** 1909년 4월 1일 (신부를 위 해 골라 뽑은 고통인 <십자가>)

..... **108쪽**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인용된 부분)

제11권: 1913년 9월 2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고통을 능가하는 삶이다) **제8권:** 1908년 5월 3일 (미리 아름답게 꾸미는 하느님의 뜻) **제7권:** 1907년 1월 5일 (지상 적이라기보다 천상적인 삶) **제33권:** 1934년 5월 6일 (추락 이후의 속량에 관한 신학) **제33권:** 1935년 5월 31일 ('속량'과 '나라'의 일치) **제28권:** 1930년 1월 26일 (추락 이전의 행복과 <가족> 관계) **제32권:** 1933년 9월 10일 (구속 사업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복원을 위해서도 강생하신 예수님) **제32권:** 1933년 9월 24일 (우리를 다시 만들고 당신의 형제로 복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32권:** 1933년 3월 19일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원안<原案>이었던 아담)

..... **109쪽**

제15권: 1923년 5월 18일 (인용된 부분)

..... **110쪽**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 참된 변화와 완성) **제8권:** 1907년 11월 18일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갈 수록 전부이신 분으로 충만해지는 인간)

제7권: 1906년 10월 14일 (모든 것이신 분으로 충만하려면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제12권:** 1917년 7월 15일 (하느님이 가득한 영혼) **제6권:** 1905년 5월 23일 (아무것도 아닌 것과 모든 것이신 분의 결합)

제11권: 1912년 8월 14일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날처럼 시작할 일이다) **제3권:** 1900년 8월 3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 **제34권:** 1936년 8월 23일 (예수님의 인성 안에 숨어 있는 온 인류)

..... **111쪽**

제33권: 1935년 6월 17일 (하느님이 인간의 뜻 안으로 내려와 활동하시는 것이 야말로 더없이 큰 기적이다) **제8권:** 1907년 11월 18일 (영혼은 텅 빈 무가 되어갈 수록 전부이신 분으로 더 차게 된다) **제7권:** 1906년 10월 14일 (하느님으로 가득 차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울 필요가 있다) **제6권:** 1905년 5월 23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곧 인간>은 모든 것이신 분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제11권:** 1912년 11월 1일 (너 자신 생각일량은 하지마라) **제16권:** 1923년 11월 10일 (늘 작은 사람 안에서 지극히 큰 일을 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9월 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인간의 작음) **제34권:** 1936년 7월 4일 (하느님의 뜻 선물이 없는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

..... 112쪽

제32권: 1933년 3월 26일 (하느님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제28권**: 1930년 3월 5일 (하느님과의 일치 안으로 다시 불리고 있는 만물) **제28권**: 1930년 2월 26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하는 구분이 없다) **제28권**: 1930년 4월 23일 (창조되었으나 하느님의 속성들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은 인간)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자신의 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감지하는 영혼) **제30권**: 1932년 2월 10일 (인간적인 것을 비우고 무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신 분으로 채워진다) **제32권**: 1933년 4월 23일 (영혼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그에게 주신다) **제32권**: 1933년 5월 14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 **제32권**: 1933년 6월 29일 (인간의 작음에 적응하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4월 12일 (무로 돌아간 사람의 그 무 안에 당신 생명을 기르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6월 10일 (모든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거룩하신 분을 받아들여, 존재 안팎에 그분을 옷 입듯이 입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나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제16권**: 1923년 10월 16일 (현재까지 성덕의 길에 있었던 모든 이들의 내적 상태를 루이사 안에 집중시키고자 하신 예

수님) **제36권**: 1938년 9월 5일 (인간의 작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그 거룩하신 분의 능력을 얻어 가진다)

..... 113쪽

제28권: 1930년 4월 18일 (하느님의 기쁨 및 대화의 대상이었던 사람) **제32권**: 1933년 4월 29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제32권**: 1933년 3월 12일 (무로 돌아가, 항구한 동반으로 하느님을 누리는 사람) **제33권**: 1934년 10월 7일 (하느님과 피조물의 상호 사랑) **제36권**: 1938년 4월 25일 (아무것도 아닌 무는 영혼 안에 하느님 뜻의 완전한 다스림을 초래한다) **제32권**: 1933년 6월 25일 (하느님의 중심 안에 있는 피조물) **제32권**: 1933년 7월 8일 (온통 하느님으로 채워진 완전한 행위)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피조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거룩하신 분)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뜻을 행하기만 하는 자는 결코 집에 도착하지 못하는 <도보 여행자>와 같다) **제12권**: 1919년 2월 24일 (창조주와 ‘작은 신’인 피조물 사이의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예수님의 지체인 피조물과 인간)

..... 114쪽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적 청각을 받은 영혼) **제32권**: 1933년 9월 2일 (계속적이고 필수적인 하느님과의 언어적 소

통) **제33권**: 1935년 6월 6일 (창조된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36권**: 1938년 7월 11일 (열린 커뮤니케이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제1권**: 191~195쪽 (하느님께서 주신 네 가지 생활 수칙에 대한 루이사의 설명)

..... **115쪽**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집에서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어) **제36권**: 1938년 11월 6일 (하느님과 영혼이 이루는 공동체)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피조물을 보며 즐거워하는 기록하신 분)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인간 자신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결코 집안에 도착할 수 없다.)

..... **116쪽**

제36권: 1938년 7월 6일 (영혼과 하느님 뜻이 서로를 기쁘게 하며 끊임없이 이어가는 대화) **제6권**: 1905년 2월 10일 (홀로 하느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하느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가장 큰 즐거움은 동반자가 있는 것이다.)

..... **117쪽**

제32권: 1933년 7월 8일 (불가분적인 하느님과의 유대) **제32권**: 1933년 9월 10일 (하나하나의 행위로 갈수록 커지는 하느님과의 친교) **제36권**: 1938년 8월 6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 다른 영

혼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다)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제36권**: 1936년 11월 30일 (피조물이 다다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깊이) **제34권**: 1936년 11월 3일 (하느님 뜻이 이루려는 목적: 상호 향유)

..... **118쪽**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영혼 생명을 뒤덮은 재를 날려 버리는 강풍)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하느님의 거처에 개선하는 기록하신 뜻) **제28권**: 1930년 3월 5일 (모든 영혼들 안에 반영되는 하느님의 행위들) **제28권**: 1930년 3월 5일 (모든 피조물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행위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모든 영혼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4월 15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모든 영혼이 행하게 하는 영혼.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혼을 느끼는 모든 영혼)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자신의 행위로 만물이 하느님에게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제33권**: 1934년 5월 20일 (만물 안에 느껴지는 하느님의 행위) **제33권**: 1934년 6월 24일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 **제33권**: 1934년 10월 7일 (‘사랑의 전쟁’에서 모든 지성의 생각이 되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창조된 만물 안에 ‘사랑합니다.’를 넣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모든 피조물 안

에 올리는 사랑과 영광의 메아리)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모든 이를 찾아가는 영혼) **제36권**: 1938년 8월 6일 (각기 다른 영혼에게 각기 다른 효과를 내는 ‘사랑의 전쟁’ 행위들) **제36권**: 1938년 11월 6일 (모든 것이 포함된 행위) **제16권**: 1923년 9월 6일 (모두를 위한 하느님 사랑) **제34권**: 1937년 3월 22일 (영혼이 모든 사람에서부터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까닭)

..... **119쪽**

제12권: 1921년 4월 26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7월 17일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안팎으로 끊임없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 **제33권**: 1935년 11월 17일 (안식이 없는 행위는 없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30일 (예수님의 고통 안에 있는 창조력이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승리를 위하여 6천년 동안 기다리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모든 사람을 전부이신 분 안으로 데려오고, 전부이신 분을 모든 사람 안으로 모셔 오는 놀라운 기술) **제36권**: 1938년 8월 15일 (도처로 확장된 하느님의 생명과 행적에 의해, 모든 피조물 안에서 사랑과 영광을 받고 있음을 느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21일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 뜻 안에서 수행되는 행위들에 참여해야 한다.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 안에 내포된 하느님과 피조물)

..... **120쪽**

제28권: 1930년 3월 12일 (인간의 행위를 하느님의 행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제28권**: 1930년 4월 18일 (행위들의 저장고) **제32권**: 1933년 8월 13일 (언제나 새로운 행위들을 하면서 매순간 인간의 행위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뜻) **제32권**: 1933년 9월 2일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신적인 행위로 되도록 기다리는 파수꾼이신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행위마다 그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하느님의 행위들에 내포된 영광) **제36권**: 1938년 8월 6일 (승리를 위해 6천 년을 기다리신 하느님) **제28권**: 1930년 8월 24일 (아담 안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제28권**: 1930년 4월 18일 (모든 첫 행위를 아담 안에서 하신 하느님) **제27권**: 1929년 12월 25일 (우리에게 행위들을 주시는 예수님) **제26권**: 1929년 5월 25일 (아담의 행위들에 매달려 있는 모든 세대들)

..... **121쪽**

제12권: 1919년 5월 16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12월 28일 (반복되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하느님 뜻 안의 행위) **제32권**: 1933년 6월 4일 (하느님 뜻 안의 행위는 제각각 하느님의 생명을 내포한다) **제29권**: 1931년 10월 12일 (가득 찬 행위는 가장 큰 영광이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사람에게 한 번 더 숨을 불어넣으시고 원수를 쫓아내실 하느님)

..... **122쪽**

사도행전: 2장 2~4절 (인용된 부분) **제33권**: 1935년 7월 14일 (영혼들을 휩쓰는 바람)

..... **123쪽**

제11권: 1912년 3월 15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죄악과 욕정을 달아나게 하는 바람) **제32권**: 1933년 5월 25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기적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제34권: 1937년 3월 14일 (하느님의 각 행위는 저마다 하느님의 생명이다.)

..... **124쪽**

제32권: 1933년 5월 25일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0년 3월 5일 (인간의 행위를 신적 행위의 기적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제32권: 1933년 5월 7일 (피조물의 행위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봉헌하시는 하느님의 뜻) **제33권**: 1935년 10월 27일 (신적 행위로 바뀌면서 불어나는 인간 행위)
제36권: 1938년 8월 6일 (인간 행위의 완성을 위해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온 존재를 내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11월 6일 (모든 것이 포함된 신적 행위) **제36권**: 1938년 6월 26일 (피조물의 행위 안에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하느님의 뜻) **제28권**: 1930년 9월 20일 (행위들에 대한 하느님 뜻의 관리자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예수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가리는 베일인 성체) **제34권**: 1936년 11월 3일 (이미 행해진 행위도 변화시키는 거룩하신 뜻) **제34권**:

1936년 5월 20일 (인간적 행위를 벗어, 신적 행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영혼)

..... **125쪽**

제16권: 1923년 7월 24일 (하느님 뜻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소유한다) **제16권**: 1923년 9월 6일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
제16권: 1923년 10월 16일 (성체처럼 예수님을 덮어 가리는 얇은 베일이 되는 영혼) **제16권**: 1923년 11월 5일 (영혼 안에 당신의 신비적인 생명이 아니라 실체적인 성사 생명을 이루시는 예수님) **제16권**: 1923년 10월 30일 (영혼의 신화) 제2권: 1899년 4월 12일 (예수님의 살아 있는 감실)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피조물 안의 모든 것을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것)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의 피조물의 참된 변화와 완성)
제34권: 1937년 1월 1일 (사랑으로 변화되고 굳건해진 영혼)

..... **126쪽**

제36권: 1938년 4월 15일 (하느님의 뜻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느님의 신성과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 **제32권**: 1933년 6월 4일 (제각기 하느님의 생명을 내포하는 행위) **제32권**: 1933년 6월 25일 (새로운 센터에 자리하신 하느님)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중요한 모든 것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태어나 지속되는, 영혼에 대한 사랑) **제36권**:

1938년 7월 11일 (영혼 안에 <또 하나의> 센터를 세우신 하느님의 뜻)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의 거쳐인 센터 - 거룩한 방) **제36권**: 1938년 11월 30일 (피조물 안에 <생성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 **제11권**: 1914년 3월 17일 (하느님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들)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 **127쪽**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인용된 부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9일 12절, 제18일 17절, 제11일 10절 **제6권**: 1904년 4월 16일 (루이사의 간청으로 열개의 징별을 다섯으로 줄여 주신 하느님) **제28권**: 1930년 3월 9일 (예수님께 ‘나라’의 도래를 간청하는 루이사)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영혼의 어떤 청을 즉각 들어주신 예수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지극히 높으신 분 안에서 말을 하는 영혼)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10월 2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회의와 결정)

..... **128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우리과 우리의 행위 안에 계신 하느님. 모든 것이지만 오직 하나인 하느님 뜻) **제36권**: 1938년 5월 6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들과 삼위일체 하느님의 불가분적 관계) **제**

32권: 1933년 4월 23일 (영혼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느님은 그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 **제32권**: 1933년 6월 29일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 하느님) **제32권**: 1933년 7월 8일 (하느님과의 나눌 수 없는 유대 관계) **제32권**: 1933년 8월 20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 안에 들어가며 모든 곳에 있다.) **제33권**: 1935년 5월 26일 (하느님의 모든 업적 안에 있는 영혼과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함께 각각의 일을 하는 하느님과 영혼) **제33권**: 1935년 6월 10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영혼) **제33권**: 1934년 9월 24일 (만사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혼) **제33권**: 1934년 10월 7일 (하느님의 활동을 하는 영혼과 영혼의 활동을 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창조된 만물 안에서 사람이 동반해 주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6일 (하느님과 영혼의 영원한 결합)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신성의 비밀들이 드러난 것은, 하느님 뜻은 하느님 자신에게서 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모든 활동을 함께하는 하느님과 영혼) **제16권**: 1923년 10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떠나려면 당신 자신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11권**: 1914년 3월 17일 (하느님의 내적 행위와 외적 행위에 참여하는 영혼들) **제11권**: 1914년 6월 29일 (성삼위 하느님의 내적 활동에 참여하는 영혼)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느님과

영혼) **제36권**: 1938년 9월 5일 (하느님은 매사를 영혼과 함께하시기에 당신의 거룩한 활동 안에서도 영혼을 느끼신다) **제36권**: 1938년 9월 11일 (서로의 활동 속으로 뻗어나가는 하느님과 영혼) **제34권**: 1936년 11월 3일 (영혼 안의 활동들의 불가분성과 영향)

..... **129쪽**

제29권: 1930년 11월 30일 (인간 내부에서 질식된 속성들) **제36권**: 1938년 5월 6일 (하느님의 속성들에 독특하게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던 피조물)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속성들이 그분의 지체들이라면 하느님의 뜻은 엔진이다) **제32권**: 1933년 9월 17일 (하느님의 지체들인 그분의 속성들) **제33권**: 1934년 8월 5일 (당신의 속성들을 사람과 나누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의 속성들을 얻는 영혼들)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의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 **제12권**: 1919년 2월 24일 (사람 안의 신적 특성은 모든 피조물을 능가한다) **제32권**: 1933년 4월 9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에워싼 신적 속성들) **제28권**: 1930년 5월 20일 (만물은 하느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속성에 참여한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바다들과 더불어 피조물을 뒤덮는 하느님의 생명)

..... **130쪽**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제7일

7~8절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영혼의 본성으로 바뀌는 하느님의 선들) **제36권**: 1938년 7월 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변모된다)

..... **131쪽**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4월 23일 (하느님의 속성과 뜻이 주어진 영혼) **제28권**: 1930년 11월 30일 (우리가 하느님의 단일 행위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 창조된 하늘과 같은 하늘을 펼치신다) **제28권**: 1930년 12월 21일 (하느님의 뜻은 이를 원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위 등등 안에 당신 자신을 펼치신다)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당신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15일 (하느님의 생명을 형성하는 행위들. 하느님의 생명은 영혼 안에서 증가하면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무한한 지혜의 바다들을 펼치신다)

..... **132쪽**

제28권: 1930년 3월 24일 (순수한 영이 시며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느님. 이 빛이 인간의 창조 속에 반영되었다)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주어지는 하느님의 속성들) **제32권**: 1933년 9월 2일 (하느님의 속성들을 한도에 이르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영혼)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안에서의 진정한 변모와 완성)

..... 133쪽

탈출기: 33,19 (모세에게 당신의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 보이신 하느님)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영혼들의 것이기도 한 하느님의 속성들과 영광)

..... 134쪽

제4권: 1900년 11월 8일 (영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박아 주는 순명) **제2권:** 1899년 8월 17일 (인간의 모든 악덕을 죽이는 ‘귀부인 순명’) **제12권:** 1917년 8월 14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

..... 135쪽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제4권:** 1900년 11월 8일 (영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박아 주는 순명) **제2권:** 1899년 8월 17일 (인간의 모든 악덕을 죽이는 ‘귀부인 순명’) **제12권:** 1917년 8월 14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 **제4권:** 1900년 10월 15일 (‘귀부인 순명’의 요구) **제4권:** 1900년 10월 22일 (순명은 인간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 136쪽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어디서나 창조주를 볼 수 있는 빛의 눈)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

는 곳의 베일이 걷히면 어디서든 하느님이 보인다) **제32권:** 1933년 3월 12일 (개개의 사람 안에 당신 자신을 넣으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에는 당신 자신을 숨기시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숨기시는 하느님)

..... 137쪽

요한복음: 19장 10~11절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1년 2월 8일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영혼에 손댈 수 없다) **제33권:** 1935년 5월 14일 (영혼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138쪽

제29권: 1930년 11월 30일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이지만 하나이고, 만물의 일차적 힘이다) **제32권:** 1933년 3월 26일 (억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뜻) **제33권:** 1934년 5월 6일 (창조된 만물 안의 생명) **제33권:** 1934년 5월 12일 (만물의 원초적인 힘. 오직 인간의 의지만이 강요를 받지 않는다) **제33권:** 1935년 6월 17일 (인간적인 뜻: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어진 뜻) **제33권:** 1935년 9월 28일 (영혼들 안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하느님 뜻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가리는 막이 걷히고, 도처에 하느님이 보인다) **제32권:** 1933년 3월 12일 (피조물마다 그 안에 당신 자신을 넣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6일 (창조와 보존 활동으로 피조물을 계속 도우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만물의 원초적 행위인 하느님 뜻은 이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서 활동하신다) 제36권: 1938년 7월 24일 (사랑은 하느님 뜻 안의 영혼 안에서 활동적인 창조물을 만들어 낸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바람과 태양과 하늘 따위 모든 것 속에서 의지들의 분리를 느끼시는 하느님)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효력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으로서 소유하는 하느님 뜻)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하느님 뜻의 생명이 이룩하는 낙원)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자신의 내면에서 하늘을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영혼) 제28권: 1930년 7월 16일 (만물의 생명인 하느님의 뜻) 제4권: 1901년 7월 16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곳이 남아 있는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36권: 1938년 8월 21일 (하느님의 지체로서 하느님과 결합된 인간. 인간이라는 집 안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제3권: 1900년 3월 11일 (연옥 영혼들에게는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그들의 뜻이다)

..... 139쪽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당신 삶을 거둡하시는 하느님) 제33권: 1935년 3월 19일 (영적인 영역에는 공간 문제가 없다) 제33권: 1934년 8월 5일 (영혼 안에 있는 만물과 만물 안에 있는 영혼) 제32권: 1933년 10월 1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에서 하느님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제33권:

1934년 9월 24일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18일 (하느님과 함께 어디든지 있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그 누구와도 갈라질 수 없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만물 안에 있는 것은 그분께서 어떤 분리도 바라시지 않기 때문이다) 제34권: 1936년 4월 21일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 140쪽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 (최민순 譯, 바오로딸 刊, 2013) 30쪽 (인용된 부분) 제29권: 1930년 3월 5일 (모든 영혼 안에 반영되는 하느님의 행위들) 제29권: 1930년 11월 24일 (여러 효과와 함께 좋은 것들을 주러 오는 <신적> 행위. 열려 있지 않은 영혼에는 그 좋은 것들이 징벌로 여겨진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모든 영혼이 하느님께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게 한다) 제36권: 1938년 4월 15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든 영혼이 하게 한다. 모든 영혼은 하느님 뜻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자기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제36권: 1938년 4월 12일 (만물로 하여금 하느님께 ‘사랑합니다.’ 하게 하는 영혼)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만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느님) 제33권: 1934년 5월 20일 (모든 것 안에 느껴지는 행위) 제33권: 1934년

10월 7일 (모든 지성의 생각이 되는 영혼 ……) **제36권**: 1938년 7월 18일 (만물 안에 ‘사랑합니다.’를 박아 넣는 영혼) **제36권**: 1938년 7월 6일 (사랑과 영광의 반향. 만물이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진보를 느낀다) **제36권**: 1938년 7월 3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자기가 하는 <하느님 뜻의> 행위에 의해 모든 이를 찾아간다) **제36권**: 1938년 8월 6일 (그 행위의 빛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빛이라는 선은 받지 않을 수 없다) **제36권**: 1938년 10월 30일 (창조된 만물 안에서 영혼의 행위를 느끼시는 하느님) **제4권**: 1901년 7월 16일 (영혼 안의 빈곳을 사랑으로 다 채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 **141쪽**

제28권: 1930년 4월 23일 (우리는 하느님의 거처로 예정되어 있었다) **제32권**: 1933년 4월 29일 (하느님의 낙이 될 지상 천국) **제32권**: 1933년 9월 17일 (우리 모두 안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 **제33권**: 1935년 5월 31일 (하느님의 거처인 인간) **제33권**: 1935년 11월 24일 (대망의 ‘나라’ 안에 계신 숭고한 임금님) **제36권**: 1938년 7월 24일 (나머지 모든 조물이 누리는 부수적 영광)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의 낙원에는 하느님께 부족한 것이 도무지 없다) **제32권**: 1933년 10월 22일 (지상의 나라 대<對> 혁명의 나라) **제29권**: 1931년 10월 26일 (‘피앗의 나라’의 천상인들) **제36권**: 1938년 10월

10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은 하느님의 활동 현장이다)

..... **142쪽**

제19권: 1926년 8월 27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9월 2일 (더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목할 일이다) **제11권**: 1914년 5월 18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7월 9일 (예수님과 영혼 사이에 일어난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6월 2일 (평화요 안전인 하느님 뜻) **제36권**: 1938년 10월 26일 (근심 걱정은 심신의 쇠약을 초래할 수 있다) **제34권**: 1937년 3월 22일 (평화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

..... **143쪽**

성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8절 참조(인용된 부분) **제12권**: 1919년 9월 3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보속하는 영혼) **제12권**: 1920년 6월 10일 (천한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매달려 사는 영혼) **제12권**: 1921년 4월 26일 (땅을 보지 마라) **제28권**: 1930년 7월 9일 (영혼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44쪽**

제12권: 1920년 6월 10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선하고 거룩하며 하느님께 속한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제12권**: 1919년 9월 3일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보속하는 영

혼) **제12권**: 1921년 4월 26일 (땅을 보지 마라)

..... **145쪽**

제28권: 1930년 3월 9일 (인용된 부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인용된 부분)

제28권: 1930년 3월 9일 (하느님 생명의 씨앗처럼 자라는 지식) **제32권**: 1932년 2월 6일 (지식에 근거한 행위의 가치) **제32권**: 1933년 5월 14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

제32권: 1933년 5월 28일 (각 지식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다) **제33권**: 1934년 5월 26일 (마땅히 알려져야 하는 지식)

제33권: 1934년 7월 24일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모든 진리를 알려야 한다) **제36권**: 1938년 7월 6일 (사람에게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 주는 지식) **제36권**: 1938년 11월 6일 (영혼으로 하여금 하느님께 올라가게 하는 진리들) **제28권**: 1930년 2월 26일 (피조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리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제36권**: 1938년 8월 12일 (진리의 적용으로 인간의 지성을 정화 하시는 하느님. 그리하여 피조물을 진리로 변화시키신다) **제26권**: 1929년 5월 16일 ('사랑의 전쟁'의 병사들인 지식) **제30권**: 1932년 2월 28일 (지식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행위들)

..... **146쪽**

제3권: 1900년 5월 21일 (인용된 부분)

제32권: 1933년 6월 25일 (새로운 센터에 자리하신 하느님) **제32권**: 1933년 6월

29일 (모든 것 속에 반복되는 하느님의 생명) **제32권**: 1933년 8월 13일 (영혼은 되어 가야 할 것의, 또는 영혼 안에 끌어당겨야 할 것의 희미한 모상이다) **제36권**: 1938년 7월 11일 (모든 것을 하느님과 나누어 가지는 영혼) **제36권**: 1938년 11월 20일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 **제36권**: 1938년 8월 21일 (영혼 안의 당신 집에 계신 하느님)

..... **147쪽**

제36권: 1938년 4월 12일 (인용된 부분)

『하느님 뜻의 나라의 **동정 마리아**』: 제18일 (인간을 위해 전구하시는 마리아) **제36권**: 1938년 4월 12일 (하느님 뜻 안에 있는 영혼을 협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느님) **제28권**: 1930년 2월 26일 (초 세기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열망해야 한다.) **제28권**: 1930년 3월 24일 (선물을 확실히 받게 하는 확고한 간청) **제33권**: 1935년 7월 14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나라'를 간청해야 한다) **제36권**: 1938년 8월 15일 (당신 뜻 안에 있는 영혼에게 저항할 수 없어, 그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느님) **제36권**: 1938년 10월 10일 (그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 **148면**

「놀라운 은총」(Amazing Grace) 제6절: (성공회 사제) 존 뉴턴의 『성가 컬렉션』 (1790)에 실린 노래

..... 149쪽

제32권: 1933년 8월 13일 (네 가지 표징)

제35권: 1937년 9월 26일 (네 가지 선물)

제29권: 1931년 10월 8일 (신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만이 흠 없고 정연하며 완전한 행위로 드높여진다) **제36권**: 1938년 4월 25일 (하느님의 뜻이 영혼 안에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징은 점점 더 커지는 사랑과 그 불변성이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비는 간청기도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것이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이시여, 끊임없이,

- + 저희 정신 안에서 생각하소서.
- + 저희 피 속에서 흐르소서.
- + 저희 눈 안에서 보소서.
- + 저희 귀 안에서 들으소서.
- + 저희 음성 안에서 말씀하소서.
- + 저희 숨 안에서 숨 쉬소서.
- + 저희 심장 안에서 고동치소서.
- + 저희 활동 안에서 활동하소서.
- + 저희 고통 안에서 괴로워하소서.



- + 저희 영혼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결합되어 있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진
주님 뜻의 살아 있는 십자가상이 되게 하소서.
- + 저희 안에서 기도하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저희의 기도로 당신께 바치시어,
모든 사람이기도한 것처럼 받아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소서.

+ 아멘.



하느님의 뜻에 영구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봉헌기도

오, 흠숭하올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가 여기 당신 빛의 무한함 앞에 있사오니,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문을 열어 주시어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 주소서.

그러므로 오, 흠숭하올 뜻이시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저는
당신 빛 앞에 꿇어 엎드려,
지고하신 당신 '피앗'(Fiat)의 자녀들의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나이다.

또한 저의 무가치함 속에 엎드려
당신 빛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빛으로 저를 감싸 주시어,
거룩한 뜻이신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저의 생명, 제 지성의 중심,
제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 되시겠나이다.
저는 제 인간적인 뜻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사오니 이를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새 에덴동산을 이루겠나이다.

그리하면 저는 언제나 행복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며,
만물을 성화시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함을 지니게 되겠나이다.

여기 꿇어 엎드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제 안에 창조의 첫 명령을 다시 내려 주소서.

지극히 위대한 선의 중심이신 예수님,
당신의 불꽃을 제게 주시어,
제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이 자라도록
저를 태우고 완성시키며 먹여 살리게 해 주소서.

거룩한 '피앗'의 여왕이신 천상 어머니,
저의 손을 잡으시어
하느님 뜻의 빛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인도자시며 지극히 자상하신 어머니로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존속하게 하소서.

천상 어머니, 제 온 존재를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봉헌하오니,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유심히 귀 기울이겠나이다.

또한 어머니의 망토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러면 지옥의 뱀이 감히
이 거룩한 낙원 속으로 파고들지 못 하리니,
저를 유혹하여 제 뜻의 미궁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성 요셉, 저를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지켜 주소서.
제 뜻의 열쇠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제 마음을 엄중히 지키시며
다시는 이를 돌려주지 마시어,
제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수호천사여, 저를 보호하시며 지켜 주소서.
모든 일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 낙원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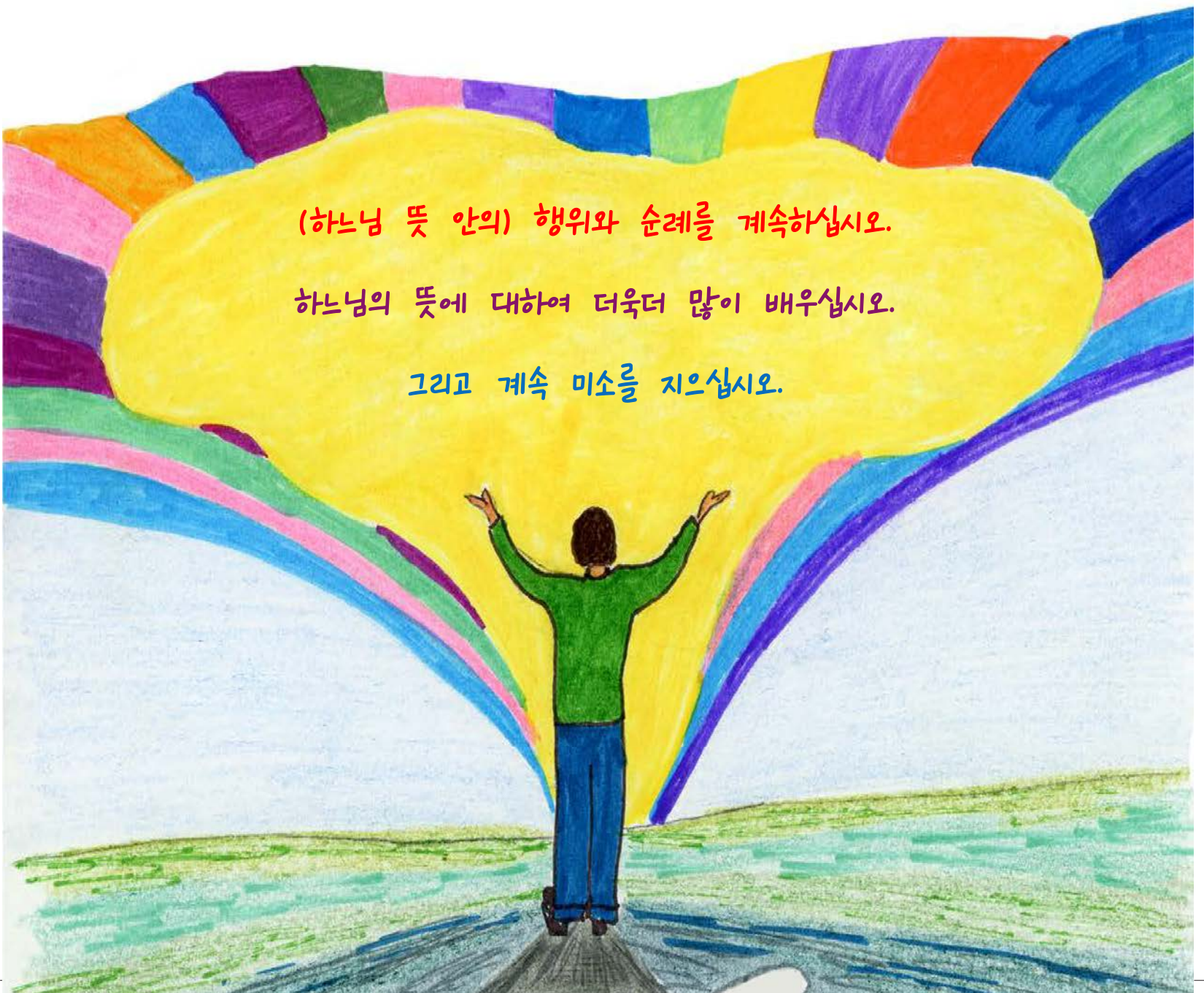
모든 천상 주민들이여,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뜻 안의) 행위와 순례를 계속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대하여 더욱더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미소를 지으십시오.



루이사 피카레타의 저술에 의거하여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 쓴
하느님의 뜻 영성 입문서

한 방울의 물 이야기 : 드롭북 시리즈 1,2,3

발행일 | 2022년 4월 23일

펴낸곳 | 하느님의 뜻 가족 공동체

취급처 | 불모임 교재 연구실

주소 | 서울 중구 명동길 74(명동2가) 가톨릭회관 315호

Tel | 02)2272-5336

Fax | 02)2275-4336

E-mail | bulmoim@catholic.or.kr